

# 城南文化研究

第 10 號

2003

城 南 文 化 院  
附 設 鄉 土 文 化 研 究 所

## 목 차

### 논 문

|      |  |     |
|------|--|-----|
| 김 기빈 | 성남지역의 「지명우합(地名偶合)」 또는, 「예언성(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 3   |
| 박종민  | 지역사회 墓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 고찰                   | 23  |
| 백남욱  | 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 47  |
| 서승갑  |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 81  |
| 전보삼  | 성남의 정치성에 관한 일 고찰                           | 101 |
| 정은경  |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115 |
| 한동억  |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 157 |
| 한춘섭  |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 193 |

# 성남지역의 「지명우합(地名偶合)」 또는, 「예언성(豫言性)」지명의 사례연구

김 기빈\*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예언성 지명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이해
3. 예언성 지명의 분류
4. 맺는 글

## 1. 들어가는 글

지명은 인간의 社會生活과 더불어 그 생활의 터전이 되는 어떤 곳에 붙여진 이름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명이 붙여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간의 定着生活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명은 인간생활의 역사를 담고있는 化石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곳에 붙여진 지명은 그곳에 대하여 가장 土俗的이며 母國語的 이름이 되는 동시에, 命名 당시의 基層民衆 - 이것을 言衆이

\* 한국보지공사 지명연구위원, 중앙지명위원회 위원  
성남시 지방지명위원회 위원

#### 4 성남지역의 사례연구

라고 함-의 **世界觀**, 내지 **自然觀**, **來世觀**, **宗教觀** 등을 망라한 정신사적, 문화사적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지명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생활어이며, 그 이름에는 그곳에 토착하여 살아온 인간 생활의 智慧, 축적된 경험, 예측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되고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땅과 인간의 관계를 “모든 風土는 역사적 風土이고, 모든 역사는 風土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風土와 歷史가 만나는 곳에 붙여진 언어적 표현-지명-이야말로 그 땅의 진정한 土種이 되는 동시에 「身土不二」가 아닌 「土名不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어떤 지명의 命名은 세계의 가장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조국근대화」 이후 전 국토에 걸쳐서 **都市化**, **產業化**, **開發化**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옛날에 지어 붙인 이름들이 오늘의 현실과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지명연구가들은 「地名偶合」<sup>1)</sup> 또는 「諺言性地名」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현상 자체에 대하여 우연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지명의 글자를 **字意的**으로 해석하거나, 현재의 상황과 견주어 풀이하는 것을 「府會」한다는 시각에서 경계의 눈으로 보아왔음도 사실이다.

문제는 어떤 지명과 그곳의 현상이 부합하거나 서로 동화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偶然으로 보느냐, 아니면 先人們의 지혜의 소산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데, 필자는 본고에서 이를 예언성 지명, 또는 예언적 지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명과 국토현상이 서로 부합되거나 그 이름에 맞게 동화된 경우에, 이것에 대하여 반드시 因果論의 必然性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것을 조상들의 슬기나 先見之明으로 보는

1) 강길부 『땅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1997년 141쪽 외 다수

것은 팔연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분야에 관한 자료는 지명의 중요성을 喚起시키거나 각종 개발에 따른 地名毀損을 막고, 나아가 지명의 보존문제, 街路名稱이나 지명의 제정·변경시 신중한 命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順機能的 측면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료가 지명이 지닌 國語學的, 民俗學的, 地理學的, 歷史的, 考古學的 연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명 본래의 學問的 연구를 誤導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2. 豫言的 地名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이해

### - 通時性, 豫言性을 지닌 지명 → 지참(地識)

조선 숙종 때 민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正妃로 책임되었을 때 항간에서는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謠炎되었다. 여기서 미나리는 민비를, 장다리는 장희빈을 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통시적으로 미래를 밝게 살펴보거나 혹은 지명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치하는 현상을 가리켜 「地識」이라 하였다.

말하자면 지참은 도찰(圖識)-봉수도(奉數度)처럼 깊이 窵究하여 하 할 신비한 영역으로 보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중국 〈三國志〉에 나오는 「낙봉파(落鳳坡)」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만 하다. 유비의 군사 방통은 봉추(鳳雌)선생으로 통하였는데, (봉추는 봉황의 새끼라는 뜻) 그가 서쪽을 정벌하려 가다가 전사한 곳이 공교롭게도 낙봉파로서 “봉추가 떨어져 죽을 곳”임을 지명이 암시하고 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물운태(沒雲臺)」는 지참으로 보았던 곳이다. 이곳은 王辰倭亂 당시 이충무공

## 6 성남지역의 사례연구

의 수군과 왜적의 합대가 격전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이다. 그 당시 우리 수군의 주력을 이루면서 항시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던 忠壯公 鄭運이 부산 해전 중 적을 공격하다가 적탄에 순절한 곳이다.<sup>2)</sup>

그런데 이곳이 '물운대'로서 '물(沒)'이 짜지는 것, 사라지는 것, 곧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정운 장군의 '운(運)'과 물운대의 '운(雲)'을 서로 같은 음이라 하여 중국의 낙봉파와 비교하는 한편, 이것을 地識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전남 여수시 손죽도(損竹島) 등 몇몇 지참지명의 사례가 전해지고 있거니와, 시를 써서 남긴 것이 빛날 신통하게 일치하는 것을 詩識,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운세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名識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지참의 경우에도 이것을 運命性,豫言性을 지닌 사례로 보고 이런 사례를 매우 신비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성남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歷史的側面, 人物史的側面, 國土開發史的側面, 기타 예언성 지명으로 분류하여 설명코자 한다.

### 3.豫言性을 지닌 지명의 分類

#### 1) 歷史的側面에서

##### ① 중원구 은행동 「지화문(至和門)」(南漢山城 南門)의 경우

남한산성 남문의 이름은 지화문이다. 1788년(정조 2)에 명명된 지화문의 의미는 화목 또는 人和를 최고의 德目으로 강조한 이름이다.

그런데 이 문이 지화문이라 불리지기 전 1637년(인조 15) 1월 18

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부산 경남편』 1980년 555쪽

일(음)에는 청나라 군사들이 이 문 밖에 와서 “화의(和議)를 맺겠으면 빨리 나오고, 원치 않으면 19일이나 20일에 마땅히 결전을 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던 바로 그 문이다.

당시 조정은 척화(斥和)다 주화(主和)다 하여 조정의 공론이 ‘和’를 가지고 양분되었다가 결국 주화파의 주장대로 청나라와 화의를 맺게 된다. 그러기에 남한산성의 남문이 지화문이라는 사실은 ‘화’를 지상의 덕목으로 생각한 것으로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말하였다. “성파이 아무리 견고하고 거리적으로 천험에 근거하여도 성을 지키는 사람끼리 화목할, 즉 인화가 없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와 더불어 성을 지킬 것인가” 하였는데, 이 말이 후세에 교훈이 될 것임을 역사가 다시 증명해 주었다.

1896년 경기의병 연합부대는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던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 항전을 벌린 부대이다. 이 의병은 남한산성의 천험을 이용하여 일본군과 관군의 합동 공격을 잘 방어하였다. 그러나 의병 내부의 인화를 이루지 못하고 관군 내통자가 생김으로서 몰래 성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남한산성 의병 항전은 8백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산성 함락의 비운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남한산성 지화문은 우리 선인들이 바로 그런 교훈을 남기고자 작명한 이름이었음에도 우매한 후손들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다시 동서로 나뉘어 옛날의 동인, 서인처럼 민족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至和門은 우리 민족의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sup>3)</sup>

3) 토지박물관 『땅이름 역사산책』 (2000) 291 - 292쪽

② 분당구 동원동 「머내 - 험천(險川)」의 경우

한문 글자의 「險」은 일반적으로 '험하다'는 뜻과 함께 '요해지의 땅'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이 이름이 뜻하는 대로 '험천'이라는 이름은 청나라 군사에게 '우리 군사들이 깨뜨려 진 땅, 또는 '우리 군사가 상하게 된 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글자의 字意的 해석이 아니더라도 그 어원을 풀이해 보면 험천 - 머내라는 이름이 병자호란의 참상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까닭은 「險」이 '머홀 險'자로서 "머흔 일 구즌 일 널로 혼야다 낫거든"(고시조)에서 이것이 "험한 일 굽은 일"로 풀이되듯이 '머홀다'는 '험하다'는 뜻을 지닌 중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명대로 이곳에서 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해행총재』 중의 東溟 金世謙(1593 - 1646)이 쓴 『해사록』에도 이 하천의 명칭과 함께 당시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는데, 해사록은 그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때가 1637년 (인조 15)으로서 충청도의 근왕병과 청나라 군사 사이에 이곳에서 험천전투가 벌어진 지 두 달쯤 후의 기록인 것이다.

8일 (정미) 평명에 떠났다. 용인에 당으니 현감 이명열이 먼마을로 부터 왔다. 마화천(麻戲川 : 머흐내, 머내)에 이르러서는 시체가 쌓이고 피가 수십 리에 잇달아서 말이 나아가지 못한다. 충청감사 정세규가 싸움에 전 곳인데, 참혹하여 슬픔을 말할 수 있으랴. 신원(新院 : 지금 서초구 원지동 원터골 부근)에 이르니 인마가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들훈데 양재에 인마가 없다고 하므로 마지못해 여기서 묵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sup>

'험천'이라는 그 이름대로 이곳에서 험한 일, 굽은 일 곧 험천 전

부의 패배를 겪은 곳이니, 그 이름이 이미 병자호란의 참상, 그 역사를 증언하기 위하여 붙여져 있었던 것 같다.

### ③ 수정구 창곡동 진터벌의 경우

남한산성 밖의 남문 서쪽 3km 끝은 성남시와 서울의 송파구, 그리고 하남시 등의 경계가 되는 곳이며, 이 일대는 역사적으로 군사들이 주둔해 온 땅, 곧 '진터'라는 이름으로 그 백을 이어 오는 곳이다.

병자호란 당시는 이곳이 청나라 군사들의 '진터'가 되었고, 많은 부녀자들이 이곳으로 잡혀와서 절절을 지키고 죽거나, 혹은 철나라의 군사를 따라 심양으로 끌려가기도 하였던 곳이다.

그 후 260여 년이 지난 1896년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들이 일어나서 남한산성 안의 광주군수를 치단하고 성안에 주둔하였고, 이때 의병을 토벌하기 위하여 관군과 일본군이 남한산성 4대문을 포위하였는데, 이곳은 그때 일본군과 관군의 본진이 주둔하였던 곳이니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을 이곳에서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백리지>의 저자 이중환도 남한산성 주변지역을 싸움이 벌어질 지역으로 보았던 것이다.

성안은 혐하지 아니하나 성밖 산밀에는 살기를 떠었다.

또 중요한 진(鎮)으로 만약 사변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투가 벌어질 지역이다.<sup>4)</sup>

당시 의병과 관군, 일본군의 싸움은 20일 만에 8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의병의 폐진으로 끝나고 말았으나,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이 서울진공작전을 세우고 봉기한 것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이다.

4) 고전국역총서 (김세령) 『해행총제(해사록)』 151쪽

5) 이중환 『백리지』 (율유문화사, 이익성 역, 1995) 102쪽

한편 해방 후에는 이곳에 육군교도소가 들어서서 군인들 사이에 속칭 '남한산성'으로 알려졌고, 육군 교도소가 옮겨간 후에는 육군 제육부대가 들어서 있으니 군부대와 인연이 얼마나 짙긴 땅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④ 중원구 상대원동 봉화대 터의 경우

조선후기에 겹단산 정상은 서쪽에 동문과 서문의 두 봉수대를 세워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과 남한산성 안에 금보를 전 하던 곳이다.

이 봉화대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1752년 (영조 28) 이 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세운 것으로서 병자호란의 '소 월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봉화대가 있었던 곳(겹단산 정상)에 지금은 전파중계소가 세워져서 옛날의 통신수단과 오늘의 첨단 통신 전자장비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곳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이곳에 홍이포를 설치하고 남한산성을 공격하였던 전략적 요충지로서 뒤에 조정에서 성을 쌓았고, 오늘날에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 지리적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는 곳이다.

#### ⑤ 분당구 정자동 봉우재의 경우

한국통신공사가 자리잡은 이 봉우리의 옛 이름이 봉우재이다. 이곳은 그전에 높이 109m의 야트막한 산이었으나 분당신도시 개발 후 한국통신공사를 비롯하여 주택전시관 등이 들어섰다.

'봉우재'란 원래 봉수대를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옛날 밤에는 햇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나라의 급한 일을 알렸던 통신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봉수대가 있었던 곳을 '봉우재'라고 부르는 곳도 15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sup>6)</sup>

6) 한글학회 『한국땅이름 큰 사전 중』 (1991) 2490 - 2492쪽

이 지역도 어느 시대인가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보이지만 문헌상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신풍하게도 그 자리에 한국통신공사 사옥이 들어섰고, 그 바로 남쪽에 기슭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섰으며, 한국가스공사 맞은 편에는 불꽃교회가 들어섰다.

한국통신공사 = 봉수대, 봉화의 현대식 연료 = 한국가스공사, 봉화의 화불 = 불꽃교회가 신풍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마치 봉수대의 역사를 이곳에서 재현하려는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 2) 人物史的 측면에서

① 분당구 동원동 - 용인시 수지읍 경계에 있는 「정전파(鄭轉坡)」의 경우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地圖 지명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정전파는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 동원도 머내와 용인시 수지읍 경계의 부근으로 보이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인조임금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병사 鄭世規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이곳에서 청나라 군사들의 복병을 만나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한 곳이며, 그때 시체가 쌓이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고 기록된 곳이다.

이 쌈에서 정병사가 말 위에서 굴러 떨어진 곳이 하필 '정전파(鄭轉坡)'로서 '정씨가 굴려진 언덕' 쌈으로 풀이되는 이름이며, 그 러기에 이곳을 '지참'으로 보았던 것이다.<sup>7)</sup>

이 쌈에서 정감사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돌아갔는데, 그때 충청병사들이 전을 친 모퉁이를 '충청모퉁이'라 부르고 있으며, "고개 아래 깊은 소가 있는데, 지금도 날이 끝으면 귀화(鬼火, 도깨비불) 가 보이고 또 당시의 병기를 주웠다"는 기록도 보인다.

7) 홍경모, 『남한지』(광주군 번역 1989) 347쪽

② 수청구 금토동 둔토리(遁土里)의 경우

금토동 산 73번지 청계산 국사봉의 동쪽 능선(운중동의 사기막 골 북쪽)에 「서루도비고 블리의 성지」가 있다. 이 성지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 청계산 등산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성지는 병인박해 때 승진 서양인 천주교 신부가 숨어살았던 토굴로서 그 출입구는 북향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5~6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굴로서 바위 밑을 파고 들어갔는데, 프랑스 신부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 살면서 포교하였던 곳이며, 인근의 운중동 사기막골은 당시 천주교 인들이 사기그릇을 구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곳이다.

서루도비고 블리의 신부는 1866년 2월 7일 병인박해 때 이곳 금토동 둔토리에서 체포되어 그해 3월 7일 서울 노량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으며, 그후 교황 바오로 2세가 1984. 5. 6일 천주교의 성인으로 시성하였다.

생각해보면 遁土里라는 그 이름대로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가 이 땅에(土) 굴을 파고 숨어서(遁) 살았으니, 둔토리라는 이름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땅과 역사와 이름이 한편의 역사를 빚어낸 것 같다.

③ 청계산 망경대(望京臺), 데이다 기지와 관현사(觀顯寺)의 경우 높이 618m로 청계산 최고봉이 되는 이 석대는 여기에 오르면 눈 아래 萬景이 전개되므로 '만경대'라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선 개국 초기 고려의 유신(遺臣) 조윤(趙胤 : 1351 ~ 1425)이 새 정부의 조정에 나가지 않고 이 산에 올라 고려의 서울인 개경을 바라보며 슬퍼하였으므로 망경대(望京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 관하여는 새 조정에 출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계산 망경대 관련 설화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편 망경대의 동쪽 기슭, 서초구 원지동의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관현사(觀顯寺)라는 절이 있다. 절의 창건 연대 등은 자세하지 않으나 '관현'이라는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如如한 상태로 본다는 뜻이다. 곤 1천 5백여년 전에 야부(治父)선사가 〈금강경〉 주석에서 설파한 말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山是山, 水是水)라는 말과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지금은 망경대 정상에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래이다기지가 있어서 공중을 감시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관현사'의 절 이름이나 북쪽(개성)을 바라본다는 '망경대'와 서로 통하는 이름인 것 같다.

### 3) 國土開發史的 側面에서

#### ① 분당구 금토동(金土洞) 8)<sup>8)</sup>의 경우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다 보면 양재와 청계산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곧게 내리 편은 길이 달리내고개(달이내고개, 달래내고개)요, 그 고개를 조금 내려가면 관교분기점 끝미처 원쪽으로 보이는 흰 건물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사옥이며, 그 일대가 금토동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자리잡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을 보면, 마치 五行說에 근거하여 도로공사가 이곳에 터를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 국토 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국가공공기관이면서, 도목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 내를 건너며, 나날이 텔어가는 우리 나라 고속도로의 產室이요, 그 管理者인 것이다. 그들은 흙을 쌓고, 흙을 만지며, 흙을 다스려야 하는 국토의 도로설계자라

8) 금토동은 그전에 광주군 대왕면 금현동(金峴洞)과 둔모리(遁土里) 등으로 된 마을이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이들을 합하면서 두 마을에서 금과 모를 취하여 '금토동'이라 한 곳이다.

## 14 성남지역의 사례연구

고 할 수 있는데, 오행설에서 술은 木을 이기고, 木은 土를 이기며, 土는 水를 이기고, 水는 火를 이기며, 火는 金을 이진다는 것이 五行相勝說의 요체이다.

그러니 한국도로공사가 토목공사를 일으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곧 각종 건설장비(중장비 = 쇠)와 토목기술에 의하여 土를 다스리는 일과 일치하고, 이것은 금토동과 한국도로공사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분당구 금토동 도생이고개의 겨우

금토동의 남쪽에서 한국도로공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고개를 도생이고개라고 부른다. 이곳은 신라 말기에 우리 나라에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도선국사가 이곳을 지나갔으므로 도선고개라 하다가 도성고개, 도생이고개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고개는 분당의 판교에서 수서로 통하는 국지도상의 도로인데, 도생이고개는 '도생(道生)'이고개로 적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바로 그 한국도로공사의 '道生'과 서로 뜻이 통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산이 깎이고, 훑리며, 개조되고 있어서 도선국사가 도입한 풍수지리설이 파격을 받으면서 도선국사와 도로공사의 기이한 인연을 떠오르게 하는 곳이다.<sup>9)</sup>

③ 분당구 금토동 달리내고개(走川峴)<sup>10)</sup>-뚫리내고개(穿川峴)<sup>11)</sup>의 경우 이어령은 『띠도는 자의 우편번호』라는 책에서 고속도로를 "넓은 길이지만 오솔길보다도 더 좁은 길"이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오늘날 고속도로야말로 현대문명의 비정함, 현대인의 고독과 단절을 상징하는 문명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9) 한국토지공사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 (1999) 293쪽

10) 연대미상 『과천현고지도』 중 청계산 동쪽의 판교로

11) 『세종실록자리지』 광주목 조에는 천천산(穿川山)으로 나온다. 그러나 천천현으로 나오는 문헌도 다수이다.

모든 차량은 한번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무작정 달려야하는 의무(제한 속도와 멈춤의 제한)가 생긴다. 한마디로 달려야하는 도로 아니 '달리내고개', 주천현(走川峴)이 되는 것이다. 이 달리내 고개는 광주부의 고지도에 나오는 달이내고개, 달래내고개의 음전(音轉)으로서 月川峴, 월오천현과 같은 말이다.

이 고개의 정상 바로 서쪽에 있는 봉수대를 조선시대에 穿川山 또는 穿川峴이라 하였으므로 천천현 - 뚫리내(뚫리내, 지금의 두레)이 마을 이름이 여기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라는 이름도 역시 둘, 달, 들이 같은 語根에서 갈라져 나온 고개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결국 달리내고개(경부고속도로의 달려야 하는 고개)가 달래내고개("달래내보지"전설을 지닌 고개)요, 이 고개를 뚫어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니 역시 뚫리내고개가 되어 옛 이름이 名不虛傳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④ 분당구 금토동 수레너미고개의 경우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관교분기점 서쪽 금토동과 운중동 경계에 수레너미고개가 있다. 이 고개 역시 이곳에 고속도로가 뚫릴 것을 내다본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고개는 운중동 현대사회연구소에서 금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현지에서는 수루내미, 수내미, 수루너미 등으로도 불러지고 있으나 모두 수레너미, 곤 車蹕, 또는 車越의 뜻을 지닌 말이다.

지금은 이곳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이 고리를 물고 달리고 있으니 역시 수레너미, 곤 차유령이라는 뜻과 신통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수정구 상적동(上笛洞)의 경우

상적동은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이곳 달래내고개의 난공사구간을 국군 공병대가 7개월 만에 완공한 것을 기념

## 16 성남지역의 사례연구

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세운 기념비가 서울과 성남시 경계의 상적동 경부고속도로변에 서 있다.

이곳은 1968년 2월 1일 서울 - 부산간 428km의 고속도로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파지점으로서 이 공사에 최초로 투입된 육군 제 1201 건설공병단 제 220대대 용사들의 빛나는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 1980년 2월 15일

그런데 상적동이라는 이름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름으로서 딱 맞는 이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차가 기적(汽笛)을 울리며 출발하듯이, 상적동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위쪽(上)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이곳에서 울린 첫 발파소리는 공사 시작의 기적(笛) 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12)

### 4) 기타 豫言性을 지닌 지명

#### ① 분당(盆唐) → 분당(盆堂)의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당이라는 이름은 그전 동이점(즉 盆店)과 당모루(堂隅洞)의 합성지명이다. 곧 동이점에서 '盆'자를 따고, 당모루에서 '堂'자를 딴 것이지만, 여기서 '堂'이 '唐'으로 변하여 오늘의 「분당(盆唐)」이라는 잘못된 이름이 생겨났다.

여기서 '唐'자의 오류를 밝혀준 '堂隅洞'이라는 이름은 우리말의 '당모루'(당집모퉁이라는 뜻)인데, 조선 후기 경기도 광주부 量案(양안은 토지대장으로서 매 장마다 관인이 날인되어있고, 또 전답의 소재지와 소유주, 전답의 생진 모양까지 살세하게 그려져 있는

12) 한국토지공사『국토와 지명 2. 그 땅에 빛나는 보배들』(2003)  
216쪽

공문서임) 13)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의 분당이라는 이름은 盆堂으로 써야 되는 것이다.

특히 「상유천당(上有天堂), 하유분당(下有盆唐)」 14)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 「천당(天堂)」에 맞먹는 지상의 「분당(盆堂)」이 되려면 「당」자를 바로잡아야한다. 그렇게 될 경우 「분당 - 수많은 집(아파트)이 들어설 곳」이라는 해석과 일치하게 된다.

## ② 청계산 혈읍재(血泣-)와 忠魂碑의 경우

혈읍재는 수평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 사이의 청계산 중심능선 안부에 있는 고개이다. 청계산 매봉과 망경대 사이가 되는데, 이 곳에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사태골'이라는 이름으로도 통한다.

이곳 혈읍재에는 그전에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조 영날 사림의 거유 정여창 선생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실현이 좌절되자 통분해서 울었으므로 그 괴울음소리가 산 멀리까지 들려서 후학인 정 구가 '혈읍재'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정여창선생은 청계산 금정수에서 은거하다 연산군의 무오사화 때 연루되어 스승 김종직, 벗 김굉필과 함께 유배후 사사, 갑자사화 때 종성 땅에서 副棺斬屍됨.

여기에서 나오는 금정수는 청계산 마왕굴샘을 말하며, 이 혈읍재로부터 그리멀지 않은 북쪽 청계산 능선에 충혼비가 서 있다.

충혼비는 청계산 매봉 뒷미처 주능선 서쪽에 위치하는데, 1982년 6월 1일 14시 40분 군 작전 중 비행기 추락으로 이곳에서 순직한

13) 서울대 규장각 소장 『경기도 광주부 양안』(불마면 당우동 부분). 토지박물관 『분당의 땅이름이야기』(1999) 60쪽

14) 이 말은 중국의 『吳郡志』에 나오는 말로서 「상유천당 하유 소탕」(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소주와 항주)이라는 말을 고쳐 쓴 말이다.

53인의 국군 용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비이다.

그대들의 흘린 뜨거운 피와 충혼의 얼로  
조국은 살아 크게 승진나니  
그대들의 영혼은 조국의 산하에서  
영원히 살아 꽃피리라 …(중략)  
거룩한 영령들이여.  
조국의 품속에 고이 잠드소서.

라고 새겨져 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이 피울음을 울어서 혈읍제라 불렸다는 그 고개와, 그 고개 북쪽 인근에서 우리 국군 용사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53명이 사망한 사건은 전혀 서로 관계없는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우리 용사들이 피를 흘린 곳과, 정여창선생의 피울음과, 그 가족들의 통곡의 소리가 무관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소회가 아닐 것이다.

### (3) 탄천(炭川)과 마귀할멈똥짚간의 경우

용인에서 발원하여 분당, 성남을 지나 한강으로 복류하는 탄천은 三千甲子를 살았던 東方朔을 잡으려고 저승사자들이 이 내에서 숯을 팔았으므로 숯내, 순내, 수내 또는 탄천(炭川)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동방삭이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끊겨오게 된 사연이 재미있다. 한무제는 복숭아를 무척 좋아하였는데, 당시 崑崙山에 살고있던 西王母가 천도복숭아 서른 개를 따서 한무제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西王母는 중국에서 聖母로 추앙되는 전설 속의 여신이며, 그가 살고있는 崑崙山에는 우리가 '요지정'이라고 말하는 그 전설의 瑞池가 있고, 그가 보낸 천도복숭아는 한 개를 먹으면 1천 갑자(6만

년)를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仙果라고 한다.

그런데 꽤 많은 동방삭이 그 복승아를 세 개나 훔쳐먹었으니 삼천갑자, 즉 18만년을 살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西王母는 크게 노하여 麻姑仙女로 하여금 전방진 동방삭을 잡아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마고선녀는 손톱이 긴 선녀로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마고소양(麻姑搔痒)이라 하여 일이 뜻대로 되는 것(자기 손으로 제 몸의 어디든지 긁을 수 있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요즈음 아가씨들이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은 이 마고선녀를 본받으려는 것 같다) 그녀가 동방삭을 잡으려고 조선에 들어와서 써를 낸 것이 바로 「탄천의 숯 팔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분당구 서현동(율동)과 이매동 경계의 영장산 기슭에 「마귀할멈뚱뒷간」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마귀할멈은 마귀가 아니라 마고할멈이며, 마귀할멈뚱뒷간이 아니라 마고할미뚱뒷간이 변한 것이다.<sup>15)</sup>

이 마귀할멈뚱뒷간바위는 옛날의 채래식 변소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고선녀가 대변을 본 곳으로 전해지는데, 두 개의 큰 바위는 마고선녀가 쭈구리고 앉아서 두 발을 딛은 곳이요, 그 사이의 작은 바위는 대변덩어리라는 설명이다. 마귀할멈뚱뒷간 바위는 그 위치와 내력을 분당구 율동출신 한동억선생(성남문화원 연구위원)의 제보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다.

비록 전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천도복승아를 훔쳐먹은 탓으로 동방삭이 이곳 성남까지 쫓겨오게 되었고, 그를 불잡으려고 마고선녀가 머나먼 중국의 곤륜산에서 이곳 탄천까지 왕립하였으며, 그녀가 이곳 율동의 탄천 기슭 영장산에서 잠시 불일(?)을 보았던 것으로

15) 마고선녀와 관계된 지명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귀할미오줌자리(춘천 사북 용산), 마구할미뚱뀐 자리(경북 영덕 달성 옥산), 마고할미바위(경기 강화 서도 말도) 등 많은 예가 있다.

풀이하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다.

한편 탄천의 오염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므로 2002년에 성남시장, 용인시장, 서울시장 등 탄천유역과 관련된 시장들이 「맑고 푸른 탄천 만들기」를 결의한 일이 있다. 저승사자 혹은 마고선녀가 숯을 뺐었던 바로 그 탄천이기에 검은 내로 오염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오늘날 환경문제가 인류의 대재앙과 종말로 연결되는 것임을 탄천과 저승사자를 통하여 예고하고 있는 것 같다.

#### 4. 맷는 글

地名偶合, 곧 지명의 象言性에 관하여는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못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가령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쌍동이마을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미 세계 최고의 쌍동이마을로 기네스북에 올라서 그 인증서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을과 쌍봉산과의 관계는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구명해보려고 하여도 끝내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옛말의 名實相符니, 名不虛傳이니 하는 말들이 인명을 위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지라도, 지명의 경우에 그 쓰임새가 확실한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풀이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땅과 사람의 相生관계이다. 모든 땅은 사람의 삶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며, 그 땅과 사람의 인연으로 인하여 땅은 사람에게, 사람은 땅에게 길들여져 왔고, 이것이 땅과 사람의 相生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본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치 「큰바위 얼굴」처럼 땅과 사람이 서로 닮아 가는 과정에서 「人傑은 地靈」이라든지,

「地人相得」이니, 「地人合一」이니 하는 말들이 생겨났듯이 지명의 예언성도 그런 맥락에서 풀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지명은 저마다 성격과 포즈와 분위기를 지닌 살아있는 有機體라고 본다. 그 지명들은 그 땅과 서로 同化되고, 적절하게 대응하므로서 「土名不二」의 관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두자.

거듭 말하거나와, 지명은 단순한 「땅껍질의 명명」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있으며, 우리의 사이에 교감으로 통하는 無言의 약속”이 바로 지명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명의 이런 현상을 「地名偶合」(우연의 일치)이 아닌 「先人們의 智慧 - 豫言性 地名」으로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 肉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 고찰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동을 중심으로-

박종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검토
3. 자료수집
4.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상장례 과정의 변화
5. 기독교 유입으로 전통 상장례 변화
6. 렛음말

##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는데, 유족과 주위 사람들은 일정한 의례를 갖추어서 치른다. 이러한 예가 선망부모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후손의 도리를 다하여서, 망자를 위한 상례를 정성을 다하여 극진하게 치루고 있다. 의례가 너무 지나쳐서 실제보다도 명분과 의례 자체에 치우치는 예가 간혹 있다. 특히, 효를 강조하는 유교는 상례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본 글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교동 2동은 현재 많은 외지인들이 전입해 와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때는 연안 이씨(李氏)가 절대

\*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집성촌에 가까운 마을이었다. 이곳은 상민들이 많이 살고 주막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아랫동네와 달리 유교를 대대로 숭상하던 양반이 살던 곳으로 윗동네로 불리웠다. 아랫동네는 너더리마을로, 윗동네는 광암(廣岩)동네로 불리우는데, 지금도 땅을 파면 큰 바위가 나온다고 한다. 이것이 아랫동네와 윗동네의 경계표시가 되었다. 현재 판교 2동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외지인이 점차로 증가하는 반면에, 연안 이씨 가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을 떠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현재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연안 이씨 가구들도 다수 있다.

또한 30여 년 전에 이미 판교교회가 들어서서, 현재 마을 중앙 아름드리나무 근처에 세워져 있다. 판교동 2동 주민 대비 신자 수는 그리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질문지 조사결과 기독교 신자가 판교동 2동 주민들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이씨 가구의 감소, 전입자 점증<sup>1)</sup>과 더불어 기독교 신자의 다수 확보 등으로 판교동 2동 마을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판교동 2동 마을은 실질적으로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사회와 그 의식이 와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교동 2동 마을에서 상례의 변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기의 두 이유만으로도 점차로 유교식 상장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연안 이씨 가구는 절차로 줄고, 전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연안 이씨는 상례를 치를 때, 이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 전반적으로 인적 구성과 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의례를 이제는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 1) 판교동 2동에 세거하는 연안 이씨는 침사공파(淸事公派)에 속하는데, 이들은 중시조 1세인 습홍(麗洪)부터 5세인 정공(靖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묘소가 실전되어 있다. 따라서 6세인 원발(元發)을 실질적으로 중시조로 삼고 있는 듯하다.(토지박물관 2001: 126-7)
- 2) 판교는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입자 중에는 위장 전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유교식을 상례의 기본으로 계속 고집하겠지만, 의례의 절차와 형식이 상당히 간소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식으로 상장례를 치를 것으로 생각된다.

판교동 2동 마을에서 기독교가 상례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가정에서 기독교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례를 치룬다면, 기독교가 이 마을에서 상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유교식을 바탕으로 한 상례가 현실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질문자 응답의 통계상, 판교동 2동 마을에서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은 절에 일단 주목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판교동 2동 주민들은 후자보다도 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기독교식 상례는 '기독교'라는 한정된 범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식 상장례는 유교식 못지 않은 그들 나름대로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교식과 비교해서 상이하게 치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식 상장례가 일반인들에게 대중화 되기에는 약간의 장애물이 뒤따른다.

연안 이씨는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전입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종교생활로 이들은 상호 이질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전통적인 상장례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수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례가 현실화 되어가는 추세를 수용하는 정도 역시 각기 다를 것이다.

본 글은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마을에 대한 총체적 접근 중 한 단편이기 때문에, 상례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Ethnography와 질문지 응답 내용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1969년부터 한국문화인류학회로 하여금 전라남도를 필두로 전국 민속조사사업을 시작하여 보고서를 1981년 함남·복평을 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상례는 그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대상지는 주로 농촌지역이었다. 60년 대 말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외부와 접촉빈도가 적었으며, 어느 정도 생활권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조사자들에게는 도시화와 공업화의 조짐으로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절박감 마저 상존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당시 보고서는 조사 당시 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상(事象)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당시의 내적·외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보고서가 정태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한계를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또한 이외의 개인 연구는 동족부락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사회가 역사적으로 문자를 갖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농으로부터 점이 있어서 자료를 접하기에 쉬웠을 가능성이 있다. 동족부락은 양반문화의 계승지로서, 문중조직, 그들의 관습, 양반과 상민의 관계, 경제적 구조 변천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범위를 좁혀서 보면, 상례를 비롯한 각종 의례 연구는 주자 가례, 사례편람 등에 기재된 절차와 비교하거나, 더 나아가서 한 문중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형식 등을 기술하고, 각종 의례서와 비교하여서 나름대로 주석하는 경향이짙었다.

그러나 판교동 2동은 전국민속종합보고서와 개인연구의 동족부락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이곳은 현재 연안 이씨, 비연안 이씨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는 연안 이씨들이 다수 차지하는 동족부락의 성격을 질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로 연안 이씨들이 이 마을을 떠나는 반면, 비연안 이씨들이

새로이 전입하고 있다. 현재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모든 생활 기반시설의 개보수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모든 계획이 가시화되면, 전출입의 찾은 빈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전에는 양반계급과 상민계급이 이웃해 살았던 계급의 혼재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불개이드와 인접해 있으며, 분당에서 의왕과 안양으로 가려면 이곳을 지난다. 수지지역에서 서울의 남부와 동부지역으로 갈 경우에도 이곳을 이요할 수 있다. 판교는 자그마한 시골동네인 듯 하지만, 1동은 옛부터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어서, 이와 더불어 상업이 성행하였던 지역이었다. 일명 '주막거리'라 하여 색시를 고용한 술집이 다수 있었으며, 짹장수, 떨감나무장 수 등도 다수 있었다.

또한 대보름의 척사 대회와 백중의 씨름대회가 지금의 너머리마을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웃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출입이 찾았던 곳이었다. 교통이 발달하고, 외지인의 출입이 찾아서 외부와 접촉 빈도가 자연히 증가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과 비례해서 이 지역 생활양식의 변화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신부계급상, 판교에는 공(工)을 제외한 사농상(士農商) 계급이 공존하고 있었다. 판교동 1동은 현재처럼 상업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으며, 2동은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학문집안과 일반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판교동 2동에서는 시집 안간 처녀들의 1동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기존 연구는 양반 문중과 농촌지역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상업지역을 연구대상에서 거의 제외시켰다. 생활양식의 변화 속도도 기존 연구에서 행해졌던 농촌지역보다 상업적인 특징을 지녔던 판교지역의 생활양식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판교동 2동 마을연구는 제반 상황과 연계해서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다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판교동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마을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변화와 그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질문지와 면접을 통해서 판교동 2동 주민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볼 수 없지만, 뜻날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도 기록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은 면접을 통한 Ethnography 와 질문지에서 얻어지는 통계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 3. 자료수집

필자가 자료를 현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각종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로 판교동 2동 마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한정된 시간 내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례와 관련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응답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인지도를 점차로 넓혀 갔다. 이어서 해당 주민들을 다시 심층면접하면서 마을의 성격과 이를 통한 상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주민들간 상호관계를 확연히 엿볼 수 있었다.<sup>3)</sup>

판교동 2동 마을 상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안 이씨<sup>4)</sup>, 비연안 이씨와 기독교 신자를 제보자로 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로 수집하였다. 판교동 2동 마을은 현재 완전한 동족 마을은 아니지만, 연안 이씨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마을의 전통적인 상례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수백년 간 이곳에서 거

3) 현지조사는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본 글을 쓰기 위해서 확인을 요하는 내용은 다시 2003년 7월 8일 현지를 방문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새로이 얻거나, 보충하였다.

4) 연안 이씨는 시조 茂(中始祖 龔弘) 아래 총 10여개의 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4개 정도만이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판교에 거주하고 있는 연안 이씨는 坤을 파시조로 살고 있는 연성군파이다. 판교동 2동에 거주하다가 부천으로 옮긴 이용학은 연성군 곤의 17대 종손이다.

주해 왔기 때문에 유사한 생활문화양식을 지니고 있어서, 특히 의례면에서 전입자와 이교도의 생활문화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상계급과 그 의식이 실제로 찬존해 있었을 때, 생존했던 세대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들은 좋은 체보자가 될 수 있다.

상례는 여타의 의례와 달리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여관찰 가능성은 현재로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자료 수집은 정보제공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유교식 상례에 관한 정보는 연안 이씨와 비(非)연안 이씨로부터, 기독교식 상례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연안 이씨보다도 비연안 이씨로부터 상례를 치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sup>5)</sup>

민족지적인 서술 없이, 의례행위를 이해하는 법칙의 분석은 어려울 것이다(임준희: 1975, 150). 또한 Goodenough는 “한 사회의 민족지는 독자로 하여금 그 사회의 성원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 마을의 일상사는 장기적인 참여관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본 글은 사전조사 및 문헌자료 수집, 질문지와 심층면접, 최종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Goodenough의 주장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구체적인 민속지를 작성할 수 없다.<sup>6)</sup> 한편으로 설문지에 응답 내용을 통계처리하여 분석자료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한다.

5) 판교동 2동 마을에서 치루어졌던 상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예와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1998년 조사에 여러 조사자들이 참가하여서, 판교동 1동부터 3동까지 정치·경제·사회·경제·문화·종교 등을 전수조사하였다.

#### 4.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상장례 과정의 변화

판교동 2동 마을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연안 이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침성촌이어서, 이곳에서 치루어졌던 상례는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는 연안 이씨 상례가 비연안 이씨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유교식 상례는 내재된 의미와 절차 상 복잡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자 해독력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 비연안 이씨들의 상례는 연안 이씨와 비교해서 규모, 절차와 형식 등이 다소 부족했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조사된 판교동 2동 주민들의 상례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쪽 하겠다.<sup>7)</sup> 연안 이씨들은 상례에 관해서 자신들과 비연안 이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이야기로 넘긴다. 이들은 상장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만, 타성과 직접 접촉해야 했던 부분은 미미하게 지나치곤 하였다. 연안 이씨들은 비연안 이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선뜻 당시 상황들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여를 메준다든지, 회담이, 상호간 부조관계 등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상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불과 40~50년 사이에 여러 이유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여 반상계급이 붕괴된 이후에도 양반계급으로 분류되었던 연안 이씨들이 상민계급과 계속해서 한 마을에서 둥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맛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연안 이씨와 비연안 이씨 간 상장례 과정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히려 판교동 2동 마을 상장례는 이전부터 거주해 와서 원주민

7) 단, 등일한 질문에 대해서 제보자에 따라서 상이한 대답을 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연안 이씨의 제보자는 이××로 표기하기로 한다.

과 거의 다름없는 전입자들, 즉 비연안 이씨들로부터 상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상여제의 유무 존재도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현재 판교동 2동에는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판교동 2동 마을에서 지난 날 치루었던 상례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자료들은 이들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는 당연히 마을 공동체의 일이었다. 따라서 마을에는 이를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여제와 같은 일련의 조직이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 이용훈<sup>8)</sup>은 이전에 판교동 2동에 어느 마을처럼 상여제가 있었는데,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랐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연안 이씨 이××는 이전에도 판교동 2동에 상여제가 공식적으로 없었으며, 지금도 상여제가 없다고 완강하게 말했다. 이용훈은 상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옥순(67세, 판교수퍼 주인)은 장의사가 성남에 생기기 전까지 연안 이씨들은 친목회 형식으로 상여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달에 10원 인치, 1,000원을 회비로 거두었다고 어렵잖이 기억하고 있었다. 반상계급의 봉과로 비연안 이씨들이 상여를 매주지 않아서 친목회에서 거둔 금액으로 연안 이씨들은 수원에서 상두꾼을 불렀다고 한다. 판교동 2동 마을의 상례 풍앗이 관계에서도 연안 이씨와 비연안 이씨 간 반상관계와 그 변화도 엿볼 수 있다.

연안 이씨라 하여도, 이들 모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안 이씨들은 새벽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신을 장지에 묻었다고 한다. 이들은 고속도로 및 인근 지역이 개발될 때마다, 물중 땅이 상당수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일부 연안 이씨들은 보상금을 각 가구마다 분배하지 말고 한데 모아서 공동기금을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 이

8) 광주 이씨로서, 조사 당시 60세였으며, 34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 32 지역사회 妻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를 반대하여서 각각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면, 연안 이씨家들도 경제 형편이 고루지 못하였으며, 앞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한다.(이상 신×× 제보, 이××의 만자부) 판교동에는 농협 앞에 상여집이 있었는데, 상여를 이곳에 보존, 관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실제로 판교동 2동에서 상을 치루는 과정에서 연안 이씨와 비연안 이씨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6·25 이전까지 연안 이씨가 상을 당하면, 마을 주민들은 상이 원만히 치루어지도록 각종 일을 당연히 도와 주었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이들에게 수의를 짜어주기도 하고 상여 밑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 주었는데, 연안 이씨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연안 이씨가 상을 당할 경우, 연안 이씨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가지 예로 연안 이씨 상에는 비연안 이씨들이 상여를 매주었는데, 이와 반대로 비연안 이씨들이 상을 당했을 때, 연안 이씨들은 “왜 우리가 ×××의 상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지난 날 판교동 2동에서 이를 간에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상례가 치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 때와 6·25 무렵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계급의 상하관계 의식이 연안 이씨들에게 공간적인 상하관계로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에는 반상계급과 그 의식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연안 이씨들은 상례에서 비용을 지출하여서 상장례를 치루었다. 연안 이씨들이 상을 당하려도, 비연안 이씨들은 이전처럼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동네 주민들이 연안 이씨 상을 당하였어도, 상여 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예전처럼 흔쾌히 도와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지속되었던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치루어졌던 상장례가 상호균등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상호간 품앗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처으로 연안 이

씨들은 삼주제(喪主契)를 구성하여 수원의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향두꾼을 불렀다.(이근대 제보) 전날 저녁 또는 밤인하는 날 새벽에 향두꾼은 수원에서 조랑말 마차로 상장례에 필요한 도구 일체와 상여를 분해하여 실고 와서 조립하였다. 상여를 예주고, 회단이 와 봉분 완성까지 이들의 끝이었다. 호상일 경우에 이들은 상여놀 이를 하였다.(이용훈 제보) 수원의 향두꾼들은 한번에 10~30명까지 동원되었다. 향두꾼들은 비용을 많이 받으면 다수의 사람이 오고, 적게 받으면 적게 왔다. 즉, 액수에 따라서 향두꾼의 수가 결정되었다. 대금 지불방법은 장의사에게 비용 일체를 지불하였다고 한다. 향두꾼은 일당, 상여 나갈 때, 회다지 소리 할 때, 상주와 복인들에게 별도의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상주와 복인들로 하여금 상여를 메고 나갈 때와 회다지 소리를 할 때, 받았던 별도의 비용은 마을 수입으로 귀속된다. 이 수입으로 차임, 동네 공동그릇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상이 났을 때, 이를 알리는 방법 역시 통신 수단의 변화와 발달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화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운중동과 하산운동은 동네 주민들이 호상의 지시를 받아서 부고장을 물렸다. 먼 곳의 경우에는 전신으로 사실을 알렸다. 최근 들어서 이전의 방식인 부고를 통하여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주민들은 염습이 끝난 후에 문상을 하였지만, 이제는 부고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후에 문상을 시작하거나 일을 도와준다.

20~30여 년 전까지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상을 하면서 쌀 모판 1회 정도, 음식(팥죽, 밀주 등), 창호지와 초, 금전 등으로 부조를 하였다. 이제는 부조 형식이 변하여 금전으로 한다. 이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기류를 급히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필요로 하였다. 비록 물질적 부조를 못하더라도 빈 손으로 가서 문상을 하여도 상주측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이해하였

### 34 지역사회 埋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다고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금전으로 부조를 하지 않거나, 문상을 하지 않으면 상호 의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용훈과 이 ■ ■ 제보) 현재 연안 이씨의 금전 부조는 이웃의 상일 경우 대체로 30,000~50,000원을 하며, 친척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는 100,000~200,000원을 부조한다. 대체로 남자 이름으로 부조를 한다.

판교동 2동 주민들은 성별에 따라서 도와주는 일이 다르다. 여자들은 상가 내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것이까지 담당한다. 남자는 상여를 메주고, 밥을 새우고, 장지에서 봉분을 만드는 일 등을 도와 준다. 남자들은 밥을 새우면서, '고스톱'을 치는 사례도 있다. 대체로 3·5·7·9점에 1,000원짜리 내기를 한다. 예전에는 상례를 치루는 동안에 외지인들로 구성된 놀음꾼 5~6명이 나타나서 속칭 '지꾸땡' 놀음을 벌였다. 일부 마을주민들이 이들과 어울려서 반새도록 놀음을 즐겼다. 대체로 마을주민들이 놀음꾼들에게 돈을 입었다. 심지어 쌀 및 가마니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요즘도 가끔 이러한 패거리들이 상가에 나타난다고 한다.

장의 전문업체가 생기기 전까지, 판교동 2동은 마을 공동으로 상장례를 치루었다. 20여년 전 모란에 장의사가 생기면서, 수원의 장의사를 이용하기 보다 이곳을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낙생농협에도 장의 코너가 마련되면서, 동네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용훈은 농협이 제시하는 장의 비용<sup>9)</sup>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성남시내 장의사와 농협을 선택하여서 상장례용구를 마련한다. 마을 주민들은 편의성과 실용성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상장례를 치루기보다 이러한 대행업체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집에서 상례를 치루는 경우이다.

요즈음은 병원 부속 장례식장 또는 전문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루는 사례가 판교동 2동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에는 그곳

9) 낙생농협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장의가격은 본 글의 끝에 첨부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에 설치된 장의 사무실을 통하여, 장의집기류도 구비할 뿐만 아니라 문상객들에게 대접할 음식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판교동 2동 주민들은 특정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성남 시내 각 병원에 달린 장례식장에서 삼을 치룬다. 성남의 중앙병원·성남병원·분당 차병원 등에 영안실이 마련되어 있다.

연안 이씨들은 선조들이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상장례를 진행시키겠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장례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다수의 연안 이씨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판교동 2동 주민들은 유교식 상장례를 따르고 있음을 짚작케 한다.

지난 날 연안 이씨와 비연안 이씨는 반상제급으로 일면적인 관계 속에서 상장례를 치루었다. 당시에는 반상제급이 제도적으로 이미 제거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제급의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갈등관계로까지 크게 비화되지 않은 듯 하다. 설령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여도 내재적으로 참재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상호간 호혜적인 품앗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반상제급 봉과로 이제는 호혜적인 관계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이 증대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평등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서 경제적 상층과 정치적 지배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 연안 이씨들이었다. 이 마을의 통장을 연안 이씨가 계속해서 맡아 왔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연안 이씨들이 마을의 여러 직책을 차지하고 있어도, 몇몇을 제외하고, 여타의 주민들은 불만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정책은 주민들의 총지를 모으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땅이 대부분 연안 이씨의 소유로 되어 있다. 연안 이

씨 각 가구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각 과별로 소유하고 있다. 승지공파가 11,645평, 단성공파가 3,281평, 청송공파가 12,343평, 숙부인파가 155,370평, 연성공파가 33,330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다.<sup>10)</sup>

판교동 2동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6·25 이후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상례가 호례적인 품앗이로 정착되었다. 이후에 마을 자체 내에서 전적으로 주민들간 상호협조로 상례를 치루다가 '장의사'라는 대행업체의 등장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장례식장에서 비용을 치루고, 상장례를 마친다. 판교동 2동 마을의 상례변화는 전체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반상계급의 붕괴와 도시화·산업화의 여파에 따른 현실적인 실용성 내지 편의성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 5. 기독교 유입으로 전통 상장례 변화

기독교에 앞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이들의 상제례는 유교와 결코 상충할 수 없었다. 끝내 상제례에 관해서는 유교와 천주교간에 유혈충돌까지 빚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판교동 2동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안 이씨들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던 후예들이었다. 따라서 연안 이씨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완강히

10) 일제시대 이후에 토지 관련법에 따라서 익명의 법인이나 단체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서, 이 곳의 토지를 연안 이씨 문중 명의로 소유할 수 있었다. 60년대에 법이 개인 소유로 바뀌어서 문중은 각 과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토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거의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소유에서 문중 소유로 법이 다시 바뀌었다. 연안 이씨도 이에 발맞추어서 문중의 각 과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대리인들의 자녀들과 이외의 문중 구성원들간 토지 소유에 대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사상적으로 갖추고 있었다.<sup>11)</sup> 지금도 연안 이씨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을에 들어선 이후에, 이들간의 갈등관계가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판교에 역사가 째 깊은 교회는 대한기독교장로회 계통인 낙생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통인 판교교회 두 곳이 자리잡고 있다. 낙생교회는 6·25사변 직후에, 판교교회는 60년대에 각각 세워졌다. 여기에서 판교동 2동에 자리잡고 있는 판교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판교교회는 한옥순씨가 자신이 기르던 돼지를 30여 년 전 당시 5,550원을 받고 팔아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출발하였다. 판교교회 재적 수는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기적으로 판교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50~60명에 불과하다. 판교동 2동 주민들 중에 판교교회에 나가는 신자는 4~5명에 불과하다. 정작 한옥순 할머니도 판교교회 개척교회 당사자이면서 수석권사직을 맡고 있지만, 판교교회에 나가지 않고 분당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판교동 2동이 연안 이씨 집성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에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설립 초기기에 연안 이씨들은 교회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해를 돋고자 기독교식 상장례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기독교식 상례는 대체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 고인이 운명을 하면, 목사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이를 임종예배라 한다. 유교식에서 행하는 고복을 행하지 않으며, 사자상도 차리지 않는다. 다음은 시시때때로 상주들은 예배를 한다. 유교식에서 상식하는 대신에 기독교 상례에서는 예배를 한다. 그리고 염습을 한 다음, 시신을

11) 판교교회를 치울 때, 연안 이씨들은 자기들 땅을 밟지 말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트럭이 마을에 들어 올 때, 말뚝을 박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한옥순 제보)

입관시키고 입관예배를 한다. 시신에 수의를 입힐 때는 전통적 상례에서 하는 것처럼 칠성매듭을 하지만, 시신을 꼭 동여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깔도 씌우지 않는다. 단지, 창호지를 꼬아서 끈을 만든 다음 시신을 여유있게, 느슨하게 묶는다. 그리고 염습작업은 반드시 남자의 몫이 아니다. 정보제공자인 한옥순 할머니 역시 염습을 직접 해보았다고 한다. 이어서 상주들은 말인 전까지 시시때때로 예배를 한다. 장지로 향하는 아침에 발인예배를 한다. 장지에 도착해서 하관할 때 하관예배를, 봉분이 완성되면 예배를 드리므로써 상장례 절차를 마친다.

문상객은 꽃을 올리거나 향을 사쁜 뒤에 묵살기도를 한다. 이어서 문상객은 상주와 맞절을 한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유팔이 든 해에 수의를 만들지 않는다. 이들은 굳이 수의를 만드는 시기를 정하여 만들지 않는다. 판교동 2동 기독교 신자들은 상을 담했을 때, 동네주민들과 친인척들에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한다. 즉, 마을 내에 이를 나름대로의 특수한 연락방법과 조직은 아직 없다.

기독교식 상장례는 기독교 교리에 부합되도록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절차는 유교식 절차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상장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교식으로, 이를 문화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부 유교식 상례 용어에 예배라는 문자를 불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에서 기독교식 상례는 선망부모와 조상에 대한 사고가 유교식 전통 상례와 판이하게 다르다 하더라도, 절차만큼은 유교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식은 유교식과 달리 종족 내외 위계질서보다 기독교 신자로서 자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부계의 연장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의례에서 담당하였던 역할보다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판교동 2동 주민들의 종교 분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주민들의 종교 분포

|      | 신도수(인) | 백분율(%) |
|------|--------|--------|
| 기독교  | 41     | 37.6   |
| 불교   | 38     | 34.8   |
| 천주교  | 3      | 2.8    |
| 유교   | 3      | 2.8    |
| 대순진리 | 1      | 0.9    |
| 천도교  | 4      | 3.7    |
| 무응답  | 19     | 17.4   |
| 합계   | 109    | 100    |

가구원 조사표에서 종교란에 표기된 사항을 상기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판교동 2통 주민들 전체 응답자 207명 중 109명 (52.7%)<sup>12)</sup>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상당수가 종교를 갖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중에 기독교와 불교신자가 가장 많아 70%를 상회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신도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교가 단 2명으로 대단한 것으로 보아서 연안 이씨 집안 대다수가 종교란에 유교로 표기하지 않은 것 같다.<sup>13)</sup> 조사 당시 판교동 2통에 연안 이씨들은 8가구에 1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불교 신도 5명, 유교 2명이었다. 따라서 연안 이씨들 중에 기독교인은 1명도 없었다.

다음은 신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례에 참여하는 빈도 수를 알아 보았다. 이는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의례에 참여하는 빈도

12) 각 가구별로 세대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1의 신도 수는 각 가구 수에 가족 수를 곱하였다. 따라서 표2와 표3은 질문지 작성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 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3) 연안 이씨 자부임에도 불구하고, 면담 중에 “절에 다니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경우도 있다. 유교 집안의 구성원들은 불교를 신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거나 반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통상 상제례를 유교식으로 치루되, 신앙의례는 불교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수를 통해서 해당 종교와의 관계 또는 밀도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2〉 신자들 종교의례 참여 빈도(가구 수)

|      | 거의<br>못나간다 | 가끔<br>나간다 | 질반<br>나간다 | 자주<br>나간다 | 거의<br>빠지지<br>않는다 | 무응답   | 합 계    |
|------|------------|-----------|-----------|-----------|------------------|-------|--------|
| 무 교  | 4          | 3         | 0         | 0         | 0                | 9     | 16     |
| 기독교  | 1          | 0         | 1         | 1         | 7                | 0     | 10     |
| 불교   | 3          | 4         | 0         | 1         | 0                | 3     | 11     |
| 천주교  | 0          | 0         | 0         | 1         | 0                | 0     | 1      |
| 유교   | 1          | 0         | 0         | 0         | 0                | 1     | 2      |
| 대순진리 | 0          | 0         | 0         | 1         | 0                | 0     | 1      |
| 천도교  | 1          | 0         | 0         | 0         | 0                | 0     | 1      |
| 무응답  | 1          | 3         | 0         | 0         | 0                | 0     | 4      |
| 합 계  | 11         | 10        | 1         | 4         | 7                | 13    | 46     |
| 백분율  | 100.00     | 23.92     | 21.74     | 8.70      | 15.22            | 28.26 | 100.00 |

판교동 2동 주민들 중 종교를 가진 응답자 중 기독교와 불교신자가 많다. 이들 중 기독교 신자는 10명 중 7명이 종교의례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각종 의례 역시 기독교식으로 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지난 날 판교동 2동에서 유교식 상장례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들 가정에서는 기독교식으로 치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판교동 2동에 상례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적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상장례를 치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불교도는 11명 중 10명이 가끔 나가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나가는 경우는 석가탄신일이나 칠월 칠석 등 특정한 날에 사찰을 찾아서, 가족을 위한 연등을 달거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 종교 역시 천주교신자를 제외하고는 종교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

독교신자들은 기독교 윤리에 따라서 생활할 가능성이 어느 집단들 보다 높다. 이와 전주어서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자들은 상장례 역시 기독교 교리와 그 방식에 맞추어서 치를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종교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      | 매우 중요 | 그저 그렇다 | 전혀 중요치 않다 | 무응답   | 합계     |
|------|-------|--------|-----------|-------|--------|
| 무 교  | 4     | 7      | 0         | 5     | 16     |
| 기독교  | 7     | 2      | 1         | 0     | 10     |
| 불교   | 0     | 7      | 1         | 3     | 11     |
| 천주교  | 0     | 1      | 0         | 0     | 1      |
| 유교   | 0     | 1      | 0         | 1     | 2      |
| 대순진리 | 1     | 0      | 0         | 0     | 1      |
| 천도교  | 0     | 1      | 0         | 0     | 1      |
| 무응답  | 2     | 2      | 0         | 0     | 4      |
| 합계   | 14    | 21     | 2         | 9     | 46     |
| 백분율  | 30.44 | 45.65  | 4.34      | 19.57 | 100.00 |

종교를 가진 판교동 2동 주민들은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판교동 2동 주민들은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신자는 10명 중 7명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의 표2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유교식 상장례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기독교식으로 지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6. 맺음말

이번 조사는 1998년 10월 초순부터 선행조사와 질문지 작성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판교동 2동이 연안 이씨의 집성촌이라는 사실을 선행조사에서 알게 되었다. 이전에도 외지인들이 전입해 왔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서 꾸준히 전입이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의 전입사유는 이전의 전입사유와 사뭇 다르다. 이는 조사 당시가 판교 개발로 수도권에서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교교회도 30여 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 판교동 2동 마을 주민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판교교회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지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있으므로 해서, 기존의 유교식 의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배경이 현재의 마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전에는 연안 이씨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을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보다 마을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어 연안 이씨들의 영향력이 마을 내에서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마을의 각종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판교동 2동 마을을 연구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반상계급의 봉과와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한국마을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판교동 1동(너더리마을)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였으면, 한국 농촌마을의 변화를 여러 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을간 변별성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판교동 1동은 2동보다도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이곳에서 5일장이 정기적으로 개설되었으며, 현재의 상가지역은 주박거리로 불리워서 여종업원(일명: 갈보)들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

다. 외지인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외부와의 접촉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판교동 2동 주민들은 상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1동 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녀들을 합부로 이곳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두 마을 간 교류가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었다. 출다리기와 동제 등을 아랫말과 윗말 주민들이 같이 지내면서 일정 부분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또한 이곳에서 대보름의 척사대회(윷놀이)와 백중의 씨름대회 등 각종 놀이와 대회가 열리곤 하였다.

판교동 1동 지역은 상업을 주로 하는 상민계급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판교동 2동은 연안 이씨 집성촌으로서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경비한 사농공상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판교동 1동과 2동 마을은 사회계급적·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너무 상이한 마을이다. 이러한 사회계급 현상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금세기 중반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상례를 치루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계급적 의식과 현상들이 두드렸겠음에도 불구하고, 타성보다 연안 이씨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연안 이씨들의 정보 제보 태도는 사회가 변하여 이전의 계급이 붕괴되는 것에 따른 것 같다.

상기와 같이 판교동 1동과 조사를 병행하고, 연안 이씨들의 정보제공을 충분히 받았어야 했음을 나름대로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여러 측면의 한계를 분명 갖고 있겠지만, 맷음말 서두에서 서술한 두 가지를 적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44 지역사회 疫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참고문헌〉

- 문옥표, 1998, 가정의례,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백산서당  
성남문화원, 2001, 관교마을지  
유동식, 1986, 기독교와 조상숭배, 문화인류학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조옥라, 1981, 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농촌부락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13집, 문화인류학회  
최길성, 1991, 한국인의 조상숭배, 예전사  
최 희, 1996, 지역사회연구의 인류학적 과제와 방법론적 쟁점,  
정신문화연구제19권 제3호(통권6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ROGER L. JANELLI · 임돈희, 1975, 한국조상숭배의식의 연구,  
문화인류학 제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 별표

## 낙생농업협동조합 장의용품 가격표

2003년 6월 현재

| 수 의 류   |    |           | 관·황대류  |    |         |
|---------|----|-----------|--------|----|---------|
| 품목      | 단위 | 가격(원)     | 품목     | 단위 | 가격(원)   |
| 큰이웃수의1호 | 벌  | 1,782,000 | 0.6오동판 | 개  | 83,000  |
| 전통수의 1호 | "  | 1,188,000 | 1.0오동판 | "  | 158,000 |
| 수의 14호  | "  | 924,000   | 1.5오동판 | "  | 211,200 |
| 수의 24호  | "  | 792,000   | 한국특3호관 | "  | 264,000 |
| 수의 11호  | "  | 594,000   | 한국특4호관 | "  | 330,000 |
| 수의 8호   | "  | 435,600   | 1.0황대  | "  | 47,500  |
| 수의 5호   | "  | 275,000   | 1.5황대  | "  | 71,280  |
| 화장수의    | "  | 46,200    | 2.0황대  | "  | 92,400  |
| 평곤 9호   | "  | 720,000   | 한국꽃상여  | "  | 330,000 |
| 평곤 5호   | "  | 495,000   |        |    |         |
| 영광별호    | "  | 800,000   |        |    |         |

## 46 지역사회 墓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 일반용품류  |    |         |        |    |        |
|--------|----|---------|--------|----|--------|
| 품목     | 단위 | 가격      | 품목     | 단위 | 가격     |
| 칠성판    | 개  | 5,280   | 상장리봉   | 개  | 230    |
| 멧베 5호  | 필  | 26,400  | 달지민    | "  | 660    |
| 멧베 6호  | "  | 66,000  | 완장     | "  | 150    |
| 멧베 7호  | "  | 105,600 | 공포     | "  | 1,980  |
| 멧베 8호  | "  | 198,000 | 초(대)   | "  | 1,060  |
| 멧베 9호  | "  | 264,000 | 특조등    | "  | 30,360 |
| 남상복    | 벌  | 6,800   | 명절     | "  | 13,200 |
| 여상복    | "  | 7,200   | 우단관보   | "  | 13,200 |
| 앞치마    |    | 2,000   | 관보 3호  | "  | 9,240  |
| 행전     | 개  | 660     | 광목두루마기 | 벌  | 6,000  |
| 샘석희    |    | 2,240   | 예단     | 개  | 1,060  |
| 두건     | 개  | 500     | 흔백     | "  | 660    |
| 소창(특대) | 필  | 11,880  | 특예단    | "  | 1,980  |
| 베개     | 개  | 660     | 차량띠    | "  | 6,600  |
| 일심향    | 타  | 1,800   | 수세     | 세트 | 33,000 |
| 아피어랜스  | 개  | 1,060   | 병풍     | 개  | 90,000 |
| 알풀     | "  | 620     | 함위패    | "  | 11,800 |
| 세정대    | "  | 900     | 수세포    | "  | 7,920  |
| 축문     | 권  | 530     | 짚신     | 조  | 2,560  |
| 부의록    | 개  | 660     | 채반     |    | 2,300  |
| 향로(셋트) | 조  | 21,120  | 놀이방석   | 개  | 3,300  |
| 받침대    | 개  | 660     | 상장대    | "  | 660    |
| 한지     | 권  | 4,280   | 보공     |    | 530    |
| 액자리봉   | 개  | 400     |        |    |        |

# 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백 남 육\*

## 〈목 차〉

1. 머리말
2. 백제 초기의 영역
  - 1) 남·남동계
  - 2) 북·북동계
3. 부화 지방통치
4. 맷음말

## 1. 머리말

백제 초기<sup>1)</sup>는 백제사에서 국가형성 및 체제를 정비한 중요한 시기여서 이와 연관된 영역<sup>2)</sup>과 지방통치<sup>3)</sup>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가

\*동서울대학교 교수

- 1) 백제 초기는 일반적으로 온조왕~고이왕을 전후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 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3, 1976 ; 李種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11, 1976 ;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60, 1985 ;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通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歷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歷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 權五榮, 「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韓國史論』15, 1986.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계된 『三國史記』 百濟本紀·地理志와 『三國遺事』의 기술이 소략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초기記事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sup>4)</sup>이어지고 있어 백제 초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

- 3) 虞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변태집마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 「漢城時代 百濟의 槍魯制 實施와 編制基準」, 『啓明史學』, 1991. ; 朴賢淑, 「百濟初期의 地方統治體制 研究」, 『百濟文化』 20, 1990. ———,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李宇泰, 「百濟의 部體制」, 『百濟史의 比較研究』, 1993.
  - 金英心,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百濟의 支配體制 整備와 王都 5部制」, 『百濟의 地方統治』, 1998. ———, 「百濟史에서의 部와 郡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7, 2000. ; 金元載, 「百濟의 領域變化와 地方統治」, 『百濟의 地方統治』, 1998. ; 金起燮, 「百濟 前期의 부에 관한 試論」, 『위의 책』, 양기석, 「百濟 初期의 部」, 『韓國古代史研究』 17, 2000.
  - 4) 『三國史記』의 초기記事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특히 百濟本紀의 초기記事와 그 기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긍정적인 측면의 경우 →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76 ; 千寬宇, 「三國의 國家 形成(하)」, 『韓國學報』 3, 1967 ; 李鍾旭, 「百濟의 國家 形成」, 『大邱史學』 11, 1976 ;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도읍지와 영역」, 『震禮學報』 60, 1985.
    - (2) 부정적인 측면의 경우 → 今西龍, 「百濟略史」·「百濟史講話」·「百濟史研究」, 1933 ; 白鳥庫吉, 「百濟紀元」, 『歷史』 刊號, 1947 ; 稲葉岩吉, 「朝鮮滿洲史」, 『世界歷史大系』 11, 1955.
    - (3) 초기記事의 일정한 내용에 대해 긍정하는 경우 → 李丙熙,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 中心勢力의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1976 ; 金哲俊, 「百濟建國考」, 『百濟研究』 특집호, 1982 ; 李基東, 「馬韓領域에서 的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1987.
- 이와 같은 百濟本紀의 초기記事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鴻嘉라는 漢의 연호 사용뿐만 아니라, 특히 百濟는 은조왕 13년에 영역이 북으로는 濁河, 남으로는 熊川, 서로는 大海, 동으로는 走墳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확보한 국가였음을 서술하고 있고, 동왕 26년에는 마한을 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3세기 중엽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사정을 최초로 기술한 중국의 『三國志』 韓傳에서 삼한이 70여 大·小國으로 분립되었고, 馬韓의 50여 대소국은 '相互制衡不能'이라고 서술하고

음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제 초기의 영역을 이해 할 수 있는  
지밀의 위치비정에 대한 異見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실상을 파  
악하는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三國史記』의 초기기록을 토대로 한성시대의 영역  
에 대한 관계기사와 역사지리적 상황을 검토하여 위치 비정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백제 초기는 남쪽으로는 馬韓과 신라, 북쪽으로  
는 낙랑과 말갈과의 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지명이 영역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백제 초기의 영역이 국가 발전과 함께 변천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리 또한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백제 초기의  
영역과 관련된 빈약한 문헌자료는 유적·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  
구성과를 반영하고 기존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여 문헌  
고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의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部' 혹은 '部體制'  
에서 그 시발점을 찾고 있다<sup>5)</sup>. 백제초기의 部는 왕도인 漢城을 중  
심으로 전국을 동서남북의 방위로 구분한 지방통치구획의 단위로  
보고, 檳魯制度 이전 중앙권력의 통제력이 미약한 초기 지방통치체  
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마한의 小國인 伯濟國에서 출발한 백제의 영토확장은 곧  
日支國을 중심으로 한 마한 50여 소국들을 장복 흡수한 것을 의미

---

있다. 이처럼 兩 史書의 내용은 약 3세기 가량의 조정하기 어려운 시기  
상의 격차가 있다. 이는 漢城時代의 상한이란 시기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중남부의 국가 형성을 비롯한 기원 전후시기의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양 사서의 문제를 조정  
보완할 수 있는 고고학의 연구성과, 즉 청동기문화 혹은 초기 철기문화  
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문제에 대한  
明確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 제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百濟本紀 早期記事의 취사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의 실상이 다  
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百濟本紀의 早期記事를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漢城時代의 영역을 이해하고자 한다.

5) 주) 3 참조.

한다. 이에 따른 백제의 지방통치는 마한지역을 정복한 이후 이들 지역을 중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部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마한과 신라, 낙랑과 말갈의 관계처럼 각 지방의 사정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部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결과 그 운영내용이 주로 행정과 군사적인 면에 집중되었다. 이 글에서는 백제의 동서남북 4부와 더불어 왕도인 하남위례성을 중심으로 남한산성과 연해져 있던 성남·하남·광주를 中部로 이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部의 운영과 그 성격을 파악하여 백제초기의 성남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백제 초기의 영역

백제건국 당시의 영역은 “왕이 처음 강을 건너 왔을 때 발 디딜 만한 곳도 없었으므로, 내가 동북쪽 100리의 땅을 빼어 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sup>6)</sup> 한 마한왕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남위례성을 중심으로 반경 50여 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三國志』 韓傳에 기술된 마한 小國의 지역범위와 같다고 하겠다.<sup>7)</sup> 이처럼 마한 소국단계에서 출발한 백제의 지배세력은 고구려계통의 선진문화를 소유한 유이민 집단이었고 이들이 자리잡은 한강유역은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평야지대로서 인구증가와 농업생산량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낙랑과 근접지역이어서 마한의 다른 소국들보다 漢郡縣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데 유리하였다. 백제는

6) 『三國史記』 百濟本紀, 은조왕 24년 7월.

7) 백남숙, 「馬韓 大·小國에 관한 分析」, 『國史館論叢』 24, 1991, 21~22쪽.

낙랑 및 말갈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대내의 여러 세력집단들과 결집을 광고히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백제는 마한의 소국들과는 달리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sup>8)</sup> 백제 초기의 영역은 온조왕 13년에 북쪽으로 漢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熊川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고<sup>9)</sup> 한다.

### 1) 南·南東界

위에서 백제 초기의 남쪽경계는 熊川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熊川은 온조왕이 熊川柵을 세웠더니 마한 왕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였다고 헐난하자, 그 木柵을 헛여 버렸다고 한다. 곧이어 백제는 물론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國邑을 병합하였다. 이런 점에서 백제초기의 남계인 웅천의 위치는 마한의 국읍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한은 『三國志』韓傳에 의하면 50여 大·小國으로 이루어진 '常好不能制御' 상태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馬韓諸國 중에 오직 目支國과 辰王의 존재를 부연 설명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① 辰王은 月(日:필자주)支國을 통치하였다. 臣智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臣雲遣支報 安邪跋支 漢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하기도 하였다.(『三國志』韓傳)

② 馬韓이 가장 크고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辰王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지역의 왕으로 굳림하였다.(『後漢書』韓傳)

A-①을 보면, 辰王은 馬韓諸國 중의 目支國을 다스렸고, 臣智의

8) 이종육, 앞의 논문, 21~27쪽.

9)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13년.

優呼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듯한 내용을<sup>10)</sup> 담고 있다. A-③에서는 辰王이 目支國에 도읍을 두고 三韓을 통괄하였다는 내용으로 A-①의 내용보다 辰王의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A-①·②에서 辰王과 目支國의 의미가 각각 달리 표현되어, 차로의 선택에 따라 마한에 대하여 달리 해석될 수 있다.<sup>11)</sup>

A-③ 그 중에 12國은 辰王에 소속되었다. 辰王은 항상 馬韓人의 왕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 辰王이 자립하여 왕이 되지 못하였다. (『三國志』弁辰傳)

④ 그들은 외지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馬韓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三國志』所收『魏略』)

A-③에서 弁辰 24國 중에 12國은 辰王에 소속되어 있으며, 馬韓 사람으로 王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나 辰王이 자립하여 王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A-①의 目支國을 다스린 辰王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弁辰 12국이 목지국의 진왕에게 소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A-①·③의 진왕이 同名異人이라고 한다면 目支國을 다스리는 辰王과 馬韓人으로 세습된 辰王이 弁辰 12국을 나누어 다스린다고 할 수 있어, 弁辰 12국은 馬韓에 예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A-④에서는 辰王을 馬韓人이 세습하는 연유를 辰韓人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한의 제재를 받았다고 하여, 先

10) 臣智이하의 구절은 문장의 난해함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那珂通世는 「三韓考」 「外交歴史」, 129쪽) 臣雲을 馬韓의 臣雲臣國, 安邪는 弁辰의 安邪國, 拘邪는 弁辰의 狗邪國 등에 보이는 國名으로 간주하고 辰王에 부속된 사회로 본 바 있다. 任昌淳은 (『辰韓位置考』, 『史學研究』 6, 1959, 9쪽) 다음과 같이 구두점을 찍어 “臣智, 或加優呼臣雲遣地, 報安邪, 故支派臣離兒, 不列 拘邪, 秦之廉之號” 구절을 정리하고, 臣·辰의 뜻을 강조하여 蔡師의 칭호인 臣智와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11) 三上次男, 「古代の南朝鮮一諸韓國の發達と辰王政權の立」, 『邪馬台國』, 1954, 117쪽; 三品彰英, 「事實と考證」, 『史學雜誌』 55-1, 1944, 84쪽.

住集團인 마한이 기득권을 갖고 後來한 집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段王에게 弃辰 12국이 신속하였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段王에 신속된 弃辰 12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12國亦有王”이라<sup>12)</sup> 하여, 弃辰 24국이 양분된 정치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A-②에서는 마한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왕을 세워 眞王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였다고 하여, 段王이 삼한의 總王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眞왕과 목지국을 서술하고 있는 『三國志』와 『後漢書』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앞서 진국의 예처럼, 마한으로 한정된 내용과 삼한을 통괄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게된다. 따라서 사료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眞왕과 목지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眞왕과 목지국에 관해서는 『三國志』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sup>13)</sup>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翰苑』所引 『魏略』에서는 “馬韓凡有小國五十六 總十餘萬戶 段王治目支國 (目 : 평자주) 支國置官 亦多曰臣智”라고 하여, 眞왕과 목지국을 A-①의 예처럼 마한에 국한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馬韓 50여 國 중에 眞왕이 목지국을 다스린다는 점과 眞왕을 우대하는 호칭과 그에 신속된 魏率善邑君을 비롯한 諸官吏들의 작위가 앞서 살펴본 諸國의 長帥와 같은 수준 내지는 높은 단계를 뜻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眞왕이 있는 목지국이 다른 諸國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체이며, 그 규모는 10,000여 戶에 해당하는 大國이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제의 温祚王代에 마한에게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 보내고, 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 한 것을 알리고, 말갈과의 전투에서 생포한 추장 素卑를 보낸<sup>14)</sup> 등의

12) 『三國志』 弃辰傳.

13) 千寬宇, “『三國志』韓傳의 再檢討,” 『震檀學報』 41, 1976 ;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研究,” 1980, 12-14쪽.

14) 金貞培, “目支國敘,” 『韓國古代의 國家形成과 起源』, 1985, 292-294쪽 ; 백남우, 앞의 논문, 21-22쪽.

내용은 곧, 마한과 백제가 부용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여 마한은 곧 목지국이라고 이해하고<sup>15)</sup> 있다.

백제의 南界로 이해되는 웅천은 마한 즉, 목지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목지국이 백제 초기의 남계인 웅천의 위치비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지국의 위치에 대하여 이전을 보이고 있으나 직산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산 일대에는 都河里(천원군 입장면), 安宮里(천원군 성탄읍), 坤宮里와 新宮里(평택 평성면) 등 '都·宮'과 관련된 지명이 있어, 직산의 지형이 왕도로서의 조건에 합당하다고 보인다. 이는 마한의 행주국인 목지국의 위치를 직산·성환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웅천을 '곰내'로 읽고, 안성천 유역인 孔道面의 熊川橋가 속칭 '고무다리'로 불리고, 안성천 하류에 있는 평택의 軍勿津(昆地津)이 軍門里津(郡

15)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10·13·18년.

16) 백남욱과(앞의 논문, 14~28쪽) 천관우는(『目支國考』『韓國史研究』23, 1979, 20~32쪽) 『三國史記』初期記錄을 신빙하고, 百濟王統의 교체 및 '目支'와 '彌鄧'의 음이 상이함을 근거로 하여,辰韓의辰王은 百濟古爾王,辰·弁韓의辰王은 新羅佔解王의同名異稱으로 보았다. 또한 目支國을 仁川에서 忠南 해안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해상세력으로 보고,辰王의 優呼가 弁辰의 安邪國·狗邪國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목지국에 대해서는 李丙旼은(『目支國의 위치와 그 地理』『韓國古代史研究』, 1976) 목지국이 마한의 중심 국가이며 백제에 병합된 마한으로 보고, 그 위치를 직산이라 하였다. 金貞培는(앞의 논문) 목지국의 위치를 예산으로 보고, 10,000여 家의 대국이라고 하였다. 崔夢龍은(『考古學의側面에서 본 馬韓』『馬韓百濟文化研究』9, 1986) 마한이 목지국이고, 그 위치는 직산이며, 5세기 후반에 나주로 중심세력이 옮겨갔다고 하였다. 虞重國은(『馬韓의成立과 变遷』『馬韓百濟文化研究』10, 1987) :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百濟論叢』 2, 1990) 마한이 목지국이며, 그 위치는 직산이라 하였다. 尹乃玄은(『目支國과 月支國』『龍嶺車文變數暨華甲紀念論叢』, 1989) 목지국이 직산, 월지국은 익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韓의 도읍지로 보고 있어, 마한을 목지국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마한을 목지국으로 이해하고, 그 규모는 10,000여 家에 해당되는 大國이며, 그 위치는 직산설을 따르고자 한다.

문이나루)로 불린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는 웅천을 안성천으로 비정하고<sup>17)</sup> 있다.

이와는 달리 웅천이 곧 안성천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백제의 강역을 삼한사회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마한을 漢 孝惠·高后(B.C 194~180) 때 위만에게 패한 조선왕 準이 해로로 한반도 서남부로 남하하여 재건한 조선(韓系)의 왕국으로 보고, 그 위치를 金馬(金馬山)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한 백제 말기 공주의 지명이 웅진도독부 → 웅천주 → 웅주라는 예를 들어, 『周書』·『南史』·『北史』 百濟傳의 ‘固麻城’이나 『日本書紀』(雄略 21년조)의 ‘久麻那利’ 등에서 공주의 원명이 곰(熊)과 관련된다고 보고 웅천을 공주의 금강으로 비정하는 경우도<sup>18)</sup> 있다.

이처럼 온조왕 13년에 획정된 강역의 남계인 웅천을 목지국의 위치와 관련하여 안성천 혹은 금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웅천의 위치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권 23 百濟本紀의 다음 내용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⑤ 온조왕 26년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國邑을 병합하였다. 다만 圓山城과 錦峴城의 두 성만을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⑥ 온조왕 27년 4월에 두 성(원산·금현)이 항복하므로 그 백성들을 漢山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은 드디어 멀망하였다. 7월에 大豆山城을 쌓았다.

⑦ 온조왕 34년 10월에 마한의 옛 장수 周勤이 우곡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친히 군사 5,000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⑧ 온조왕 36년 7월에 湯井城을 쌓고 대두산성의 民戶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8월에 圓山·錦峴 두 성을 수리하고 古沙夫里

17) 李丙燉, 『韓國古代史研究』, 1976, 242~248쪽.

18) 千寬宇, 앞의 논문, 126~130쪽; 全榮來, 앞의 논문, 138쪽.

城을 쌓았다.

- ⑨ 온조왕 43년 8월 야산 벌판에서 5일 동안 사냥하였다.
- ⑩ 다루왕 36년 10월에 왕이 영토를 개척하여 猿子谷城에 이르렀다.

A-⑤·⑥·⑦·⑧·⑨·⑩은 마한의 잔여세력을 멀하고 그곳을 지배지역으로 정비하고자 성을 수리하고 쌓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서 응천의 위치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A-⑤에서 원산·금현성은 위치미상으로<sup>19)</sup> 기술하고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 전산현 고적조의 '猿山鄉'에 의하면 충남 珍山이라 고도<sup>20)</sup> 생각된다. 금현성은 羅州의 옛 이름이 錦山·錦城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羅州라고 이해하지만,<sup>21)</sup> 근초왕대 마한의 잔여세력을 멀하고 백제의 세력이 날해안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성을 나주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금현을 진안현 熊嶺縣의 異寫로 보고, 지금의 진안군 부귀면 곳 치리로 보는 견해도<sup>22)</sup> 있다.

A-⑥의 대두산성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이후의 지명에서<sup>23)</sup> 대두산성을 두곡으로 옮겼다는 점을 고려하여, '公州 두곡역'·'舒川 두곡역' 중 한 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sup>24)</sup> A-⑦의 우곡성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나 말갈과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로<sup>25)</sup> 보아, 백제의 남쪽 경계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A-⑧에서 湯井城은 일반적으로 온양시로 이해하며,<sup>26)</sup> 백제 시대의 瓦片과 土器片이

19) 『三國史記』 권 37 雜誌 6 地理 4. '三國有名未詳地分'.

20) 천관우, 앞의 논문, 128쪽. 猿山을 完山의 異寫로 보아 지금의 전북의 전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全榮來, 「完山과 比斯伐論」『馬韓百濟文化』 1, 1975).

21) 丁若鑄, 『疆城考』 권 1 馬韓考 "錦峴者 或是今羅州也".

22)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東夷傳의 文獻的研究』, 1980, 138쪽.

23) 『三國史記』 百濟本紀, 문주왕 2년, 삼근왕 2·3년.

24) 천관우, 앞의 논문, 130쪽.

25) 『三國史記』 百濟本紀, 다루왕 29년, 기부왕 32년, 구수왕 16년.

상당량 수습된 읍내동 산성으로 파악된다.<sup>27)</sup> 古沙夫里城은 전북 정읍시 고구면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서 원산·금현성의 위치와 고구면은 너무나 원거리인 점을 고려하면, 禮山郡 高沙院이나 沃溝의 臨陂境(萬頃江口)의 古沙浦를 고사부리성이라고 보는 것이<sup>28)</sup> 타당하다고 하겠다. A-⑨에서의 牙山은 韓州 陰烽縣條에 '陰峯(一云 陰芩)縣 원래 백제의 牙道縣이다'라고<sup>29)</sup> 하였다. 아슬현은 현재의 충남 아산시이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백제가 온조왕 27년에 마한을 멸하고 당진성을 넘어 금현·원산·고사부리성을 영역으로 포함시켜 금강을 남쪽 경계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웅천은 안성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는 A.D 2~3세기경 중남부에서 적성총·도광묘·석곽묘 등의 분포지역을 동일한 문화권으로 보고 그 경계를 안성천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sup>30)</sup>을 고려할 것 같으면 백제 초기 영역의 남쪽 경계라고 한 웅천은 안성천으로 이해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루왕 이후의 백제는 신라와 빈번하게 충돌하였는데, 이는 백제의 남동쪽 경계를 이해할 수 자료가 될 것이다. A-⑩의 낭자곡성은 『三國史記』地理志 웅천주조에 西原을 脊城 혹은 子谷이라<sup>31)</sup> 하였는데, 서원은 곧 청주라 한다. 청주는 원래 백제의 上党縣인데 낭비성 혹은 낭자곡성이라 하였다.<sup>32)</sup> 이를 통해 낭자곡성은 청주라 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sup>33)</sup> 있다. 백제가 낭자곡성에 진출한 이후

26) 이병도 역주, 『國譜 三國史記』, 1977, 359쪽. 『三國史記』 권 36 雜誌 5 地理 3. 韓州 陰峯縣條에 '陰峯(一云 陰芩)縣은 원래 백제의 牙道縣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슬현은 현재의 아산이다.

27) 李元載, 「百濟 嘉井城 研究」『百濟論叢』 3, 1992.

28) 천관우, 앞의 논문, 131쪽.

29) 『三國史記』 권 36 雜誌 5 地理 3.

30) 崔夢龍·權五榮, 앞의 논문, 115~117쪽.

31) 『三國史記』 권 37 雜誌 6 地理 4. 百濟條.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5. 忠淸道 清州牧條.

33) 李元根, 「百濟 嘉井城考」『史學誌』 10, 1976.

蛙山城에서 신라와 치열한 격전을 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던<sup>34)</sup> 점으로 보아, 백제의 남동쪽 경계는 와산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산성은 『三國史記』 지리지에서는 지명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충북 보은으로 보는<sup>35)</sup> 것이 일반적이다. 와산성 이외에 신라와 격전을 벌였던 곳이 狗壤城이었는데,<sup>36)</sup> 그 위치는 충북 옥천으로 알려져<sup>37)</sup> 있다. 그러나 己婁王은 신라와 화친을 맺고<sup>38)</sup> 평화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신라 방면으로 영역확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肖古王은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여<sup>39)</sup> 신라와의 전쟁을 격화시켰다. 모산성은 충북 진천군의 대보산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가 와산성(보은)과 구양성(옥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산성의 위치는 진천군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초고왕 25년에는 신라의 서쪽 국경인 画山鄉을 습격하고 나아가 衤谷城을 포위하였다 고<sup>41)</sup> 한다. 원산향은 경북 醴泉郡 龍宮面으로도 보지만,<sup>42)</sup> 백제와 신라의 전투가 충주를 거쳐 鳥嶺을 넘어간 점을 고려하면 문경 용

34)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 37·39·48·49년, 肖古王 25년.

35) 이병도, 말의 책, 361쪽 : 천관우, 「三韓의 成立過程」『史學研究』26, 1976, 45~47쪽.

36) 『三國史記』百濟本紀, 大孤王 37년.

37) 이병도, 말의 책, 361쪽. 이에 비해 천관우는(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韓國學報』2, 1976, 45~47쪽) 구양성을 충북 괴산군에 비정하고 있다.

38) 『三國史記』百濟本紀, 기부왕 29년, 백제와 신라가 화친을 맺었다는 동일한 내용이 新羅本紀 파사이사급 26년조에도 보인다.

39) 『三國史記』百濟本紀, 초고왕 23년,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한 내용은 伐体尼師今 5년조에도 보인다.

40) 千寬宇는(『古朝鮮史·三韓史研究』, 1989, 302쪽) 경북 의성으로, 韓國精神文化院, 『譯註 三國史記』3(上) 주석편, 1997, 622쪽에서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으로 각각 비정하였다.

41) 『三國史記』百濟本紀, 초고왕 25년.

4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1976, 124쪽.

궁이라고<sup>43)</sup> 보아야 할 것이다. 부곡성은 경북 軍威郡 錦溪面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라군이 백제를 와산성까지 추격하였다는<sup>44)</sup> 점으로 보아, 백제는 부곡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단지 기습작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고왕 39년에는 신라의 纓車城을 공격하여 성을 함락하고 성주 薛夫를 죽였으나 곧바로 신라의 추격을 받은 것으로<sup>45)</sup> 보아, 요거 성 역시 백제의 영역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듯하다. 仇首王에 이르면 앞서 초고왕 때와 같이 신라와의 전투지역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백제와 신라의 접전지역인 낭자곡성(청주)·와산성(보은)·구양성(옥천)을 거점으로 경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구수왕에 이르면 猿山城·牛頭鎮·熊谷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다.<sup>46)</sup> 장산성은 양주 장산군조에 '장산군은 毬味王 때 押梁國(押督國)을 쳐서 빼앗아 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장산군이라고 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경북 경산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백제가 경산까지 공격하였겠는가는 의문이지만, 기습공격을 염두에 둔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두 진은 예천의 우두원으로 알려져<sup>47)</sup> 있다. 웅곡은 구미시 선산으로 비정할<sup>48)</sup> 수 있으나, 예천이나 선산 지역은 조령을 넘어 신라의 내륙지역이므로 백제의 친정한 영토라고 할 수 없다.

古爾王 때에 접어들면 신라와의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하였고, 다만 동왕 22년에 蜂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봉산성의 위치는 荣川郡 山川條에 郡의 동쪽 15리에 蜂山이 있다 는<sup>49)</sup> 내용으로 보아 경북 영천시가 아니었을까 한다.<sup>50)</sup> 그 후 동

43) 이병도, 앞의 책, 364쪽.

44) 『三國史記』百濟本紀, 초고왕 25년.

45) 『三國史記』百濟本紀, 초고왕 39년.

46) 『三國史記』百濟本紀, 구수왕 5·9년.

47) 이병도, 앞의 책, 367쪽.

48) 이병도, 위의 책, 367쪽.

49)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5, 荣川郡 山川條.

왕 33년에 다시 봉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동왕 45년에 신라를 공격하여 機谷城을 포위하였다고 한다.<sup>51)</sup> 괴곡성은 충북 괴산으로 비정하고<sup>52)</sup> 있다. 그러나 백제가 조령을 넘어 경북지역에서 신라와 전투한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괴곡성이 괴산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다고 하겠다. 이후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고,<sup>53)</sup> 고이왕대에는 신라와의 전쟁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백제는 조령을 경계로 신라와 대치하면서 양국 간에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互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백제 초기의 南界는 금강을 그 경계로 삼았다. 다투왕은 신라와의 적전을 통해 청주·보은·옥천을 남동계로 삼았고 초고왕은 조령을 넘어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고이왕은 신라와 화의를 하고 남동계를 조령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백제 초기의 남쪽과 남동쪽으로 영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역은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하겠다. 이와 같은 성남지역의 중요성은 한산에서 사냥하여 신비스런 사슴을 잡았다고 하는 내용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 2) 北·北東界

백제 초기의 北·東界는 앞서 온조왕 13년에 북쪽으로는 濁河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고<sup>54)</sup> 하였다. 동왕 38년에 지방을 순행하였는데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濁河에 이르렀다고<sup>55)</sup> 하여 東界는 走壤, 北界는 濁河였음을 강조하고

50) 이병도, 앞의 책, 368쪽.

51) 『三國史記』百濟本紀, 고이왕 33년·45년.

52) 이병도, 앞의 책, 370쪽.

53) 『三國史記』百濟本紀, 고이왕 53년. 이와 같은 내용은 新羅本紀 懷禮尼師今 3년조에도 보인다.

54) 『위의 책』, 기루왕 27년조 참조.

55)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13년.

있다.

北계인 湵河와 동계라고 한 走壤은 어디였을까?

'築國原城 … 首若州走壤城(一名迭岩城)'에<sup>57)</sup> 근거하여, 주양성의 위치를 춘천으로 비정한<sup>58)</sup> 이후 지금까지 큰 異見이 없었다. 湵河는 '平州本高句麗大谷都(一云多知忽) … 又號東陽 有猪淺(一云渢江)'이라<sup>59)</sup> 한 이후, '豬灘 … 高麗史云 猪川一云狼江'이라<sup>60)</sup> 하여 예성강으로 보고 있다.<sup>61)</sup>

이처럼 백제의 동계를 주양 즉, 춘천 그리고 북계를 폐하 즉, 예성강이라고 하였는데, 이들 이외에 백제의 동·북계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대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가 현재와 같이 선으로 표시하여 구별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남·남동계에서 보았듯이 강과 산령을 연결하는 내용이 참고가 될 것이다. 백제가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에 연접해 있다'<sup>62)</sup> '북쪽 경계를 침범해 왔다'라고<sup>63)</sup> 하여, 북계는 말갈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 — 낙랑 — 말갈과의 관계 속에서 城을 쌓고 櫛을 만들어 전부를 한 곳이, 당시 백제의 동·북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지역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말갈의 활동지역은

56) 『三國史記』百濟本紀, 은조왕 38년.

57) 『三國史記』新羅本紀, 문무왕 13년.

58) 安鼎福, 「東史綱目」附卷 下, 百濟疆域考, 韓百疇, 『東國地理志』百濟國都, 漢山城條에서는 주양을 철원으로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59) 『高麗史』卷 58 志 12 地理 3. 黃州牧 平州條.

60)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1 黃海道 平山都護府, 山川條.

61) 安鼎福과 『東國地理志』百濟國都, 漢山城條) 韓議書는 『海東繹史』百濟條) 폐수를 대동강으로 보았다. 金正浩와 『大東地志』百濟條) 中景溥은 『旅庵全書』百濟條) 폐하를 예성강이라 하였다. 丁若鏞은 『興禮堂全書』疆域考 百濟條) 폐하에 관계되는 여러 견해를 정리하고, 폐하의 위치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곳이라 하였으며,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나오는 폐하는 猪水(禮城江)이 틀림없다고 한 이후 폐하는 예성강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62) 『三國史記』百濟本紀, 은조왕 2년.

63) 『三國史記』百濟本紀, 은조왕 3·10년, 다무왕 28년, 구수왕 7년.

임진강, 적성 그리고 여주군 등 남한강의 중류 및 경기도의 동북지역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이와 관련된『三國史記』百濟本紀의 관계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① (온조왕) 8년 왕은 날랜 군사를 뽑아 (말갈을) 大斧峴까지  
쫓아가 싸워 이겼는데 … 馬首城을 쌓고 瓶山柵을 세웠다. 낙랑태  
수가 사신을 보내 고하길 …

② (온조왕) 10년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다. 왕은 군  
사 200명을 보내 鼎彌川 위쪽에서 막아 싸웠다. 우리 군사가 패하  
여 青木山을 의지하고 지켰다. 왕이 친히 정에 기병 100명을 거느  
리고 峰峴으로 나가 구원하니 적이 보고는 곧 물러갔다.

③ (온조왕) 11년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쳐서 파하고  
… 禿山과 狗川의 두柵을 세워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

④ (온조왕) 18년 말갈이 엄습하여 오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  
고 七重河에서 맞아 싸워 … 낙랑의 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白谷  
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

⑤ (온조왕) 22년 石頭와 高木城의 두 성을 쌓았다. 왕이 기  
병 1,000명을 거느리고 斧峴 동쪽에서 사냥하다가 말갈을 만나 한  
번 싸움에서 격퇴하였다.

⑥ (온조왕) 40년 말갈이 達川城을 침입해 왔다. 또 부현성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⑦ (온조왕) 43년 南沃沮의 仇顏解 등 20여 가구가 斧壠에  
귀순하였다.

⑧ (다무왕) 3년 동부의 乾子가 말갈과 馬首山 서쪽에서 싸  
워 이겼다.

⑨ (다무왕) 4년 고록성의 곤우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기고  
2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⑩ (다무왕) 7년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  
병산책을 습격하였다.

⑪ (다루왕) 29년 왕이 동부에 명하여 牛谷城을 쌓아 밭길을  
방비하게 하였다.

⑫ (기루왕) 29년 밭길이 우곡에 들어와서 백성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⑬ (기루왕) 초고왕 45년 적현과 사도의 두 성을 쌓고 동부  
의 民戶를 옮겼다. 밭길이 沙道城을 공격하여 왔으나 이기지 못하  
자 성문을 불사르고 돌아갔다.

⑭ (기루왕) 49년 북부의 진과에 명하여 군사 1,000명을 거느  
리고 밭길의 石門城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밭길이 날쌘 기병으로  
쳐들어와 道川까지 이르렀다.

⑮ (구수왕) 3년 밭길이 赤峴城을 포위하였다. 왕이 … 사도  
성 아래서 싸워 이를 격파하였다.

⑯ (구수왕) 16년 밭길이 우곡 경계에 들어와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 자료들은 백제의 등·북계와 관계되는 밭길·낙랑·옥저와의  
대결지점과 그에 대비하여 쌓은 城柵에 관한 기사를 정리한 것인  
다. 중복되는 지명을 제외하면 B-① 大斧峴·馬首城·額山柵, B-②  
昆彌川·青木山·烽峴, B-③ 禿山·狗川, B-④ 七重河·牛頭山城·  
臼谷, B-⑤ 石頭·高木城·斧峴, B-⑥ 道川城, B-⑦ 斧壤, B-⑧  
牛谷城, B-⑨ 沙道城, B-⑩ 石門城, B-⑪ 赤峴城 등이다. B-①의  
大斧峴과 B-⑤의 斧峴은 峴이 채나 고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  
접 지역에 있던 지명으로 파악된다. B-⑦의 斧壤에서 壤은 고구려  
어로 평야를 일컫고 있어, 大斧峴·斧峴·斧壤은 서로 연관되는 지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漢州 富平郡 平康縣의<sup>64)</sup>  
고구려 지명인 부양현과 음이 같으므로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에  
비정할 수 있다.<sup>65)</sup>

64) 『三國史記』 권 35 雜誌 4 地理 2 新羅 漢州.

65)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354·360쪽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B-①의 마수성, B-⑥의 마수산, B-⑩의 마수성은 동일 지명으로 이해된다. 이는 漢州 壘城郡의 고구려 때 지명인 馬忽郡과 마수성이 음이 비슷하므로 같은 곳으로 추정되고, 지금의 포천군으로 파악된다.<sup>66)</sup> 병산책 역시 포천군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낙랑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포천의 인근지역에 위치를<sup>67)</sup> 비정해야 할 것이다. B-②에서는 왕이 곤미천 위쪽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청목산을 의지하여 지쳤고 봉현으로 나가 구원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昆彌川·青木山·烽峴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근접지역이라고 이해된다. 이에 곤미천을 連川의 古地名과 관련지어 보면 임진강상류로<sup>68)</sup> 추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연천군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에 비정할 수 있다. 청목산은 연천에 인접한 楊洲 서쪽의 山嶺으로<sup>69)</sup> 볼 수 있으며, 봉현은 연천군 활동면 일대로 비정할<sup>70)</sup> 수 있다.

B-③에서 禿山柵과 併山柵의 위치를 미정이라고<sup>71)</sup> 하지만, 이를 각각 경기도 竹山과 충북 沃川郡 郡內로 비정하고<sup>72)</sup> 있다. 낙랑의 통로를 막기 위해 병산·독산의 두 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경기도 북부에서 황해도 남부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에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sup>65)</sup> 「韓國學報」3, 1976, 120쪽.

<sup>66)</sup> 『三國史記』 권 35 雜誌 4 地理 2 漢州, 壘城郡.

<sup>67)</sup> 韓國精神文化院, 「譯註 三國史記」3 주식편, 1997, 600쪽 : 酒井改藏, 「三國史記의 地名考」『朝鮮學報』54, 1970, 45쪽.

<sup>68)</sup> 酒井改藏, 위의 논문, 46쪽. 패하를 예성강으로 비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천관우가(앞의 논문, 120쪽) 곤미천을 예성강으로 비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sup>69)</sup> 酒井改藏, 위의 논문, 46쪽 : 『新增東國輿地勝覽』開城府 上 山川, 松岳條에서는 청목산을 송악산이라 하였다. 안정복은(앞의 책, 마한 때 제시조) 개성·금천 경계의 청석동으로 비정하였다. 이병도는(앞의 책, 355쪽) 영평지역이라 하였다.

<sup>70)</sup> 金正浩, 앞의 책, 권 3 麻田 連川, 山水條.

<sup>71)</sup> 『三國史記』 권 37 雜誌 6 地理 4.

<sup>72)</sup>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B-④의 七重河는 七重城과 관련되는 강으로 이해된다. 칠중성은 고구려의 지명으로 雜隱別이라고도 하였는데 신라가 重城縣으로 고쳤으며,<sup>73)</sup> 오늘날 波州 赤城面이다. 이에 따라 칠중하를 임진강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임진강과 연해져 있는 파주군 적성<sup>74)</sup> 혹은 적성 앞을 흐르는 임진강이라고도 한다. 牛頭山城은 낙랑과의 관계로 볼 때, 황해도 牛峰으로 비정하는 것이<sup>75)</sup> 옳다고 하겠다. 曰谷은 양주와 가평 경계의 구곡역으로 비정하고<sup>76)</sup> 있으나, 이는 우두산성을 춘천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하지만 황해도 우봉으로 볼 경우 지리적으로 원거리이고 교통로와도 무관하므로 혜당이 안된다.

B-⑤의 石頭城은 신라의 僧山郡 朝邑縣의 고구려 지명인 所邑豆縣과 음운상의 유사성을 내세워 연천군 朝寧面 僧山이라<sup>77)</sup>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천군 모산 서북의 石頭里로 비정할<sup>78)</sup> 수 있다. 고목성은 신라 漢州 功城縣의 고구려 때 지명인 功木達顯과 음운상 비슷하다고 하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비정하고<sup>79)</sup> 있다. B-⑥의 達川城은 沔川郡이 본래 고구려의 술천군이라<sup>80)</sup> 하고 고려 시대의 川寧을 말하며, 이는 여주에서 25리쯤 되는 이천 경계에 이르는 곳이며<sup>81)</sup> 끝, 麗州郡 奥川面이라고<sup>82)</sup> 하겠다. B-⑦의 부양은

73) 『三國史記』 권 35 雜誌 4 地理 2 漢州 來蘇郡, 重城縣 : 이병도, 앞의 책, 356쪽.

74) 천관우, 앞의 논문, 118쪽.

75) 이병도, 앞의 책, 356쪽. 천관우는(앞의 논문) 『三國史記』 地理志 우두주를 우두성과 관련지어 춘천으로 비정하였지만, '낙랑의 우두산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황해도 우봉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76) 천관우, 앞의 논문, 118쪽.

77) 이병도, 앞의 책, 356쪽.

78)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79) 이병도, 앞의 책, 356쪽 : 천관우, 앞의 논문, 120쪽 :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80) 『三國史記』 권 35 雜誌 4 地理 2 漢州, 沔川郡.

8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7 麗州牧.

82) 김정호, 『大東輿地圖』 여주군조 : 이병도, 앞의 책, 359쪽 : 천관우,

부현과 동일 지명으로 강원도 평강군 평강현으로 보고<sup>83)</sup> 있다.

B-⑧의 마수산은 강원도 금화로 비정하고<sup>84)</sup> 있다. B-⑪의 우곡성은 말갈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하여 동부의 절우가 쌓은 점을 고려하면, 적성의 남쪽에 있는 금곡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85)</sup> B-⑬의 적현성은 충북 옥천·영춘, 충남 한산·당진, 경북 개녕 등에서 적현이라는 지명이 보이나, 동부의 민가를 이주시켰다는 점과 그 지역들이 신라와의 관계에서 남쪽 경계와 연관되는 지역이므로 적현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사도성은 한주 토산군 삽읍현의 옛 지명인 소읍두현 또는 석두성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오늘날 경기도 연천군 삽녕읍으로 비정된다.<sup>86)</sup> B-⑭의 석문성은 경기도 남양의 석문리로 보고 있으나<sup>87)</sup> 말갈과 백제의 격전지가 동북지역이었던 점과 석문성이 말갈의 영토였음을 고려하면, 말갈과의 격전지였던 연천지역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북쪽으로는 예성강을 경계로 하여 백천~신제다율(현재)~평강~연천을 거쳐, 동쪽으로 춘천과 여주를 잇는 지역이 백제의 東北界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앞의 논문, 120쪽.

83) 이병도, 앞의 책, 360쪽. 酒井改藏은(앞의 논문, 46쪽) 북한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이는 패하(예성강)로 북쪽의 경계를 정했다는 기사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백제가 활동한 북쪽의 여러 지역을 볼 때 옮지 않다고 하겠다.

84) 이병도, 앞의 책, 360쪽.

85)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86) 한국정신문화원, 앞의 책, 626쪽 ;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87) 酒井改藏, 앞의 논문, 46쪽.

### 3. 部와 地方統治

辰王의 目支國은 직산을 중심으로 충청도 일대에서 10,000여 家 규모의 대국으로 존재하면서 마한의 소국연맹체를 주도했다. 이러한 목지국은 『三國史記』 기록의 마한이며, 백제는 마한 50여 국 중의 하나인 伯濟國을 의미한다. 『三國志』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에서 국명을 지칭한 '國'의 용례는 일반적으로 제후국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어, 『三國志』韓傳에서 삼한사회를 서술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삼한사회의 諸國名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서술한 것은 곧, 중국인이 史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國'의 의미가 삼한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서에서 나타난 '國'의 용례를 고려하면, 진왕의 목지국과 마한제국들 간의 관계도 종주국 대 제후국의 관계로 파악하고 서술한 것이라고 하겠다.<sup>88)</sup> 이는 『三國史記』에서 마한이 온조에게 100여 리의 땅을 할애했다거나, 백제국이 마한왕에게 신록이나 전쟁포로를 바쳤다거나, 천도를 알렸다는<sup>89)</sup> 등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마한 족, 목지국과 백제의 관계가 극진한 존중의 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예속관계에서 행해지는 종속적인 부庸관계였음을<sup>90)</sup> 보여주는 것이다.

백제와 목지국의 관계는 백제가 미추홀세력을 흡수 통합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지리적 이점을 동력으로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영역은 온조왕 13년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안성천, 서로는 서해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였다. 온조왕 26에는 목지국

88)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5·10·18年.

89)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10·13·18년.

90) 백남숙, 「三韓社會의 '國'에 관한 研究」,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100~107쪽.

(마한)을 멀하고 남쪽으로는 금강을 따라 南界를 확정짓고, 동왕 36년에는 고사부리성(전북 고부)을 빙아 마한의 잔여세력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였다. 은조왕대의 영역확대를 발판으로 고이왕 때까지 남동쪽으로는 신라와 대결하면서 청주·옥천·영주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였고, 동쪽·북쪽으로는 예성강에서 연천·춘천·여주를 잇는 東北界를 확정하였다.

백제가 영역을 확장하여 간 것은 목지국의 마한소국연맹체에 속한 여러 소국들을 흡수 정복하면서 이루어한 결과였다. 이에 백제는 목지국과 부庸관계에 있었던 마한소국연맹체의 운영질서를 개편하여 통합된 소국들에게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체계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A-⑦의 예에서 보았듯이, 마한의 잔여세력은 언제든지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마한 또한 금강 이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북동쪽에서는 낙랑과 말갈의 군사적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대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절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제가 확대된 영역에 대한 새로운 통치질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지방과 관계된 部의 자료들이 주목된다.

C-① (온조왕) 31년 봄 정월에 나라 안의 민가를 나누어서 南部와 北部를 삼았다. 33년 8월에 東部와 西부의 두 部를 더 설치하였다. 41년 정월에 右輔 乙晉이 죽자 북부의 解婁를 右輔로 삼았다.

② (다루왕) 3년 겨울 10월에 동부의 眇于가 말갈과 마수산 서쪽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7년 봄 2월에 우보 해루가 죽으니 나이가 90이었다. 동부의 흄우를 우보로 삼았다. 10년 겨울 10월에 우보 흄우를 左輔로 삼고, 북부의 진회를 우보로 삼았다. 11년 겨울 10월에 동부·서부의 두 部를 순행하며 위무하고, 가난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곡식을

한 사람 당 두 섬을 주었다. 29년 봄 2월에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을 방비하게 하였다.

③ (초고왕) 45년 2월에 척현성과 사도성의 두 城을 쌓고 동부의 民戶들을 옮겼다. 48년 가을 7월에 서부인 間會가 훤 사슴을 포획하여 바쳤다. 49년 가을 9월에 북부의 眞果에 명하여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

④ (전지왕) 17년 가을 7월에 동부와 북부 두 部의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게 하고, 병관·좌평·해구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⑤ 비유왕 2년 봄 2월에 왕이 4部를 순행 위무하고, 가난한 자에게 곡식을 차등있게 나누어주었다.

C-①에서 온조왕 31년에 남·북부를 그리고 33년에 동·서부를 두어 4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백제의 4부는 부여가 중앙의 本國을 계산하지 않고 주위의 지방을 나누어 '四出道'라 한 것과 같은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수도에 있는 왕족의 직접 지배지역까지 합치면 5부제가 된다고<sup>91)</sup> 하겠다. 더욱이 C-②의 다루왕 29년 조, C-③의 초고왕 45년 조, C-④의 전지왕 23년 조의 내용을 보면, 部의 해당범위가 왕도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과 연관되는 내용이어서 4부제에 앞서 5부제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C-②의 다루왕 11년 조와 C-⑤의 비유왕 2년 조에서 왕이 遷撫하였다다는 것은 통치영역을 확인하는<sup>92)</sup> 행위였다. 이런 점에서 部가 왕도를 중심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는 C-②의 다루왕 3년에 동부의 岱子가 말갈과 전투를 한 마수산이 포천 군이며<sup>93)</sup> 동부가 쌓은 우곡성 역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

91) 金哲培, 「百濟社會와 그 文化」, 『韓國古代社會研究』, 1976, 61~62쪽.

92) 金漢河, 「三國時代 王의 統治體制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164쪽.

93) 『三國史記』 권 35 雜誌 4 地理 2 漢州, 壓城郡.

으나, 적성의 남쪽에 있는 금곡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C-③의 초고왕 49년조에서 북부의 진과가 공격한 말갈의 석문성이 연천과 철원 사이의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동부와 북부는 왕도를 중심으로 하여 방위로 나뉜 지역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남부와 서부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部는 백제가 왕도를 중심으로 확대된 영역의 통치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행정단위 혹은 행정구획으로 편제된 지방단위였음을<sup>94)</sup>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은조왕대에 왕도의 중앙과 더불어 지방을 방위명인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행정구획으로 편제된 部는<sup>95)</sup> 앞서 마한의 소국들을 포함한 지역구분일 수밖에 없다. 삼한의 소국의 규모가 반경 50리 내외였고<sup>96)</sup>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2개군의 규모였음을<sup>97)</sup> 감안하면, 행정구획으로 편제된 지역단위인 部의 규모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부는 마한 소국의 하나인 백제국에 해당되며, 그 지역범위는 하남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리 내외의 서울일대와 남한산성의 주변지역인 성남·하남·광주로 볼 수 있다. 마한이 경기도·충청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부는 강북의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예성강에 이르는 지역이 될 것이다. 한이 대방군의 남계를 공격하다가 도리어 '韓那奚數十國'이<sup>98)</sup> 대방군의 지배로 들어갔다는 지

94) 金起燮, 「百濟前期의 部에 관한 試論」, 『百濟의 地方統治』, 1998, 76~77쪽.

95) 백제가 4부를 설치하여 운영한 내용을 은조왕 때의 내용이 아니라 지배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고이왕시대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마한연맹체의 주도권을 은조왕 때에 확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제가 확대된 영역에 대한 소국들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고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部와 관련된 기념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三國史記』의 조기기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部에 관계된 기사의 기념 역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96) 백남속, 앞의 논문, 50쪽.

97)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고조선사·삼한사연구』, 1989, 374~375쪽.

98) 『三國志』 魏書 3. 少帝紀.

역이 예성강~임진강 일대로 이해되는<sup>99)</sup> 점을 고려하면, 백제국의 북쪽 지역에 마한 10여 國 이상이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한 소국의 규모가 1,100~1,900여 家인 점을 감안하면, 북부는 적어도 11,000~19,000여 家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부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북부에서 해씨와 진씨 등 2개의 유력한 세력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우보와 좌보의 관직을 부여받고 있어(C-①·②) 이는 그들의 막강한 세력기반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북부의 진과가 지휘한 사병적인 성격의 部兵<sup>100)</sup> 군사가 1,000명이라는(C-③) 점에서도 추정된다. 왜냐하면 마한 소국의 戶數 규모가 1,000~1,900家이며,<sup>101)</sup> 군사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호수는 최소한 1,000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02)</sup> 앞서 북부의 규모를 최소한 1國 이상으로 상정할 수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해씨와 진씨의 2개 세력이 존재하였으므로 兩姓氏의 세력기반은 적어도 1國 이상이 될 것이다. 앞서 예성강에서 임진강사이와 한탄강 인근의 연천 주변까지 북부의 세력권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해씨와 진씨가 각각 지배하는 國은 최소한 1國 이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방군의 영향력에 들어간 '韓那奚數十國' 예에서 보듯이,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마한 10여 國 이상이 있었다면 북부의 해씨와 진씨는 적어도 4~5國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부에서 해씨와 진씨의 세력기반이 되었던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으나, 진씨가 말갈의 석문성을 공격한 것이(C-③) 참고될 것이다. 말갈의 석문성이 연천의 동쪽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진씨는 예성강과 임진강의 동쪽 방면을 세력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진씨의 세력기반을 벗어난 지역을 해씨가 세력기반으로

99) 천관우, 앞의 책, 377쪽.

100) 양기석, 「百濟 初期의 部」, 『韓國古代史研究』 17, 2000, 183쪽.

101) 白南郁, 「馬韓 大·小國에 관한 分析」, 『國史館論叢』 24, 1991, 7쪽.

102) 白南郁, 위의 논문, 11쪽.

삼았을 것이며, 그 지역은 북쪽으로는 예성강을 두고 대방과 접했을 것이고, 서쪽으로는 서해안에 이르는 지역이 될 것이다. 남쪽으로는 백제국의 지역범위를 벗어난 임진강과 동쪽으로는 연천의 한탄강을 경계로 하였을 것이다.

동부는 춘천을 중심으로 여주를 잇는 지역을 포함하며, 북한강 유역의 적석총 분포 지역과도 관련이 있는<sup>103)</sup> 곳이다. 동부는 C-②의 다투왕 3년 말갈과의 전투가 있었고, 동왕 29년에는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곽을 축조했던 곳이다. 말갈이 북한강과 남한강의 水路를 이용하여 백제를 공격한 예는 앞서 B-⑥·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춘천 주변인 가평·홍천·원주·양주·여주·이천 등이 동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하겠다.

남부는 백제국이 목지국을 병합하여 확보한 영역을 의미하며, 그 경계는 금강까지로 이해된다. 이들 지역이 한강유역의 적석묘·목판묘와는 달리, 壁溝가 달린 목판묘·목곽묘의 분묘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sup>104)</sup> 따라서 남부는 병합된 목지국의 영향력 밖에 있던 소국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백제가 신라와 접전하였던 지역이 낭자곡성(청주)·와산성(보은)·구양성(옥천)·과곡성(괴산)과 더불어 원산향(예천)·부곡성(군위군 악계면) 등으로 동남계는 조령을 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은 백제국의 지역범위인 성남과 광주를 벗어나 금강까지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서부는 왕도에서 서쪽지역이 되며 비류의 지역기반이었던 미추홀 즉, 인천 인근 남양만 일대의 서해안 연안지역이 될 것이다. 고이왕이 서해의 大島에서 사냥했다는<sup>105)</sup> 내용으로 보아, 강화도를<sup>106)</sup> 비롯한 주변의 島嶼地域이 서부에 소속되었다고 하겠다.

103) 최봉룡·권오영, 앞의 논문, 102~109쪽.

104) 권오영, 「증서부지방 백제토광묘에 대한 시론적 검토」, 『백제연구』 21, 1991, 24쪽.

105) 『三國史記』百濟本紀, 고이왕 3년.

106) 이병도, 『譯註 三國史記』, 367쪽.

이처럼 백제는 동서남북의 방위로 지방을 구획하여 4部로 삼아 새로운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어 갔다. 그러나 지방의 행정단위인 部를 어떻게 운영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部와 관계된 자료 C-①·②·③·④·⑤의 내용과 앞서 백제국에 소속되었던 목지국 중심의 마한소국연맹체의 운영질서가 참고될 것이다.

Ⓐ 백제 중앙의 중요 관직인 우보와 좌보에 오른 사람의 출신지를 표시한 내용 → C-①·②

Ⓑ 말간과의 전쟁에서 군사행동과 관련된 내용 → C-②·④

Ⓒ 城을 쌓고 徒民定策을 편 내용 → C-④·⑤

Ⓓ 왕이 영토를 확인하는 遷撫와 관계된 내용 → C-②·⑤

Ⓔ 중앙과 지방이 상하 내지 부용관계를 나타내는 내용 → C-④

Ⓐ에서는 部名을 인명 앞에 사용하고 있는 북부의 해루(C-①)를 우보로 삼았고, 해루가 즉자 동부의 홀우를 우보로 삼았다(C-②). 곧이어 홀우를 좌보로 삼고, 북부의 진회를 우보로 삼았다(C-②). 먼저 북부의 해루와 진회가 중앙의 재상으로 참여한 내용은 앞서 북부의 규모가 최소한 마한 10여 소국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씨와 진씨는 적어도 4~5國에 해당하는 지역을 세력기반으로 하였다 고 이해된다. 이에 백제는 4~5국 이상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在地勢力家를 임기가 종신인 좌보·우보 같은 중요 관직에 임명하고 兵馬之事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국사를 위임하면서 까지 해씨와 진씨를 우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C-①·②).

북부는 진과가 지휘한 1,000여 명의 사병적 성향의 군사를 소유 했던(C-③) 점으로 보아, 중앙의 통치력이 직접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처럼 인명 앞에 부명이 관청되었던 것은 곧, 북부의 해씨와 진씨가 그들의 지역에 대한 내부통치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중앙의 통치체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이는 북부가 독자적인 단위정치체로서<sup>107)</sup> 중앙의 통치체제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곧 해씨와 진씨 세력이 왕족과 더름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해씨와 진씨는 유이민 집단인 백제의 전국세력과 종족적·문화적으로 유사하였고, 낙랑과 말갈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백제의 중앙지배층에 참여하게 된<sup>108)</sup> 배경이었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북부의 해씨와 진씨는 연령체의 일원으로 중앙 정치에 참여하였던<sup>109)</sup> 것이다. 북부는 C-⑤에서 비유왕이 순행한 것이 처음이었던 점으로 보아 해씨와 진씨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북부에 대한 중앙의 통치행위는 C-③에서 사병을 운영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용인하고, C-④에서 축성 공사의 감독 또한 북부출신인 해씨를 파견한 것처럼 간접 지배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백제국을 성립시킨 부여씨를 비롯한 중앙세력이 북부를 흡수 통합한 것이 아니라, 낙랑과 말갈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중앙과 지방이 제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는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지역으로 이해되는 바, 이들 지역은 강변의 주변지역을 제외하곤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은 산악지대여서 인적 물적자원이 북부와는 격차가 있었다. 중앙과 동부의 관계는 C-②의 내용이 참고된다. 이는 동부지역이 말갈의 빈번한 침입로라는 여전이 중앙과의 관계에 반영되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출신으로 흘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의 지배층으로 참여한 사람이 없고, 다루왕이 동부에 통치지역을 확인하는 道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부는 우곡성을 쌓는 요역의 명령을 받아 大役事を 실행에 옮겼다는 점 등은 북부와는 달리 중앙의 통치력이 직접 작

107) 김영심, 「百濟史에서의 部와 部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7, 2000, 21 1~212쪽.

108) 李種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丘史學』 11, 1976, 10~11쪽.

109) 虞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機魯削 實施와 編制基準」, 『啓明史學』 2, 1991, 14쪽.

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서부는 왕도의 서쪽에 있는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가 될 것이다. 백제가 하남위례성에 자리잡은 온조집단에 의해 미추홀(인천)의 비류집단을 흡수하면서 건국되었다는 건국설화에서 보듯이, 국초부터 서쪽의 미추홀세력은 중앙에 흡수되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도의 서쪽에 해당되는 미추홀은 서부에 해당되며 곧, 비류집단의 근거지였다.<sup>110)</sup> 미추홀과 서부 해당지역은 백제의 중요한 소금생산지였다. 특히, 생산된 소금을 중앙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로의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sup>111)</sup>

이러한 서부지역의 특성은 영토를 확장해 가는 다른 지역보다 중앙의 통치력이 작용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에 서부는 동부와 더불어 왕의 순행지역이라는 점과(C-②) 서부인 회회가 훈사슴을 바쳤다는 기사(C-③) 등이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에 놓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은 또한 북부와 남부에 비해 서부의 설치가 늦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목지국이 주도한 마한연맹체의 소국들이 백제에 흡수되면서 이들 지역을 남부로, 한강 이북을 북부로 정한 다음, 이를 지역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동부와 서부로 나누었음을 고려하면, 서부의 성립이 남·북에 비해 늦게 성립하였음을 이해 할 수 있다.

온조왕 26년에 목지국 즉, 마한을 병합함에 따라 백제의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남부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한강에서 금강사이에 있던 목지국 중심의 마한연맹체의 소국들이 백제의 영도권 내로 편입되었다고(C-①) 판단된다. 백제가 병합한 마한의 소국들은 국읍을 중심으로 물자를 집산하면서,<sup>112)</sup> 반경 50리 내외의 지역범위에 해당되는 공동경제권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臣智·邑借라는

110) 권오영, 「初期 百濟의 成長」『韓國史論』 15, 1986, 89쪽.

111) 이도학, 『새로쓰는 백제사』, 1997, 78~79쪽.

112) 李賢惠, 『三韓社會의 形成過程研究』, 1984, 20쪽.

족장들이 있어, 이들은 한군현으로부터 魏率善·邑君·踏義侯·都尉·倍長이라는 관직을 받았다. 국읍에는 主帥가 있었으나 읍락이 뒤섞여 살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相互不能制御)<sup>113)</sup> 사회구조였다. 이와 같은 마한 소국들을 백제가 정복함에 따라 在地首長들의 자치력을 해체하거나 약화시켜 새로운 지배체제와 지배방식이 펼쳐졌을 것이다.

남부지역은 온조왕 26년 마한을 병합할 때 합락시키지 못한 원산·금현 두 성을 동왕 27년에 항복시킨 뒤 民戶를 漢山 북쪽으로遷徒시켜 기존의 세력기반에서 민호들을 유리시켰다거나, 그 해 7월에는 대두산성을 축조하여<sup>114)</sup>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등이 그러한 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남부는 백제가 정복하여 병합한 정복지라는 점이 앞서 동·서·북부와는 달리 중앙의 통치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남부지역에 대한 중앙통치력의 행사는 A-⑦에서 마한의 舊將인 周勤이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진압한 예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소국세력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A-⑧·⑨에서 보듯이, 탐정성을 쌓고, 대두산성의 民家를 나누어 살게 하고, 원산성과 금현성을 수리하여 고사부리성을 쌓는 등 축성과 徒民政策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왕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던 아산에서 수령하였다는 것은 곧, 그곳에서 수령과 더불어 군사훈련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백제는 마한을 정복한 곳에서 중앙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정된 지역과 일시적인 현상이기보다는 군사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군사위주의 행정조직의 운영이었다고<sup>115)</sup> 할 수 있다. 이에 백제가 화산성(보

113) 『三國志』韓傳.

114) 『三國史記』百濟本紀, 온조왕 27년 4·5월.

115) 김기섭, 앞의 논문, 85쪽.

은)과 낭자곡성(청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신라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내용은 곧,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 지역은 서해안 지방과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수로와 남북의 육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기<sup>116)</sup> 때문에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참고하면, 남부의 통치형식은 축성과 徒民政策을 통해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행사되었고 그 운영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충지를 확보하여 주변지역을 아울러 지배하는 형식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읍에는 主帥가 있었으나 읍락이 뒤섞여 살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성향이 강한 在地勢力家들에게는 중국제 물품을 賜與하여 회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앙의 통치체제에 흡수하여 값을 것이다.<sup>117)</sup> 이는 곧, 중앙에서 남부 지역에 대한 축성과 徒民 그리고 군사력을 파시하여, 요충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방식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C-③에서 왕이 4部를 순행 위무하고 가난한 자에게 끼식을 나누어주었다는 내용은 4部의 民이 流民·私民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公民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왕의 지배기반을 확대하여 왕권강화의 바탕으로 삼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는 중앙과 동서남부의 4部를 통해 지방의 통치내용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고이왕 때 6佐平副와 16等官副를 시행하여 고대국가의 체제 정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16) 박현숙, 「백제초기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백제문화』 20, 1990, 32~34쪽.

117) 權五榮, 「4세기 百濟의 地方統治方式一例」, 『韓國史論』 18, 23~27쪽, 1988.

## IV. 맷음말

이상으로 백제 초기의 영역확대와 지방통치에 대한 내용을 고이 왕대까지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가 고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漢城을 중심으로 한산(남한산성)과 접하던 성남·하남·광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온조왕 13년에 북쪽으로는 潟河(예성강)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응천(안성의 안성천)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서해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走壤(춘천)에 이르렀다. 3세기 중엽의 백제 영토는 북쪽과 동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남쪽으로는 마한소국들을 병합해 가면서 금강을 경계로 확대되었다. 신라와는 조령을 경계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백제 초기의 남쪽과 남동쪽으로 영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역은 왕도인 한성에서 군사가 남하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하겠다.

둘째, 백제는 확대된 영역을 마한의 소국일 때의 伯濟國을 중부로 하고, 방위에 따라 동서남북의 4부로 나누어 중앙의 통치력을 지방에 침투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백제는 마한소국연맹체의 운영 원리를 존중하고 각 部가 갖는 지역적인 특성을 배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통치관계를 설정하여 갔다.

북부는 낙랑과 말갈의 침입에 대응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하였던 만큼,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연맹체적인 성격을 갖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예성강과 서울 북쪽 외곽지역 사이의 지역기반을 갖고 있던 혜씨와 진씨는 중앙의 정치무대에 참여함에 따라, 북부는 兩姓氏가 그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3세기 중반까지 행사하는 연맹체적인 성격으로 중앙의 통치체제에 흡수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서부는 국초부터 백제에 흡수된 비류계의 근거지인 미추홀(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이어서 강력한 도학세력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서부지역은 교통이 원활한 평야와 해안 지대며 아울러 고대의 중요한 교역품인 소금의 생산지여서 중앙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다.

동부는 춘천에서 여주로 이어지는 북한강과 남한강 근처를 그 지역범위로 삼았다. 이들 지역은 말갈의 공격로에 해당함으로 말갈 침입의 대응이 중앙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의 운영은 축성과 徒民政策을 통해 중앙의 통치력을 직접 행사하는 지역이었다.

남부는 금강과 조령 서쪽지역에 해당되며, 이들 지역은 마한소국 연맹체의 성격이 다른 部지역에 비해 강하게 남아 있던 곳이다. 백제로서는 마한의 잔여세력과 동쪽에서 성장 발전하는 신라와의 관계가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남부는 성곽을 설치하여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徒民政策을 통해 마한소국연맹체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면서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결국 백제는 확대된 영역을 4部로 나누고, 각 부의 지역여건에 따라 통치력을 차별적으로 운영하여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하여 갔다.

이와 같은 백제 초기의 영역확대와 지방통치의 배경에는 중부로 편제되었던 성남이 교통요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탄천 주변의 평야지대에서 산출되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빛받침되었을 것이다.

#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서승갑\*

## 〈목 차〉

1. 머리말
2.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의 기본 토대
3. 민족협동전선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
  - 1) 지회운동의 주도층 분석
  - 2) 지회의 활동
  - 3) 지회운동의 한계성
4. 맺음말

## I. 머리말

국내 독립양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즉각독립론 유보하고 실력양성운동이나 자치운동론으로 독립운동의 방략을 전환하였다.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와의 타협을 일체 거부하고 즉각적인 독립론을 주장하여 대립된 양상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는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민족운동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정우회 선언으로 인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강사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추세가 조직화된 것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 창립이라 할 수 있다.

신간회 운동은 반제 투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위적인 운동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3.1운동의 선형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 독립을 위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대중 투쟁의 기반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려는 결과물이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이다. 신간회 운동은 중앙 본위의 활동이 표면적인 성과에서 약화된 경향을 보인 반면 지방 저희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방에서 야기된 분열 양상이 통합되는 성과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격렬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운동이 각 지역에서 전개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점차 확산되어갔다. 그 결과 1930년 12월 6일 부산지회 정기대회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정치조직을 결성한다는 명분 아래 신간회 해소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간회 해소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망한 결과 대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 운동의 본질은 소홀하게 인식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해소 과정에서 외적인 변화 요인이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에 주목하여 신간회 운동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 이유라 할 수 있다. 일제하 1930년대 농업공황의 상황과 생존권에 대한 위험적인 사회 여건을 고려하면 신간회 운동의 지향점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신간회 운동의 지향점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 문화 과정을 겪으면서 투쟁 방략이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운동은 농민층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를 수용하면서 자체 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 방향을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간회 운동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결합을 통한 통일전

선의 구축이 전국적인 추이였다. 특히 신간회 광주지회의 조직과 활동상은 협동전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성남지역의 민족운동에 관한 일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간회 광주지회에 관한 연구는 민족주의 계열의 일면적 활동에 주목한 결과 사회주의 활동을 미흡하게 처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간회 광주지회도 조직의 결합이나 운동의 추진 세력이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일면적인 지역사 연구 경향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의 기본 토대

1920년대 전반기는 민족해방운동의 방략론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격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상 논쟁의 결과로 인해 민족주의 진영의 방략이나 사회주의의 방략은 일정 부분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 20년대 후반기에는 민족 독립을 위한 논쟁의 상호 보완과 통합이 모색되었고 가시화된 사건이 신간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민족유일당을 지향하고 좌우합작으로 이해되는 신간회 운동은 당면한 식민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투쟁의 일환이었다.

1920년대 민족운동가들은 반일 민족의식 고취, 실력양성론의 선전 등 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3·1운동 후 국체연맹 회의·태평양회의 등에 기대하는 즉각 독립론, 외교 독립론이 우세한 분위기에서 배태되었다. 일제에 대한 정치투쟁을 유보하고 신교 유포급, 민족자본육성, 민족성 개조 등을 제창하는 문화운동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운동은 식민지 현 상황에서 절대독립은 불가능 하므로 식민지 자치를 도모해야만 한다는 자치론의 태두이다.<sup>1)</sup>

자치론자들이 추진하려는 운동은 첨진적 개량주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식민지 자치론이나 실력양성운동 등은 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설립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의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제원인데 이것이 식민지 지주제에 기초한 고율 소작료에 기반한 것이었다. 자치론은 방법론상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자는 대한협회의 정당론이나 일진회의 합방론과 맥락을 같이 것이어서 한계성을 노청하였다. 정치적으로 식민지 자치론은 절대 독립론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동향에 대응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 아기되었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의 운동은 가혹한 일제 탄압으로 기반이 해약해진 상태였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상황이었다. 대중운동 단체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도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 조선공산당의 결성 사건이다. 1926년 3월 조선공산당의 강달영은 권동진, 안재홍과 회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합의했지만 6.10만세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이 일부 와해되면서 좌절되었다. 1926년 11월 정우희 선언으로 인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추세가 조직화된 것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써 신간회 창립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사상단체를 통합하여 전위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치투쟁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시적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곧 민족협동전선의 전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반자치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진영과 합작하여 제도 정치에 참여한 후 합법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sup>3)</sup> 민족주의 진영은 일정 부분 자치론을 경

1) 차기백, 「민족협동전선의 시작에서 본 신간회운동」『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1985, 353-355쪽.

2) 이반승·김정명편,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1986, 23쪽.

3)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1986, 155쪽.

계하려는 의도를 달성하였고 반대 급부로 사회주의 진영은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이해가 일치한 것이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해 관계가 합치되어 통일전선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 광주지역의 신간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방략이 정치적인 흐름으로 경사되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작한 형태가 지회운동이다. 문제는 식민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는 정상적인 형태를 취한 것 이지만 민중의 공감대를 확산하여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은 미흡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통일전선의 기본 토대는 일제하 성남지역의 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민층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야만 하는 당면 목표의 달성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신간회 운동은 좌우합작을 요하는 요구조건이 배양될 소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합치점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운동 양상을 가능하는 중요 척도라 할 수 있겠다.

신간회 운동은 대략적으로 중앙 본부에 초점을 둔 결과 정치적인 결사체나 전반적인 독립운동의 흐름에 바탕을 두어왔다. 신간회 결성은 결과적으로 통일전선의 전초적인 형태를 시도하는 모색 과정의 결합체라 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단체들의 후원으로 인한 성과물이다.<sup>4)</sup> 지금까지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신간회에 대한 연구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운동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의 근본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결합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신간회 광주지회에 대한 연구는 협동전선의 측면에 대한 해명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정 부분 평면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민족협동전선의 시작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족협동전선의 시작에서 광주

4) 이근영, 「신간회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0, 69쪽.

지회가 결성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만 신간회 운동의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신간회는 본부보다는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신간회는 전국 각처에 약 140개소의 지회를 두고 39,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신간회는 주로 농민과 노동자, 학생운동을 지원하였다. 1927년 8월 24일에 광주지회가 설립되었다.<sup>5)</sup> 경성지회가 6월 10일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에 설치된 것이어서 신간회에 대한 지지의 일기가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광주지회가 신간회 운동의 활동 공간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마련한 것은 광주지역의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신간회 지회 설립의 일단을 짚작해 볼 수 있다. 특히 3.1운동에서 보여준 저력이 사회운동의 단체로 이어져 참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27년 8월 광주지역에서는 8개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지역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광주중앙청년회, 송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중외일보·조선농민사 지국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sup>6)</sup>

신간회 광주지회의 조직에서 주목되는 사회단체는 조선농민사 지국이라 할 수 있다. 신간회 광주지회를 주도한 한순회의 경우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측이 농민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구축한 산하 단체에서 등장한 것이다. 조선농민사가 광주신간회 지회의 창립에 관여한 계기는 한순회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농민사의 본부는 서울에 있었으며 지방에 각 지부와 사우회(社友會)가 조직되었다. 1925년 12월에는 월간 조선농민을 창간하

4) 동아일보, 1927년 8월 27일

6) 조선일보, 1927년 7월 10일

고 농촌계몽에 힘을 쏟아 1928년 2월에는 158개 지부에 1만 6,570명의 사우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사원의 범위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농업노동자, 농촌 수공업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지방의 사업부서는 중앙 체제를 담습했는데 서무부·정리부·교양부·일선부·선전조직부로 조직하였다. 소작쟁의보다는 민족독립과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계몽운동과 실력양성운동에 주력하여 전국의 이농민사마다 야학을 설립, 농민야학운동을 정열적으로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sup>7)</sup>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신간회 지회에 판여한 조선농민사 광주지국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회의 창립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다른 단체는 청년회이다. 청년회는 대부분 1920년대 초창기에는 금주·금연 등 계몽운동에 치중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사실이다. 종교에 관련된 청년회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지만 조선청년연합회를 구성하면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세력이 대두하였다. 사회주의 단체가 대두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가속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광주지회에서 나타난 청년회 역할은 주목되어진다. 조선청년연합회는 내부의 좌우의 갈등으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1924년에는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광주지회 설립과정에 참여한 청년단체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주지회의 설립에서 송파광주청년회와 광주중앙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지회 조직에서 청년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려는 요구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국적 운동 방향의 추이에 민감한 청년단체가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고 운동의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려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sup>8)</sup> 광주지역

7) 조동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1979, 272쪽.

8) 역사문제연구소, 「신간회 운동」, 『민족해방운동사』, 1990, 222쪽.

에서 활동한 청년회는 일차적으로 지향점이 민족 독립으로 나타나지만 방법론상에서 사회주의와 갈등을 초래하였고 통합 과정이 신간회 지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회에 참여한 사회주의 진영의 단체는 노동공제회가 아닌가 한다. 노동공제회는 1930년에 조직한 남한산노동공조회의 토대 이거나 전신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노동공제회는 신문배달부·인력거부·지게꾼·물자계꾼 등 자유노동자와 정미공·인쇄공·연초 공장 직공 등 공장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와 소작농민들 까지 망라하였다. 1922년 10월 15일 조선노동공제회의 윤덕명 계열이 각 지방노동단체를 독립시킨 후 재조직하여 좀더 계급적인 성격을 띤 조선노동연맹회를 결성했고, 장덕수 계열도 떨어져나감에 따라 조선노동공제회가 분리되었다.<sup>9)</sup> 국내에서 사회주의운동이 고조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사회개량주의 등으로 사상적 대립을 겪게 되었지만 사회주의 계열이 일정 부분 실세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제회는 광주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노선을 대변하는 사회 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광주지회의 결성 과정에서 사회주의 단체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제회는 사회주의자 석혜환의 활동에서도 증명된다. 석혜환, 정영신 등이 주도하여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서 조직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단체이다. 표면적으로 남한산 노동공조회는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노동자·농민·상인 등을 망라하여 조직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한노동공조회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약학을 설립하는 한편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노동계급의 의식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신간회 광주지회에서 후반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석혜환의 활동을 감안하면 이미 성남지역에서는 잠복된 사회주의 단체가 활동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는 이미

9) 강동진, 「일제하의 한국 사회운동사 연구」『한국근대민족운동사』, 1980, 398쪽.

설립 단계에서 민족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일정 부분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민족협동전선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

#### 1) 지회운동의 주도층 분석

민족협동전선의 흐름에 따라 둘마면의 독립지사 한순회 등이 조선농민사 지국, 청년단체, 노동공제회 등의 단체를 도대로 하여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민족주의 진영의 사회 단체와 사회주의 진영의 조직체가 일정 부분 결합되어 신간회 지회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은 좌우합작을 도모한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7년 8월 신간회 광주지회는 광주지회장에 한순회가 선임되었고 간사로 한백봉(韓百鳳), 한백호(韓百鎬), 이대현(李大憲), 유인목(兪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희(韓龍會) 등이 피임되었다.<sup>10)</sup> 광주지회의 구성원은 한순회 등 둘마지역 인사들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간회 지회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회장 한순회에 관한 사항이다.

신간회 광주지회장 한순회는 3.1운동 당시 경기도 광주군 둘마면 율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순회 조서에 따르면 신분은 양반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35세의 나이에 3.1운동을 주도하였다.<sup>11)</sup> 한순회는 천도교에 귀의한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까지 역임하였다. 천도교에 관여하면서 한

10) 김재순, 「신간회 및 근우회의 지회 활동」,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591쪽.

11) 국사편찬위원회, 증인 한순회 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9, 78-80쪽.

순회는 포교를 위한 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교구장으로서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다. 전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여 독립정신을 양양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살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조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은 당시 신간회가 추진하려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간회 지회의 초창기 활동에 간여한 간사진은 일정 부분 민족 주의 진영이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백봉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민지 모순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3.1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sup>12)</sup> 이대현은 30여 명의 동리사람을 인솔하여 교산면사무소로 가서 독립 만세를 절규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던 인사이다.<sup>13)</sup>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 지회 초창기 주도 인물은 주로 3.1운동기부터 호흡을 함께한 인사들이다. 따라서 철대독립을 부정한 자치론에 반대하여 민족주의의 독립운동 방략에 공감한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간회 지회 활동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1929년 광주지 회장을 역임한 석혜환이라 할 수 있다. 석혜환은 1890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지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석혜환이 광주지회에 참여한 시기나 계기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논증 자료로 나타나는 것은 1929년 3월의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신간회 광주 지회장 석혜환이 원산파업단에 격문을 발송한 혐의로 10일간 구류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재판기록」,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291~292쪽.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8~289쪽.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1930년대 남한노동공조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신간회 광주지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35년 1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결성하고 비서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6년 4월 경성지법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sup>14)</sup> 해방 후에는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 운동 노선을 전지하기도 하였다.

신간회 지회 활동의 주도층이 민족주의 진영의 한순회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석혜환으로 전환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간회 광주지회의 성립과 조직망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점은 일정 부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일전선의 형태로 결합된 측면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광주지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적으로 활약하다가 운동의 후반기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급부상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이다.

## 2) 지회의 활동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신간회 중앙본부와 지방지회의 지향점이 살이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검토하려는 것은 먼저 중앙지회의 활동상을 분석한 후 광주지회의 활동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반제국주의의 본격적인 투쟁으로 전화되기 이전 단계의 운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이 내재한 것이지만 신간회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애속의 탈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의 쟁취, 청소년·여성의 평형운동 지원, 파벌주의·족보주의의 배

14) 이기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국토통일원, 1976, 1176쪽.

격,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회와 분회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결과로 인해 1929년 무렵에 신간회는 130여 지회와 3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는 대중단체로 급성장하였다.<sup>15)</sup> 그러나 신간회의 제1 회 정기대회는 조직화대를 두려워 한 일제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러한 금지조치에 대해 본부는 온건노선을 주장하고 지회는 비타협적 노선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간회 운동은 상대적으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된 반면 지방지회에 사회주의 진영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지회 활동이 강화될 수 있었다.

신간회 지방지회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들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타협적 정치운동에 대한 반대, 조선인에 대한 특수단속법규 철폐, 조선인 학취기관의 철폐, 이민 강행 반대, 무산아동 수업료 면제, 과학 사상 연구의 자유, 조선어 교수의 요구, 조선인 본위 교육 실시, 향교 철폐와 재산 처리권 획득, 경작권 확립, 최고소작료의 공정, 노동 3권의 보장, 최저임금·최저봉급제·시간노동제 실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 반대 등으로 모아졌다.<sup>16)</sup> 신간회 지회 활동은 자체적으로 계몽운동과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 즉 지방지회에서는 응변대회와 연설회 개최, 애학 개설, 강좌 개설 등의 계몽 수단을 통해 대중의 의식 개발에 노력했다. 한편으로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노동·농민단체와 함께 소작료와 소작권 보호운동, 일본인 이민 반대, 수리조합설치 반대운동, 농회 반대, 최저임금제의 확립, 노동조건과 임금에서의 민족적 차별 철폐 등을 제기하여 일제의 식민지정책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광주지회의 활동은 전국적인 신간회 지회운동의 방향에 동조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응하기 위한 독자적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1927년 12월 광주지회에서는 식민지 관리의 부정과 폭행

15) 역사문제연구소, 「신간회운동」, 『민족해방운동사』, 1990, 221쪽.

16) 趙芝薰, 「한국독립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781쪽.

행위를 비난하여 군당국에 항의하면서 관심 집중을 시도했다.<sup>17)</sup> 이어 1927년 12월 15일 신간회 광주지회는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연회 주제가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려는 것으로 일관하였다.<sup>18)</sup> 특히 정현대의 '조선경제와 조선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는 식민지 모순의 현황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반제국주의 소양을 조성하려는 의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식민지 한민족이 공감한 재민동포 응호 문제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한 것은 광주지회가 고통된 여론을 조성하여 일제의 탄압책에 대응하려는 음모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계속되어 1928년 12월 신간회 광주지회에서는 정기대회를 개최한 후 문맹퇴치, 미신타파, 소비조합 운동 등을 결의하였다.<sup>19)</sup> 광주지회의 활동은 중앙에서 진행된 운전 투쟁에 도대한 것이지만 내재적으로 요구되는 비타협적 투쟁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광주지회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광주공산당협의회 사건을 주도한 석혜환(石惠煥)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석혜환이 광주지회에 참여한 시기나 계기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논증 자료로 나타나는 것은 1929년 3월의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신간회 광주지회장 석혜환이 원산파업단에 격문을 발송한 혐의로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sup>20)</sup> 노동운동의 본격화 단계에서 발생한 원산 총파업은 노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건으로 노동차층들이 스스로 정치적 투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산 총파업에 대해 연대 투쟁을 도모한 것은 성남지역 신간회 운동이 갖고 있는 노동운동의 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광주지회의 주도층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17) 중화일보, 1927년 12월 11일.

18) 중화일보, 1927년 12월 21일.

19) 동아일보, 1928년 12월 26일.

20) 동아일보, 1929년 3월 5일.

광주지회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인물들이 참여하면서 변화된 양상은 일단의 전취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1927년 조선공산당이 신간회의 폐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취정책(戰取政策)을 도모하여 실행에 옮긴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간회를 기계적으로 펌령하지 말고 각 지방의 공산주의자를 동원하여 신간회원인 노동자·농민을 따로 경제적으로 조직하여 무산계급적 교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무산계급부대로 하여금 同會 내에서 무산계급적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비서로 그 폐권을 행취할 수 있다.<sup>21)</sup>

전취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산계급에게 교양 훈련을 실시하여 계급모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신간회 지회 활동의 방향은 상당 부분 식민지 농촌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순에 대해 대응하려는 쪽으로 경사될 수밖에 없었다.<sup>22)</sup> 사회주의 진영의 전략적 대응으로 인해 지방지회의 활동은 목표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전제적인 영향은 광주지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간회는 일종의 민족단일당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민족주의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 투쟁을 모색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토대에서 전개된 신간회 운동은 해방투쟁의 방법론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sup>23)</sup> 따라서 노동자·농민운동으로 대중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방법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광주지회 활동은 계몽

21) 京畿道警察部, 『治安狀況』, 1929년 5월, 103~9쪽.

22) 스칼피노·이정식, 앞의 책, 153쪽.

23)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연구반, 「신간회운동」 『민족해방운동사』, 1993, 223쪽.

적 차원의 강연회 수준에서 생존투쟁이나 노동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 3) 지회운동의 한계성

신간회 운동은 전반적으로 노동자·농민의 참여를 위해 조직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운영은 지식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식인 중심의 민중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조직형태가 중앙집권적이었으며 노동자·농민이 조직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온건한 노선을 취할 때 지회나 민중의 전투적 의지를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sup>24)</sup> 지회 활동에서 요구되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농민들의 요구에 합당하고 현실성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지회운동의 한계성은 식민지 농촌의 현실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계성이 노정되었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회운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식민지 사회 구성원인 농민층들의 등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신간회 지회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해소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간회 광주지회 운동이 약화된 요인은 1929년 쌀값의 폭락으로 인해 야기된 살인적인 생계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부터 대공황의 위력이 물아치고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격화되는 속에서 김병로의 신간회는 노동자·농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민족부르조아와 중소지주와의 연합전선인 신간회는 김병로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한계성을 드러냈다.

24) 이균영, 「新幹會의 復代表大會와 民衆大會事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256쪽.

민족주의 좌파는 현재 모든 운동이 진식한 상황에서 신간회 해산은 계급투쟁의 논리에 편중하여 집중된 역량을 폐멸시키는 결과일 뿐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이 신간회 운동에서 파생한 온건적 노선에 반대하고 계급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 구조가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식민지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적시하고 농민층들이 요구하는 선상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30년대 성남지역의 농촌 사회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독부가 조사한 농가경제개황조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총독부가 조사한 농가 경제의 조사는 자작겸 소작농가와 순소작농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광주지역 16개의 농가를 표본 조사한 내용인데 성남지역의 자작겸 소작농가와 소작농가의 조사 대상 농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성남지역 자작겸 소작농과 소작농가의 개황

| 자작겸 소작농가 |             | 소작농가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姜銀錫      | 中部面 光池院里    | 姜信格  | 中部面 光池院里    |
| 羅永兆      | 大旺面 金土里 外洞  | 姜卜洞  | 大旺面 細谷里 細川洞 |
| 崔卯成      | 樂生面 九美里 麟陰洞 | 尹重玉  | 樂生面 板橋里 廣岩洞 |
| 崔正順      | 突馬面 野塔里 下塔洞 | 李範民  | 突馬面 二梅里 二梅洞 |

출처 : 조선총독부 농림국농촌진흥과, 농가경제개황조사, 1940.

소작농가의 경우 소작료는 반당(反當) 1石 1斗 4升으로 약 5할에 해당하는 고율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중부지역이 평균 1석 4斗 8승임을 감안하면 광주지역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평균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소작 농가의 상황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부채에 관한 것이다. 조사 농가 16호 중 12개 농가가 부채

를 안고 있고 총액이 561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부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산적 부채가 208원인 반면에 비생산적 부채는 353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특히 3부 내지 4부 이상의 고리채에 의존한 것이어서 생활난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5)</sup>

식민지 폭정의 생활난에 경기도 광주지역의 경우 교육도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빨값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광주지역 농민들은 생활난이 가중되어 수업료를 미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30년 11월 광주군의 경우 수업료 미납으로 퇴학 학생이 120명에 달해 퇴학 소동이 일어났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층들의 생활난에 대한 일단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화 수준의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작농가의 경우 조사농가 16호의 인구는 79명인데 이 중 언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난다.

신간회의 운동 방향이 점진적 개량주의로 추진된 성향을 고려하면 성남지역의 농민층들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인 생존권 보장인 계급모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신간회가 추진하려는 운동 방향이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간극을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신간회의 운동 방향이 점진적 개량주의로 추진된 결과 농민층들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인 생존권 보장인 계급모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신간회 지회 활동은 농민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려는 추세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로 인해 한계성을 노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5) 朝鮮總督府 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查」, 1940, 144-157쪽.

#### 4. 맷음말

1920년대 펼쳐진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 신간회 운동은 3.1운동의 정신이 반영된 민족 통합운동이었다. 식민지 모순에서 표출된 민족 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통일전선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신간회 운동은 민족협동전선의 차원에서 강행된 것이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절대독립론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과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과 합작하여 제도 정치에 참여한 후 합법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고 민족주의 진영은 일정 부분 자치론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달성하였다.

성남지역은 독립운동의 중심부인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부이남 지역에 독립투쟁의 양상을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신간회 운동의 주요 양상이 유사하게 펼쳐지는 일면을 지닌 것이지만 상대적인 독자성을 전지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종체적으로 언급하여 지역적 특성이 사장된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에 참여한 사회 단체나 주도계층을 분석해 보면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진영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진영이 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전선 형태로 결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신간회 창립의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주의 전위운동의 전략으로 광주지회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신간회 광주지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적으로 활약하다가 운동의 후반 기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급부상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석혜환이 광주지회장으로 등장하면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점은 성남지역의 운동이 계급모순

을 해결하려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경사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 전환과 인식 전환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1930·40년대 운동이 강경 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었다.

성남지역의 식민지 농촌 사회가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지식인 중심의 신간회 운동은 한계성을 노출시켰다. 광주지회가 추진한 운동이 계몽적 차원에서 현실 참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해소된 요인은 식민지 당면 모순과의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간회가 추진하려는 운동 방향이 식민지 사회의 모순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간극을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신간회의 운동 방향이 점진적 개량주의로 추진된 결과 농민층들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인 생존권 보장인 계급모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신간회 지방지회의 운동은 통일전선의 토대를 마련한 한편 농민들의 요구 조건인 생존 보장에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 고찰

전 보 삼\*

## 〈목 차〉

1. 머리말
2. 광주 시대의 성남
3. 성남시체 후의 성남
4. 성남 정체성의 특성
4. 맷는말

## 1. 머리말

성남시의 역사가 금년으로 시제 30년을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저기서 30년을 경축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들이다. 지역을 활성화 해내고 주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는 시 당국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기대를 걸어야 본다면 이제는 성남시도 시의 정체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성남의 정체성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남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으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간단히 담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덮어놓고 있기만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성남시는 인구10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여 그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문제로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

\*신구대학 교수

성남의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다. 그것은 성남시의 도시 발달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너무 급격하고 빠르게 발전되어 미처 사료적 가치를 정리하고 평가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정체성 문제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성남도 100만의 인구를 포함한 거대 도시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대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자신감에서 주체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자신감일 것이다. 이 자신감이 자칫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두려운 생각도 한편 갖으면서 성남시의 정체성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을 얻는다면 성남의 정체성 찾기라는 가장 난해한 문제를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보고자 한다.

성남의 정체성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야 되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성남의 역사적인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성남의 역사는 30년 전의 성남시 태동으로부터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전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 보면 그렇게 간단히 답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물론 도시화가 이루어 진 이후 성남시민의 치열했던 삶의 문제를 간과하고 자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70년대 이후 경제의 성장에 따른 그늘로서의 성남의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도 전국에서 성남만 한 곳도 없을 것이다. 그리므로 80년대 이후 성남만큼 민주화 투쟁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제반 논의를 바탕으로 성남의 정체성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를 고뇌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보자.

## 2. 광주 시대의 성남

한강 남쪽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발전되어온 광주(廣州)라는 도시는 문자에서 시사 받는 말 그대로 넓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이 넓은 고을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동광주와 서광주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남시는 서광주 지역에 속하는 땅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광주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미래의 역할이 주어진 역사의 고향이다. 이 땅에는 일찍이 한성 백제의 시조 임금인 온조대왕께서 백제의 10제 공신들과 한성 백제의 도읍지로 하남 위례성을 건설하여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성 백제 시대 약 470년간 문화의 중심을 이루면서 한강과 그 남쪽의 넓디넓은 땅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꽂피었던 도시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2000년의 민족정서가 서린 민족의 성스러운 땅이요, 민족의 자존이 숨쉬는 땅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2호)이 있어 백제 개국의 정신이 흐르는 민족의 정신적 도량이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한산주로서 9주 중 가장 중요시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전국을 5도로 구분하여 중부 지방을 양광도라고 하여 한강 북쪽의 양주와 한강 남쪽의 광주를 그 중심축으로 삼아 발전한 중요 지역이었다.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유수부를 두어 정치적으로 중요시했을 뿐 아니라, 남한산성의 수축 시에는 조선 팔도의 전 역량을 모았다. 성곽 주변의 장대지 좌우에는 조선팔도를 상징하는 여덟 개의 사찰을 창건하여 진충보국하는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정신적 고향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광주부는 경도보장지로서의 역할과 남한산성의 행궁이 완성되면서 임시 수도의 기능까지 함께 갖춘 한강 이남의 최대 도시 이었다 그 규모가 이미 속종실록 17년에는 1000호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남한산성에는 조선 선비정신의 표상이요, 충절의 선비인 삼학사

(홍익한, 윤집, 오달재)의 영혼을 모신 현절사(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3호)가 있어 조선의 선비정신을 떠올리게 된다. 남한산성의 현절사가 그 땅에 그 역사를 간직하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있어서 큰 나라라고 모시는 중국의 대청과의 관계를 살피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청나라라는 대국의 외지에 반하는 삼학사의 사당을 만든다는 일이 조선으로서는 어제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제8대 숙종임금은 만년을 무릅쓰고 남한산성 양지마른 언덕에 삼학사의 영혼을 모신 사당을 만들었고 무암 송시열선생에게 명하여 삼학사전을 쓰게 하였다. 조선의 선비된 사람들은 모름지기 남한산성의 현절사에서 삼학사에 대하여 배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선비라고 말 할 수 있는 가고 반문하면서 조선의 선비들로 하여금 남한산성의 삼학사가 계신 현절사를 찾게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시대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들이 줄을 이어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므로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민족 주체의식을 심화시키는 장소로, 그리하여 패배의 절망을 던고 더욱 빛나는 문화전통을 일으켜 세우는 저력을 보인 땅이 남한산성이었다. 우리 민족은 남한산성에서 그 역사를 배우며 그때 그 일을 잊지 말자며 수어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無望樓)”라고 까지 하였다.

숙종 대왕 17년 7월 13일에는 산성 내에 1000호의 가옥이 만들어져 한강 남쪽의 제일 규모가 큰 도시로 발전케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성 취락 도시로도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산성리 마을이기도 하였다. 17세기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는 조선의 개국 정신이었던 존주 친명 정책이 무너지면서 민족의 자주 의식이 짹트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 주자학의 이론 존중과 실제 경시의 특징은 새로운 도전에 적면하게 된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 학풍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한강 이남의 옛 광주 땅을 중심으로 근기학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광주를 중심으로 근기학파

는 이러한 기존의 경향을 반대하는 신학문 활동을 전개한 실학의 태생지로서의 자리를 잡아갔다. 실학의 정신은 '자아' 즉 사상적, 민족적 주체성의 재검토, 재확립에 있다고 하였다. 훗날 근대 지향성과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하여 갔다. 그러므로 보편적 요소를 갖춘 과학성과 민족의 자주의식 즉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학풍이 한강 남쪽 광주 땅을 친원지로 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득특한 풍토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실일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우리는 광주의 위상을 생각할 때이다. 근대화의 여명을 열었고 민족의 자주의식에 불을 지폈던 옛광주 지역의 전통을 계승한 성남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학의 비조 유형원을 비롯하여 실학을 하나의 학파로 이룩한 성호 이익과 유희, 순암 안정복, 박제가, 그리고 실학을 집대성 시킨 다산 정약용 등이 모두 광주 출신의 실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한말 의병 활동의 중심 무대요, 일제 시대는 3·1독립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민족자존의 역사를 간직한 땅이다. 그러나 광주군은 서울에서 가까운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이래로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 지역으로 남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광주는 민족자존의 역사가 숨쉬는 곳으로 민족정신의 산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일제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았고 철저한 파괴와 민족말살 정책의 최생양으로서 광주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식민지 책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장이기도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군권을 장악한 이후 민족자존의 땅 남한산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병권을 쥐고 조선 군대를 해산하더니 그 후 1907년 8월 1일 산성내의 200여 곳의 무기고와 화약고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하여 산성내 현지에서 무참히 폭파되었다. 조선인은 무기와

화약을 자주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민족으로 우리를 격하시키나 갔다. 그리고 산성내의 많은 문화재 또한 일제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갔다. 특히 남한산성 내의 275여 칸의 행궁마저 파괴되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 되었다. 그 이후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왜곡되면서 일제에 의하여 치욕적인 땅, 폐전의 땅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이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탐령의 죄악을 끓어 내지 못하고 남한산성을 “치욕적인 땅”이니 “폐전의 땅”이니 하는 일제의 식민지 사관에 의하여 비하 당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렇게 불려 왔던 세월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식의 태도였으며 우리들의 한계요 무지 이었다. 성남의 역사에서는 이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 비전을 제시하는 성남의 뿌리를 확인하여 빛나는 새역사의 정신을 찾아내야 한다.

### 3. 성남시제 후의 성남

오늘의 성남은 광주의 일부분이었다. 광주는 남한산을 중심으로 동광주와 서광주로 나눈다. 그 서광주의 일부 4개면이 오늘의 성남시를 이루고 있다.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설치된 중부면은 면 중앙에 남한산성의 고원 분지가 있다. 그 서남 기슭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적 여진으로 1946년 3월 3일 종천의 세촌면 관할구역 6개리(단대, 탄, 수진, 상대원, 복정, 창곡지역)를 관할하는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여 탄리 275번지에 개소하였다가 1948년 수진리로 옮겨 사무를 보게 되었다. 1964년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가 개설되고 광주군 중부면 지구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이 1968년에 인가되었다 이때의 인구를 보면 당시 성남출장소(중부면 6개리 지역)에 6008명, 대왕면 6382명, 낙생면 7295명, 둘마면 6124명의 인구가 있었다. 대략적으로 2만 5천 명 정도의 기존의 광주군민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 서울시 무허가 철거민 48세대 154명이 광주군 중부면 개발단지에 첫 입주를 시작함으로 상전벽해와 같은 오늘의 100만 도시를 이루어 갔다. 불과 4반세기만에 100만을 넘보는 도시로 성장을 재촉하다 보니 문제점도 함께 있기 마련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소외되었고, 해방이 되어서도 그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소외 받고, 눈길조차 보내지 않던 이곳은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 출발로서 '광주대단지'가 이 곳에 조성되게 되었고 나아가 남단녹지로 묶여 있던 분당지역 또한 '분당신도시' 건설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성남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도시 발전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여 놓으므로서 성남의 정체성 파악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 문제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성남의 생성과 발전을 지켜본 시민으로서 성남의 정체성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살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성남의 정체성 문제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부터 찾아가야 할 것 같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성남시의 각종 자료와 안내 책자에 소개된 성남이야기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이 펴낸 "성남의 이모저모"라는 차료집을 보면 첫 페이지에 시민헌장이 나온다. 거기 첫 구절이 "우리 성남은 남한산성 아래 탄천벌에 자리한 호국정신의 역사적 고장이다" 여기에 남한산성과 호국정신이 나온다. 그리고 시장님 발간사를 보면 "남한산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우리시는"이라는 구절, 성남시의 상징인 시마크를 보면 다섯 개의 철쭉꽃잎 속에는 남한산성을 표현함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슬기롭게 계승하는 성남시의 숭고한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민의 노래 첫 구절도 "남한산의 푸른 정기 담쪽이 앙고"로 시작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고장의 얼에 효자정의 금잉어 이야기, 관광명소를 소

개하는 편에 보면 남한산성 이야기가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 문화재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성남의 알리는 자료를 보면 남한산성에 관한 자료가 빠지지 않는다. 성남에 있어서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인 신구대 출판과에서 꾀낸 까치마을 성남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성남시민의 생활 문화 전반에 걸친 의식구조를 1998년에 조사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는 성남시민이 느끼는 우리 고장의 자랑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부분 시민들은 성남을 대표하는 것으로 “남한산성”을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모란시장, 분당중앙공원을 꼽았다. 많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의 자랑으로 남한산성을 첫손에 꼽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민은 남한산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 확신과 소신이 있는가 하고 반문하면 좀 예매한 태도를 취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남한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치욕적인 곳, 패전의 장소라는 식민지 사관이 시민의 의식을 지배하는 부분이고, 군에 갔다 온 시민들은 육군 형무소의 두려운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엄밀히 따지면 남한산성은 성남시가 아니라 행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들의 기준 잣대는 행정이라는 절대자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여 왔다. 행정의 잣대가 아니라 주민의 행복한 삶이란 문제는 오히려 문화의 잣대가 더 적절한 가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은 훈련되지 못하였다. 성남시의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의 잣대로는 다 재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획일적이고 하나의 잣대로 모든 행정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판점만으로 성남시를 평가한다면 문제투성이의 성남을 말하게 된다. 이제 성남시는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의 정체성 문제는 이미 하나의 잣대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입장에 다다라 있다.

#### 4. 성남 정체성의 특성

성남의 정체성 문제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그 속에 깃든 정신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백제 개국정신의 원류로서 개최정신과 창조적 정신을 들수 있을 것 같다. 남한산성 내의 숭열전은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의 왕사다. 숭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숭열전은 남한산성 내 일장산 중턱에 건립되어 있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의 위폐를 모신 사당입니다. 남한산성 내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의 초혼각이 세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선조36년 (서기 1603년)에 온조대왕이 백제국을 세우고 첫 번 왕도였던 고장인 경기도 광주 땅의 도읍지인 남한산성에 온조대왕 초혼각을 세우게 하였다. 그 후 인조 16년 (서기 1638년)에 중수하여 내려오다가 정조 19년 을묘(서기 1795년)에 초혼각을 전(殿)으로 옮겨 숭렬전이라 하고 왕께서 사액(賜額)하였다. 그 후 관원으로 참봉을 임명하여 모든 의식을 책무케하였다. 조선왕조 때에는 매년 춘추절로 날을 가려서 열숙히 향사를 봉행하였고, 제향제시 범절 기타 비용을 왕명으로 예조(禮曹)에서 봉축(奉祝)하고 초현관(初獻官)은 관찰사가 현직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 이 후에 와서는 민족 정기의 말살과 기타 사정으로 매년 추향(秋享)만으로 음력 9월 초 5일 날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남한산성내의 숭열전(崇烈殿) 갖는 현대적 의미는 백제인들은 남한산성을 앞산의 개념인 남한산으로 불렀으며 나아가 주산, 성산, 진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에 천제를 울렸던 신성한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산이요, 주산인 남한산성의 양지바른 언덕에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은 하나의 역사요 전통이었다. 이러한 역사는 세종대왕때 부터 시작된 국가의 정체성 문제였다. 세종대왕께서는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에 의하여 조선왕조가 건국되었는데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한 기록에 관심을 두

게 되니 조선왕조 그 이전의 역사 고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 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열성조의 뜻을 이어 받은 국가 가 조선왕조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나라별 시조 임금에 대한 사당 전립을 치시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왕사(王祠)를 짓게 하였다. 崇義殿(고려 태조 왕전 사당 : 개성 소재) 崇德殿(신라 시조 박혁거세 사당 : 경주소재) 崇榮殿(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사당 : 평양 소재) 그리고 崇烈殿(백제 시조 온조대왕 사당 : 광주시 남한산성소재)을 전립하여 매년 춘?추로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 제향은 왕명에 의하여 예조에서 봉축하고 초헌관으로는 관찰사가 헌작하였다. 금년부터는 제향의 초헌관으로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리 라는 점이 이제 제향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금년 9월 30일 (음력 9월 5일)은 민족의 뿌리요 한성백제 시조인 온조대왕의 시제를 성대히 거행함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해가 되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승열전 내의 동쪽 행각인 동무(東?)에는 인조 2년(서기 1624년) 남한산성 수축시에 큰 공적을 세운 완풍부원군 이서 장군도 함께 배향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인조 임금께서 현봉하여 온조대왕이 이르기를 귀조에 충신과 친히 같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하여 이서 장군을 배향하였다고 한다. 임금의 사당에 신하를 함께 모신 사당으로서 역사성과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임금과 신하가 하나 된 영원의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성남의 뿌리로서 백제의 개국정신은 신 개척정신이요 창조적 정신으로서 우리들의 제일의 가치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신은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기운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나라사랑의 정신, 진충보국하는 호국정신을 지적하고자 한다. 남한산성에는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여 벽암 각성선사가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전국의 승려들을 관장하여 남한산성의 수축

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8도의 사찰이 전립되었고, 호국 의승군의 정신적 도량이 되었다. 산성이 완공된 후에도 승려 370여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산성의 수비를 책임졌으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물결에 남한산성의 승번제(僧番制)가 폐지될 때까지 270년간 남한산성 승번에서 산성을 관리해 함으로서 남한산성은 호국 승군들의 의지가 살아있는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호국의 사찰이 되어 나라사랑의 실천도량이 되었다. 사찰 이름도 호국과 관계가 있는 국청, 천주, 한홍, 남단사등 이었다. 이 모든 조선 땅을 부처님의 힘으로 하나로 모았고, 실천에 옮긴 곳이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전통이 떤면히 계승되어 발전되어진 호국정신의 기본바탕에는 불교와 민족은 둘일 수 없다는 한국불교의 특성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조선 8도의 역량이 총동원된 호국의 의지가 서린 역사의 땅이므로 모든 것을 포용한 또 하나의 한국정신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곳이다.

세 번째로 선비정신의 고향으로 성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남한산성의 현절사를 중심으로 한 삼학사의 정신은 조선의 충절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요람지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삼학사의 고귀한 애국심과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다. 선비정신과 삼학사의 높은 정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세를 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아야 한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고향땅이 남한산성의 현절사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이 땅이야말로 선비정신의 고향으로 삼학사의 승열이 들리는 선비의 고향, 충절의 땅 남한산성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흥익한, 윤집, 오달재였다. 충절의 높은 애국심으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기개를 굽히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막한 삼학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겨레의 귀감이다. 민족 앞에 충절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 삼학사의 높은 애국심은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영원한 지표다. 이들은 조국 앞에 책임을 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려 주고 있다. 말로만의 애국심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정신은 삼학사의 높은 정신이요, 우리 모두의 크나큰 교훈이다. “구차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어서 죽어서 내 피를 복에다 빌라서 등등 친다면 내 넋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하면서 이역만리 길에서 눈을 감았다. 고국산천을 꿈꾸며 죽어 영혼으로 남한산성의 언덕에 모셔진 세 분 삼학사의 충절은 우리 삶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이다. 삼학사의 영혼이 잠든 남한산성의 현절사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며 조선 선비정신의 뿌리를 살펴보았다. 흥익한, 윤집, 오달재 세 분의 영혼이 잠든 현절사는 오늘을 사는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역사에서 찾으며, 남한산성의 땅에서 찾아야 한다. 성남에서 삼학사의 민족정신이 꽂피는 날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네 번째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성남을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강 이남의 학문적 전통은 근기학파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정신이 실사구시의 실학의 정신으로 한말 의병정신으로 개화사상으로 3.1독립정신으로 이어진 민족의 승고한 정신적 가치를 확인할 때이다. 특히 성남의 정체성 문제의 강조점은 근기학파의 전통과 그 창조성의 정신을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성남학으로 발전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의 옛광주 땅에서 그 정신을 이어갈 곳은 성남 밖에 없다는 자긍심과 실천성이 강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말 개화사상과 의병정신, 그리고 3.1독립정신으로 이어지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담아내는 성남의 정신을 지적하면서 그곳을 뿌리로 하여 성남의 정체성의 맥을 짚어나가야 한다. 성남의 정체성 문제의 한 단서를 제공하여 보았다는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서uku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서 성남의 정체성 연구의 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5. 맷는말

성남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광주의 뿌리인 남한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성남의 정체성 문제도 남한산성의 지혜를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뿌리가 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성의 지혜를 통하여 성남의 정체성의 특성을 파악 할 수밖에 없다.

백제 은조대왕이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백제 개국의 정신이 흐르는 성남이어야 한다. 산성의 성돌들 처럼 팔도의 시민이 축성한 전충보국하는 호국정신의 산실로서의 성남의 정신을 생각하자. 옮고 그름을 먼저 분별하고 정의를 위하여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조선의 울곧은 선비정신의 도장 헌절사의 삼학사의 정신을 본 받는 성남시민이 되어야 한다. 조선의 민족적 자아를 확립한 근대화의 기수들을 배출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성남의 “철학”과 “성남학”을 새롭게 열어 가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 이곳에 내일의 성남 정신이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 실학의 정신을 꽂피운 그 정신이 있었기에 의병활동과 3·1독립정신의 면면히 흐르는 민족자존의 역사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의식에 심을 때다. 이러한 정신의 쇠퇴는 결국 일제의 식민지 책략 때문이었고 이 지역의 쇠퇴 또한 그러한 연유였다.

성남은 팔도의 주민이 모여 사는 도시다. 8도의 주민이 모였다는 사실은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이 다양성은 상대를 서로 서로 인정하며 인정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는 표현이다. 이 다양성을 활용하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유리한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성남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8도민이 지역적 연고주의를 버리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나와서 공동의 장에서 시민의 지혜를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남한산성을 쌓았던 선인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성남 시민의 정서를 아우르고 그것에 걸맞은 시민의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즈음에 성남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연유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드넓은 땅 광주에 뿌리를 둔 성남이야 말로 이제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선조들이 이 땅에서 펼쳤던 그 응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 중심에서 성남 중심의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팔도민이 모여 만든 성남의 든든한 뿌리를 위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역 연고주의를 극복한 성남 주민 화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반듯이 실현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이것이 성남의 전통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성남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廣州府 邑誌』 분석을 중심으로 -

정은경\*

## 〈목 차〉

1. 머리말
2. 근대화과정에서의 지방제도 개혁
  - 1) 甲午改革과 성남지역
  - 2) 建陽年間의 지방제도 개혁과 성남지역
3. 『廣州府 邑誌』 분석에 나타난 지역실태
  - 1)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의도
  - 2) 읍지분석을 통해 본 광주지역의 실태
  - 3) 광주부 지방관직의 운영 실태
5. 맷음말

## 1. 머리말

중세사회의 모순 심화와 더불어 바깥으로부터 밀어닥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말미암아 조선사회는 1894년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밀으로부터의 개혁의지를 담은 동학농민전쟁과 위로부터 중세적 모순을 제거하고자 하는 갑오개혁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일정한 간섭 아래 추진되었으나, 조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전)연구위원

선사회 근대화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사회의 체제 모순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제기되는 개혁의 요구는 농민전쟁이라는 큰 흐름으로 밀으로부터 강하게 분출되었고, 여기에 가세되는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 내부에서의 자주적 근대화가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갑오개혁은 자주성의 문제성을 안고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를 지향한 광범위한 개혁이었다. 1894년 6월에 설치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면에는 당시 집권층이 지향한 국가체제의 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한 국가체제의 구상이 과연 종래의 국가체제와 단절적인 것이었는가의 여부는 곧 갑오개혁 성격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또한 개혁의 성패 역시 여기에서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갑오개혁 추진세력인 개화파의 이념적 지향을 위주로 고찰해봄으로써 간단히 얻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얼마나큼 지방사회에 적용 실시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갑오개혁과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 통치체제의 각 분야별 개혁이 지방사회에서 어떻게 반영·수용되었는가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통치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재정적 기반의 담당층인 지방민에게 소극적으로나마 동의되지 않는다면 개혁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개혁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근대화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개혁의도가 협사리 지방사회에 이식될 수는 없었다. 지방 실태에 근거하지 않는 개혁이란 그 성공 가능성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실태를 조사하는 기초작업을 실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읍지편찬이었다. 이렇듯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혁은 수차례 개정되면서 반복되었고, 그 와중에 성남지역은 커다란 개혁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갑오개혁기 지방제도 개편에 대해선 여러 연구들이 선행

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혁, 지방재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혁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이서충의 동향, 조선조부터 실시되었던 향회를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로서 제도화시키는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sup>1)</sup> 이 글은 이러한 선형연구들을 기반으로 성남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당시 근대화과정에서 지방사회가 어떠한 변모를 겪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같은 점을 밝혀보기 위해 19세기 광주부의 실태를 여실히 전달해주는 세 종류의 『廣州府邑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전국적인 읍지편찬을 통해 지역사회 실태에 접목하여 지방제도를 개혁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성남지역에서는 어떻게 판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기획한 지방제도 개혁이 지방사회속에서 어떻게 진행, 변용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근대화과정에서의 지방제도 개혁

### 1) 갑오개혁과 성남지역

농민전쟁 진압을 명분으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이 6월 21일에 경복궁을 점령한 상황속에서 6월 25일에 개혁을 담당할 기관으로 軍國機務處가 설치되었다. 통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1888년 박영효에 의해 제기되었다. “일. 君權無限의 親裁를 불가하고 각官이 소관업무를 담당할 것,

1) 尹貞燮,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歷史學報』 15, 1985; 李相燦, 「1894-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鄉會의 범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震懶學報』 67, 1989; 鄭銀景, 「甲午改革의 朝鮮制度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유정현, 「1894-1904년 地方財政제도의 개혁과 衆胥層 동향」, 『진단학보』 73, 1992; 김태웅, 「甲午改革期 全國 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의 마련」, 『國史館論叢』 66,

일, 모든 職掌은 마땅히 그 관직에 있는 자가 그 政事を 다스릴 것, 일, 小課는 합하여 大課로 만들 것”<sup>2)</sup>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치기구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大島 日本公使가 1894년 6월 8일과 9일의 2차에 걸친 老人亭會談을 통해 조선정부에 제시한 內政改革方案綱目에도 지방제도 개혁이 제 1조로 들어가 있다. 즉 “현재의 府郡 縣治는 그 수가 과다하므로 마땅히 이를 酣量·폐합하여 민치에 무방하도록 少數로 할 것”<sup>3)</sup>이라 하여 지방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道로 나누는 대구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8도 아래에는 5府, 5大都護府, 20牧, 75都護府, 77郡, 148縣을 두었다.<sup>4)</sup> 군현의 경계를 산천지세 등 자연조건에 따라 구획하고, 군현 등급도 戶口, 田結 등 재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한 것은 고려 말엽부터이다. 그러나 지방유력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郡間의 경계가 정확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大牙相入地와 越境地가 많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몇 차례의 지방제도의 개혁을 통해 군현의 소재지 중심으로 통치구역을 일정하게 구획하고자 하였지만, 갑오개혁 당시까지에도 월경지와 견아상입지는 없어지지 않았다.

2) 정중菴, 「朴泳孝 上疏文(資料)」, 『亞細亞學報』1, 七曰 正政治 使民國有定, 아세아 연구소, 737-738等.

一, 不可親裁萬機 而各任之其官事  
一, 凡職掌 當其職 治其政事  
一, 合小課爲大課事

3) 『日本外交文書』 27권 1책 문서번호 381-382호.

4)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편제는 다음과 같았다.

〈표 1〉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표

|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 총계  |
|------|-----|-----|-----|-----|-----|-----|-----|------|-----|
| 府    |     |     | 1   | 1   | (1) | (1) | 2   | 1(2) | 5   |
| 大都護府 |     |     |     | 2   | 1   |     | 1   | 1    | 5   |
| 牧    | 3   | 4   | 4   | 3   | 1   | 2   | 2   | 1    | 20  |
| 都護府  | 8   | 1   | 7   | 14  | 7   | 6   | 14  | 18   | 75  |
| 郡    | 10  | 14  | 13  | 13  | 6   | 7   | 12  | 2    | 77  |
| 縣    | 12  | 35  | 31  | 38  | 11  | 8   | 11  | 2    | 148 |

出典 : 『大典會通』, 史典, 外官職

다. 이 때문에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백성의 조세 상납과 정의 고통이 수없이 수반되었다. 각 군현간의 戸口 및 田結의 多少 가 행정구역의 상하단위와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다. 도호부의 호구 와 전결이 현의 경우보다 훨씬 못미치는 경우도 존재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을 원활하게 통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부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일찍부터 지방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제도 개혁의 차수는 1895년 3월부터 실시되었다. 당시 성남지역의 구체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방제도 개혁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엽 종체적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방제도 개혁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방제도 개혁에는 곧 갑오개혁의 특성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 성남지역의 사례연구에 앞서 당시 지방제도 개혁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갑오개혁의 군국기무처 시기의 지방통제는 의정부내의 내무, 외무, 탕지, 군무 범무, 농상, 학무, 공무 등 諸衙門의 대신이 각기 그 職權에 한해서 지방장관을 감독, 지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sup>5)</sup> 만약 경무사와 지방장관이 행정상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정지시키거나 전폐시킬 수 있었을 정도로 지방관리를 지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었다.

지방행정에 관한 각부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무아문은 지방인민의 諸治事務를 總管하며,<sup>6)</sup> 탕지아문은 全國財政의 量計出納과 租稅 國債 및 화폐 등 一切事宜를 總轄하며 각 地方財務를 감독한다.<sup>7)</sup> 法務衙門의 民事局에선 인민의 詞訟·裁判을 관掌하

5) 『舊韓國官報』, 草記 개국 503년 7월 14일, 各府各衙門通行規則, 제9조·제10조, 327쪽.

6)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議案 各衙門官制, 1894년 6월 28일, 6-9쪽. 그 가운데 州縣局은 각 지방을 감독하는 一應事務를 관掌한다.

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議案 各衙門官制, 度支衙門, 6쪽.

며,<sup>8)</sup> 軍務衙門의 鐵防局에서는 京外鐵防과 諸營事務를 관掌하였다.<sup>9)</sup> 감사, 유수, 병사, 수사 등 지방관은 封奏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금지되고, 京司가 지방행정을 분할하여 통제하도록 하였다.<sup>10)</sup> 이 칙령은 9道5都에 關文으로 하달되었다.<sup>11)</sup>

이처럼 개혁 초기의 지방지배구조는 업무에 따라 의정부 각 기관이 지방을 통제하고, 각 기관은 다시 의정부에 귀속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면서 종전의 8衙門體制는 工務衙門을 農商衙門에 합쳐 農商工部로 함으로써 7부로 변경되었다.<sup>12)</sup> 지방통치 업무가 자기 다른 중앙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행정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자기 다른 중앙기관에서 통제력을 가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을 통괄적으로 담당할 중앙관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의 모든 행정업무는 중앙의 내부에서 담당하는 지방지배구조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내부는 각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파견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sup>13)</sup> 지방관의 규찰을 담당한 것은 내부의 고유직무였다. 군국기

8)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議案 各衙門官制, 法務衙門, 7쪽.

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議案 各衙門官制, 軍務衙門, 9쪽.

10) 監留樞帥以下 自今勿爲封奏 分別事務 報該衙門 酬核執奏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勅令 제18호, 監司·留守·兵使·水使의 封奏禁止에 관한 件, 1894년 12월 16일, 145쪽.

11) 『關草存案』, 칙령 제18호, 1894년 12월 16일, 270쪽.

12)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198-248쪽.

13) 갑오개혁기 정부조직인 8衙門體制는 조선시기 6曹의 조직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에 의하면 내무아문에는 기존의 內務部·吏曹·濟衆院이 소속되었다(『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1894년 7월 18일, 64-65쪽). 종래 지방관리의 임면을 맡았던 吏曹가 갑오개혁 때에 내부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관리 임면의 결정권 역시 일차적으로 내부에 속해 있었다. 내부에서 지방관 임명사례는 관보에 수없이 보인다(昨日 內務衙門 忠州牧使 閔泳綺 河東府使 李采潤 俱以身病改差: 內務衙門 臨旼縣令 宋淳鑾 身病改善, 『구한국관보』, 개국 503년 9월 22일, 530쪽 等等).

무처 시기부터 내무아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서총의 규찰과 民隱 포착 등의 규찰업무를 담당하였다.<sup>14)</sup> 1895년에 들어서도 내부에서는 계속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관을 규찰하였다. 각지에 시찰관을 파견하여 지방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장차 있을 지방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sup>15)</sup> 시찰관은 지방행정의 순시임무만 아니라 지방관을 규찰하는 등 지방관리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内部派員 金人顧에 의해 信川郡守 蔣鎮宇, 駿栗郡守 李鉉鶴, 康翎郡守 柳環秀의 비리가 적발되어 免官措置된 것이 시찰관에 의해 지방관의 비리가 적발된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내부관리의 지방파견은 곧 내부가 지방관리들의 기강화립을 책임지는 상위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방행정과 지방관 임면, 규찰 등 내부 고유한 직무 이외에도 내부에서는 各府廳經費를 배정하는 등 지방경비 및 경비운용을 감독 통제하도록 되었고<sup>17)</sup> 경찰업무도 관할하였다. 지방관의 경찰업무를 분리하여 따로 이 警務署를 설치하도록 한 조치도 변화되어, 내부에서는 府內에 警務局을 설치하여 지방의 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sup>18)</sup> 이 또한 지방경찰행정의 총체적인 지휘를 내부에게 맡기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를 중심으로 지방통치를 중앙집중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sup>19)</sup>

14) 『舊韓國官報』, 勅令, 개국 503년 12월 16일, 850-860쪽.

15)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勅令 제 53호, 内部官制, 제11조·제12조, 1895년 3월 26일, 239-241쪽.

16) 『internal請議書』 2책, 개국 504년 8월 20일, 37-38쪽.

17) 『internal請議書』 1책, 本年度地方行政廳經費配賦并辦理順序는 件, 개국 504년 6월 3일, 65-67쪽.

18) 『internal請議書』 2책, 内部官制中改正하는 請議書, 開國 504년 8월 6일, 21-22쪽. 내부에 새로 신설된 경무국은 警務와 監獄에 관한 사무를 맡도록 하였는데, 지방국장이 경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연유는 사무가 번잡하지 않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통치에 필 요한 제반경비를 축소하고자 한 중앙정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19) 내부의 조직에서 지방국, 경무국, 토목국, 판적국, 위생국, 회계국이 있

지방의 외교에 관련하여서도 역시 내부가 관할하였다. 원래 외교에 관한 사무는 외부의 소관사항이어서,<sup>20)</sup> 外部는 인천과 동래의 외교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外事課 主事を 特派하고자 내부에 조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内部는 해당 지방의 관찰사와 군수에게 외교사무를 관장케 하고 따로이 외교관을 두지 않도록 청하였다.<sup>21)</sup> 그 이유는 外事課 主사를 특파할 경우 지방사무와 서로 방해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되기 마련이어서, 지방제도를 통일시켜 직원상의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인천과 동래의 府廳主事 중에서 外事を 分謀케 하고, 郡廳에 주사를 2인 이하로 규정짓는 郡制度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德源과 慶興에 특별히 外事課 주사를 특파하는 것이 옳다고 조회에 회답하였다. 이처럼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면을 내부가 통괄하였던 것은, 지방통치를 확고하게 내부로 중앙집권화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 준다.<sup>22)</sup> 이에 지방행정구역의 개혁, 조세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개혁이 내부 중심의 중앙집권화 방침에 따라 실시되었다.

지방행정구역의 본격적인 개혁은 1895년 5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종래의 대구역제인 8도제를 폐지하고 소구역제인 23부제제로 개편하는 것이 행정구역 개혁의 주요 골자였다. 留守府·府·牧·大都護府·都護府·郡·縣 등으로 잡다하게 구분되었던 고을을 모두 府·郡으로 통합하고 府에는 관찰사를 두고, 郡에는 군수를 두어 행정을 일체 책임지도록 하였다.<sup>23)</sup>

는데, 이 중 지방국이 1등국으로 규정되어 내부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지방통치에 관련한 것임을 시사해준다(『內部請議書』2책, 22쪽).

2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議案 各衙門官制, 外務衙門, 6等. — 外務衙門 掌交涉通商事務 監督公使領事等官; — 交涉局 掌外交事務 兼審查萬國公私法 參議一員 主事四員

21) 『內部請議書』 2책, 照覆, 25쪽.

22) 내부에서는 각 지역에 파견한 내부관리를 통하여 지방관 규찰도 행하였다(『內部請議書』 2책, 개국 504년 8월 20일, 37-38쪽).

23) 『舊韓國官報』 504년 5월 28일·29일,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革에 관한件.

갑오개혁기에 단행된 지방행정구역 개편 또한 중앙집권화 방침에서 시행되었다. 종래 5府, 5大都護府, 20牧, 75都護府, 77郡, 148縣으로 나뉘어 있던 총 330여개의 구역이 337개의 군으로 통합·분리되면서<sup>24)</sup> 분리된 군현이 다수 나올 수 밖에 없었다.<sup>25)</sup> 이때 신설된 군은 忠州府의 清風과 開城府의 豊德, 江界府의 慈城의 3개군에 불과하였으나,<sup>26)</sup> 군현의 대소가 달라지고, 기존 군현의 상부기관이 새 행정구역상으로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의 관청에 소속된 이서충 수효의 감축과 각 고을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양반 유림층을 비롯한 지방지세력들의 세력권이 감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 세력의 반발은 갑오개혁이 실시된 후 1년 여의 시일이 걸린 후에야 비로소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중첩되어 있던 행정체계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아울러 지방관의 수효를 적정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7)</sup> 이를 위해 전국의 郡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吏胥數를 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 지급규정도 정하였다. 종래 과다 했던 지방이서충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조치였으며 보수지급의 규정 역시 이서충의 부정을 막으려는 시도이자, 지방재정의 합리적

24) 이때 새로이 개편된 23부와 소속 군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3府 地方行政區域 分類表

| 府名   | 高城 | 仁川 | 忠州 | 公州 | 洪州 | 專川 | 江陵 | 安東 | 大邱 | 晉州 | 東萊 | 霧州   |
|------|----|----|----|----|----|----|----|----|----|----|----|------|
| 所屬郡數 | 11 | 12 | 20 | 27 | 22 | 13 | 9  | 17 | 23 | 21 | 10 | 16   |
| 府名   | 全州 | 南原 | 濟州 | 海州 | 開城 | 平壤 | 咸興 | 麟城 | 慶州 | 甲山 | 江界 | 總    |
| 所屬郡數 | 20 | 15 | 3  | 16 | 13 | 27 | 11 | 10 | 13 | 2  | 6  | 337郡 |

25) 여기에는 그동안 읍지면찬 등을 통한 사전조사에 힘입어 戶口와 物產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개혁이 시도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이러한 개편은 그 동안 각 지방의 행정체계에 근거하고 있던 지방세력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26) 5府, 5大都護府, 20牧, 75都護府, 77郡, 148縣과 한성부·수원부·강화부·개성부의 留守府로 나누어져 있던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새로 제정된 23부 337군을 상호비교한 것이다.

27) 『舊韓國官報』號外, 개국 504년 5월 27일, 詔勅 3책, 792쪽.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여러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앙집권의 강화에 있었다. 지방에 관한 모든 사무를 내부로 집중시키고, 아울러 지방 행정체계에서 많은 자폐를 저질렀던 이서충의 대폭감소는 곧 중앙 정부의 통제력 강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서충을 감독하는 실질적 세력인 지방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아울러 취해짐으로써<sup>29)</sup> 지방행정은 더욱 강력한 중앙정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시도였다. 지방제도 역시 중앙집권이란 커다란 틀에 맞춰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지방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남지역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地方 各府所管 各郡分等表<sup>30)</sup>

| 府名  | 一等 | 二等 | 三等                     | 四等   | 五等                                 |
|-----|----|----|------------------------|--|------------------------------------|
| 漢城府 |    |    | 仁川、平川、水原               | 高陽、坡州                                      | 柏山、京畿、延壽                           |
| 仁川府 | 昌化 | 水原 | 龍津                     | 仁川、 부평, 남양                                 | 金浦、 阳川、 시흥, 과천, 안산                 |
| 忠州府 | 忠州 |    | 真川、 평주, 이천성, 흥평        | 果川、 제천, 칠안, 름안, 축산, 원주                     | 束容、 연릉, 청평, 면종, 단양, 영지, 충선, 풍천, 영월 |
| 洪州府 |    | 忠州 | 大田、 환산, 서천, 연천, 홍산, 서산 | 結城, 남포, 보령, 해미, 대흥, 청양, 예산, 온양, 아진         | 비인, 담진, 태안, 신령, 청신                 |
| 全州府 | 公州 | 忠州 | 恩平, 목천, 금산, 죄산         | 연기, 연산, 부여, 노성, 무의, 회의, 보온, 영동, 청안, 인성, 양성 | 여성, 진잠, 회민, 청신, 황간, 현의, 평천, 진위, 진신 |

28) 尹貞燮, 전개논문, 84쪽.

29) 종래 지방관의 권한에서 경찰업무가 분리되었고(『한말근대법령자료집』, 칙령128호, 129호), 社運制 실시로 지방관의 간여가 금지되고(奏本 154호), 管稅司 및 徵稅署官副와 各邑賦稅所章程을 반포하여(칙령 56호, 74호) 조세징수 및 田制·地籍에 관한 모든 업무가 지방관의 권한에서 제외되었다.

30) 『舊韓國官報』 개국504년 9월 8일, 칙령164호.

|     |            |                        |                                    |  |  |
|-----|------------|------------------------|------------------------------------|--|--|
| 全州府 | 진주, 영광     | 김제, 고부, 태안, 무장         | 여산, 험파, 함일, 부안, 익산, 금구, 충덕, 장성     | 고산, 목구, 만경, 청읍, 고창                         | 율만   |
| 南原府 | 남원, 순천     | 답양                     | 임실, 진안, 순창, 무주                     | 구례, 운봉, 국성, 광양, 장수, 죽과, 창평                 |  |
| 蘿州府 | 나주, 명암, 광주 | 해남, 강진, 장흥, 충양, 보성, 홍평 | 진도, 무안, 놀주, 남원, 낙안                 | 용달, 회순, 통복                                 |  |
| 濟州府 |            |                        |                                    |  | 대찰, 기의                                     |
| 晉州府 | 진주         | 김해                     | 고성, 사한, 하동, 거창, 함양, 흘천, 의령, 활안, 항원 | 남해, 단성, 산청, 안의, 초계, 삼가, 칠원, 웅천             |  |
| 東萊府 | 경주         |                        | 돌래, 을산                             | 기장, 연양, 명일, 흥해, 거제                         | 양산, 장기                                     |
| 大邱府 |            | 대구, 성산, 의성, 말양, 영천, 영창 | 신선, 금산, 청도                         | 경산, 인동, 고령, 개령, 의흥, 군위, 비안, 자인, 신녕, 하양, 명산 | 지례   |
| 安東府 | 상주         | 안동                     | 예천                                 | 황송, 명덕, 명천, 순흥, 풍기, 화천, 을골, 문경             | 진보, 명암, 명해, 철하, 예안, 불화                     |
| 江陵府 |            |                        |                                    | 강릉   | 율진, 범해, 삼척, 고성, 간성, 통천, 양양, 춘곡             |
| 魯川府 |            |                        |                                    | 춘천   | 양구, 충천, 인제, 흥성, 철원, 평강, 금화, 낭천, 진양, 금성, 양근 |
| 開城府 |            | 평산, 개성                 | 첨단, 금천, 수안, 곡산                     | 삭녕, 신계                                     | 자평, 이천, 안협, 도산                             |
| 海州府 | 안악         | 해주, 봉산                 | 연안, 백천, 잡연, 재령, 신천, 강령, 문화, 서흥     | 송화, 통천, 장현, 은을                             |  |
| 平壤府 | 평양, 흥주     | 용강, 증화                 | 안주, 영유, 함중, 삼화, 강서, 영변, 순천, 삼천, 삼원 | 숙천, 순안, 자산, 덕천, 개천, 은산, 양덕, 강릉             | 증산, 영월, 회천, 명산, 운산, 삼릉                     |
| 義州府 | 의주         |                        | 선천, 정주                             | 청성, 벽동, 가산, 통천, 철산, 죽산, 구성                 | 태천   |
| 江界府 |            |                        |                                    | 강계, 초산, 위원                                 | 후창, 자성, 창진                                 |
| 平壤府 | 합양, 흥주     | 용강, 증화                 | 만주, 영유, 함중, 삼화, 강서, 영변, 순천, 성천, 삼원 | 숙천, 순안, 자산, 덕천, 개천, 은산, 양덕, 강릉             | 증산, 영월, 회천, 명산, 운산, 삼릉                     |
| 義州府 | 의주         |                        | 선천, 정주                             | 청성, 벽동, 가산, 통천, 철산, 죽산, 구성                 | 태천   |
| 江界府 |            |                        |                                    | 강계, 초산, 위원                                 | 후창, 자성, 창진                                 |
| 咸興府 |            | 합흥, 명흥, 단천             | 청평, 안변, 북청                         | 고원, 이원, 흥원                                 | 문천, 덕원                                     |
| 鎮城府 |            | 길주                     | 중성, 회령                             | 경성, 명천, 경원, 무산                             | 부령, 경흥, 은성                                 |
| 甲山府 |            |                        |                                    |  | 갑산, 삼수                                     |

위 표에서 살펴보면 당시 광주부는<sup>31)</sup> 전국을 23부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성부로 소속되어 府단위에서 한낱 郡으로 강등되었다. 이에 朴基仁이 1895년 군수로 부임하였고 1896년 1월에는 박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李會夏가 군수로 부임하여 광무개혁이 실시되기 전까지 재임하였다.<sup>32)</sup>

당시 개혁에서 각 군은 面과 結戶數의 多少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sup>33)</sup> 광주군은 그 중의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경기도 府였던 江華府가 1등급으로, 水原府도 2등급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광주부는 상당히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등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군수의 봉급 역시 年俸 8백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sup>34)</sup>

그렇다면 당시 광주군이 郡의 크기가 3등급 규모에 불과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각읍별 결호수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1899년 『皇城新聞』에 실려있는 경기도 각읍의 결호수 자료이다. 비록 1899년의 자료이지만 結戶數의 차이는 1895년경과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참조하고자 한다.

〈표 4〉 京畿道 各邑 結戶數<sup>35)</sup>

| 지역 | 결호수         | 호전      | 비고      | 지역 | 결호수         | 호전     | 비고      |
|----|-------------|---------|---------|----|-------------|--------|---------|
| 수원 | 6,823결72부6속 | 32,808남 | 매결20남5씨 | 식남 | 1,451결51부3속 | 5,434남 | 매결20남5씨 |
| 개성 | 4,007결41부4속 | 14,350남 | 매결20남4씨 | 음죽 | 1,359결70부7속 | 3,000남 | 매결30남4씨 |

31) 당시 성남지역은 광주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지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고찰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후부터는 광주지역을 통해 성남지역의 상황을 고찰하기로 힘을 미리 얻금해둔다.

32) 「廣州府邑誌」, 「京畿道邑誌」 1. 서울대규장각, 198~199쪽.

33) 『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9월 8일, 칙령 164호 제2조.

34) 『舊韓國官報』(개국 504년 9월 8일, 칙령 164호, 1249쪽)에 의하면, 1등급 군수는 연봉 1천원, 2등급은 9백원, 3등급은 8백원, 4등급은 7백원, 5등급은 6백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35) 『皇城新聞』 1899년 7월 31일:8월 1일:8월 2일:8월 3일.

|    |             |            |         |     |             |        |         |
|----|-------------|------------|---------|-----|-------------|--------|---------|
| 강화 | 3,751결95부   | 21,000남    | 매결20남5씨 | 교하  | 1,340결71부6속 | 4,500남 | 매결30남4씨 |
| 양주 | 3,344결68부   | 25,000남    | 매결20남4씨 | 김포  | 1,201결98부4속 | 5,000남 | 매결30남4씨 |
| 여주 | 3,018결17부3속 | 13,000남    | 매결30남4씨 | 양근  | 1,114결24부   | 3,960남 | 매결30남4씨 |
| 광주 | 2,914결50부3속 | 28,836남    | 매결20남5씨 | 과천  | 1,106결35부5속 | 3,000남 | 매결30남4씨 |
| 장단 | 2,898결17부2속 | 15,000남    | 매결30남4씨 | 안산  | 1,100결65부7속 | 4,000남 | 매결30남4씨 |
| 용인 | 2,549결15부5속 | 8,000남     | 매결30남4씨 | 교동  | 1,053결50부3속 | 3,579남 | 매결20남5씨 |
| 이천 | 2,495결62부2속 | 8,000남     | 매결30남4씨 | 시흥  | 951결11부4속   | 3,108남 | 매결30남4씨 |
| 남양 | 2,420결43부9속 | 9,454남2천8촌 | 매결30남4씨 | 자랑  | 922결56부6속   | 5,000남 | 매결20남5씨 |
| 통진 | 2,419결58부1속 | 6,000남     | 매결30남4씨 | 포천  | 858결62부9속   | 3,000남 | 매결20남5씨 |
| 부평 | 2,213결28부8속 | 6,000남     | 매결30남4씨 | 양지  | 834결59부3속   | 3,000남 | 매결30남4씨 |
| 고양 | 2,208결78부7속 | 4,000남     | 매결30남4씨 | 한성부 | 807결11부7속   |        | 매결20남4씨 |
| 안성 | 2,132결70부5속 | 7,000남     | 매결30남4씨 | 연천  | 801결36부2속   | 2,000남 | 매결20남5씨 |

| 지역 | 결호수         | 호전     | 비고      | 지역 | 결호수       | 호전     | 비고      |
|----|-------------|--------|---------|----|-----------|--------|---------|
| 풀덕 | 1,929결28부9속 | 8,000남 | 매결30남4씨 | 작설 | 586결10부9속 | 2,464남 | 매결20남5씨 |
| 죽산 | 1,854결72부4속 | 6,000남 | 매결30남4씨 | 영월 | 606결70부   | 4,000남 | 매결20남5씨 |
| 임성 | 1,840결12부6속 | 6,000남 | 매결30남4씨 | 입천 | 585결28부1속 | 2,000남 | 매결30남4씨 |
| 인천 | 1,822결64부7속 | 7,644남 | 매결30남4씨 | 마천 | 579결74부5속 | 1,600남 | 매결20남5씨 |
| 파주 | 1,803결55부6속 | 7,000남 | 매결30남4씨 | 가평 | 492결97부6속 | 3,000남 | 매결20남5씨 |
| 진위 | 1,749결60부1속 | 5,131남 | 매결30남4씨 |    |           |        |         |

위 표에 의하면 광주부는 경기도 전체 郡의 결호수 가운데 6 번째로 결호수가 많은 지역이었다. 광주부가 대부분의 郡들보다 결호수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임에는 틀림없으나, 같은 유수부인 강화군·개성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수원군에 비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오히려 다소 규모가 큰 일반 郡들의 결호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지역이라 하겠다. 위의 두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에 소속된 郡들의 결호수와 郡 등급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京畿道 各 府別 所屬郡의 結戶數

| 府名          | 等級 | 郡名  | 結戶數         | 府名          | 等級 | 郡名  | 結戶數         | 府名 | 等級  | 郡名          | 結戶數 |
|-------------|----|-----|-------------|-------------|----|-----|-------------|----|-----|-------------|-----|
| 한<br>성<br>부 | 3  | 광주군 | 1,344결88부   | 인<br>천<br>부 | 5  | 밀양군 | 6,659결70부   | 4  | 부평군 | 2,215결26부4속 |     |
|             |    | 금주군 | 2,314결50부3속 |             |    | 연천군 | 8,011결36부2속 |    | 남양군 | 2,420결49부1속 |     |
|             | 4  | 파주군 | 1,803결85부1속 |             | 1  | 강화군 | 3,751결95부   |    | 김포군 | 1,201결98부4속 |     |
| 5           | 4  | 고양군 | 2,208결18부7속 |             | 2  | 수원군 | 6,823결72부6속 |    | 狎鷗군 | 5,851결24부1속 |     |
|             |    | 포천군 | 858결22부9속   |             |    | 통진군 | 2,419결88부1속 |    | 시흥군 | 951결17부4속   |     |
|             | 5  | 적성군 | 6,661결10부9속 | 부           | 4  | 안천군 | 1,822결84부1속 |    | 과천군 | 1,108결25부5속 |     |
|             |    |     |             |             |    |     |             | 5  | 안산군 | 1,100결40부7속 |     |

위 표는 결호수와 郡의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전에 府였던 강화군·수원군의 결호수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광주부가 3등급으로 정해진 것이 타당한 듯 보이며, 전반적으로 결호수의 크기에 따라 郡의 등급이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천부로 소속된 강화군이 3,751결 95부로 1등급인데 비해, 2등급으로 판정받은 수원은 6,823결 72부이며, 한성부의 경우에서 4등급의 고양군이 2,208결인데 3등급의 파주군은 1,803결에 불과하고, 인천부의 3등급인 통진군이 2,419결인데 4등급 남양군은 이보다 많은 2,420결에 이르렀다. 이렇듯 예외적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결호수의 크기가 郡 등급의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같은 등급의 郡일 경우에는 상호 비슷한 결호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5〉에 의하면 한성부의 4등급 포천군이 858결62부9속이나 같은 등급인 인천부의 부평군이나 남양군은 2,200여결을 초과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각 지역의 등급판정에서 통일적 기준 마련이 부족하며 몇몇의 예외적 경우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결호수에 근거하여 郡 등급이 정해지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혁과정에서 급격하게 저평가되어 郡 등급을 부여받은 광주부의 민인들이 개혁을 온전히 수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반발은 속출되었고 이에 또다시 지방제도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양연간

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 2) 建陽年間의 지방제도 개혁과 성남지역

갑오개혁에서의 지방제도 개혁은 합리성이 갖춰진 근대적 개혁이었으나, 그 실효는 기대 이하였다. 우선 갑작스럽게 달라진 행정 체제에 일반민들이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여전히 전국을 23府로 여기기보다는 8道制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36)</sup> 더구나 왕비시혜와 단발령이 내려지고나서 일반 백성들은 23부제를 일본의 사주로 인한 지방제도라 인식하고 당시 관찰사를 친일적인 인사로 몰아세워 僂관찰사, 僂군수라 부를 정도였다.<sup>37)</sup>

많은 마찰을 빚은 결과 1895년 9월 5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중지되고, 稅務觀察官章程, 各郡稅務章程이 반포되어 다시 지방관에게 徵稅權을 부여하였다.<sup>38)</sup> 稅務主事 1인을 두고 이를 감독할 세무시찰관이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징세업무를 통제한다는 보완책이 실시되었으나, 이미 지방제도 개혁의 성패는 판가름나고 말았다.

이에 지방제도 개혁의 문제는 1896년 建陽年間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건양연간에 이루어진 개혁은 다음해인 1897년 광무개혁의 序幕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무개혁의 성격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 당시 러·일을 비롯한 열강의 세력균형은 대한제국의 자율적 개혁을 가능케 한 주요배경이 되었다. 일련의 개혁작업 속에서 지방제도 역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다. 1896년 8월 4일 전국의 23부제를 다시 13道체제로 정비시키는 칙령이 내려졌다.<sup>39)</sup> 이렇듯 道制로의 환원은 광무개혁이 급진적인 갑오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

36) 孫輔曉,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 一志社, 1992, 55쪽.

37) 손정목, 전개서 55쪽 참조.

38)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칙령 159호, 161호.

39) 『舊韓國官報』 칙령 36호, 1896년 8월 4일.

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舊本新參'을 원칙으로 하는 점진적인 개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갑오개혁에서는 짧은 시간에 지방제도를 개혁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에서는 지방제도 개혁에 앞서 실태파악을 위해 지방제도 조사위원을 임명하고 각 지역에 읍지 편찬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899년에 邑誌가 전국적인 규모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바탕으로 예전의 道制를 중심으로 한 지방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8도 가운데 戶數·結數가 적은 경기·강원·황해도는 그대로 1개 道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2개의 道로 만들었다. 충청도와 함경도는 종래 편의상 또는 군사상 목적으로 분할된 左·右道의 경계를 달라붙였고, 평안도·경상도·전라도는 종전의 左·右道의 개념을 무시하고 地勢에 따라 각각 남북으로 나누었다.<sup>40)</sup>

이전의 한성부와 인천부는 다시 합쳐져 경기도로 환원시키되, 그 首府를 水原에 설치하고 수도였던 한성부는 따로이 府로 독립시켰다. 광주,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 지역에서는 府尹을 설치하였다. 또한 갑오개혁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및 관리인원 축소, 지방관청 경비 절감 등을 지향하였으나, 개혁후에도 지방관리의 인원이 과다하고 직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冗費와 民弊를 일으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41)</sup>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지방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전양연간의 개혁에

40) 손정목, 천개논문, 56쪽.

41) 『內部請議』 1, 규장각 17721, 1895년 5월 26일, 金東洙, 「갑오개혁기의 지방제도 개혁」, 『全南史學』 15집 참조.

지방관제를 정하고 職員의 제도를 규정함은 改正의 實事이니 현재의 職員이 過多하고 그 職責이 분명하지 못해 冗費와 民弊를 일으키는 폐가 많으므로 1. 그 수를 감하여 각 관리의 分限을 밝혀 직책을 엄수케 하고 2. 冗費를 절감코자 하며 또 判任官의 인사권을 관찰사가專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제까지 관직을 賣買하는 폐습이 있어 폐정의 한 원인이 되므로 특별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이고...

서는 각 道·府·牧 別로 관리인원과 경비를 보다 명확하게 책정하였다.<sup>42)</sup>

이어 각 도의 所屬郡을 역시 5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관할구역 및 관리조직과 경비를 정하였다. 다음은 경기도에 소속된 총 38개 郡의 등급을 정리한 표이다.

〈표 8〉 建陽年間의 京畿道 所屬郡<sup>43)</sup>

| 等級 | 所屬郡名   |
|----|--|
| 1등 |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인천부   |
| 2등 | 수원군  |
| 3등 | 여주군, 양주군, 장단군, 통진군   |
| 4등 | 파주군, 미천군, 부평군, 남양군, 풍덕군, 포천군, 축산군, 망군, 안산군, 삭녕군, 안성군, 고양군, 김포군, 양평군, 마천군, 고하군, 가평군, 용인군, 음성군, 진위군, 양천군, 시흥군, 자평군, 청성군, 과천군, 연천군, 양지군, 양성군, 교동군 |

위 표에 의하면 광주는 광주부로 승격하였으며, 군 등급에서도 다른 府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앞선 〈표 4〉에 의하면 광주군보다 월선 결호수가 큰 수원군이 2등급으로, 역시 광주부보다 결호수가 큰 여주군·양주군이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3등급의 통

42) 『舊韓國官報』 건양 원년 8월 6일, 칙령 36호, 498쪽. 府·牧은 같은 특수구역이라 기재하였다.

〈표 6〉 각 府 官吏조직과 경비

| 官名    | 總數   | 一人月俸   | 一年總計   |
|-------|------|--------|--------|
| 府尹    | 1 인  | 100원   | 1,200원 |
| 鄉長    | 1 인  | 6원     | 72원    |
| 巡校    | 8 인  | 4원     | 384원   |
| 書記    | 1 인  | 8원     | 96원    |
| 書記    | 8 인  | 5원     | 576원   |
| 通引    | 3 인  | 3원     | 108원   |
| 通平    | 8 인  | 3원     | 288원   |
| 使令    | 10 인 | 2원     | 360원   |
| 使令    | 5 인  | 3원     | 180원   |
| 使令    | 4 인  | 3원     | 144원   |
| 客舍直   | 1 인  | 1원     | 12원    |
| 鄉校直   | 1 인  | 1원     | 12원    |
| 享祀費   |      | 100원   | 100원   |
| 驛費    |      | 250원   | 250원   |
| 旅費    |      | 90원    | 90원    |
| 驛舍修理費 |      | 50원    | 50원    |
| 합계    |      | 3,922원 |        |

〈표 7〉 牧의 官吏조직과 경비

| 官名  | 總數  | 一人月俸 | 一年總計   |
|-----|-----|------|--------|
| 牧使  | 1 인 | 125원 | 1,500원 |
| 主事  | 2 인 | 15원  | 360원   |
| 巡校  | 8 인 | 4원   | 384원   |
| 書記  | 8 인 | 6원   | 576원   |
| 通引  | 4 인 | 3원   | 144원   |
| 使令  | 8 인 | 3원   | 288원   |
| 使令  | 4 인 | 3원   | 144원   |
| 使令  | 3 인 | 3원   | 108원   |
| 客舍直 | 1 인 | 1원   | 12원    |
| 鄉校直 | 1 인 | 1원   | 12원    |
| 享祀費 |     | 100원 | 100원   |
| 驛費  |     | 250원 | 250원   |
| 旅費  |     | 90원  | 90원    |
| 합계  |     |      | 3,968원 |

43) 『舊韓國官報』 건양 원년 8월 6일, 칙령 36호, 498쪽.

진군과 결호수가 거의 비슷한 이천군·남양군은 4등급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3등급으로 매겨진 여주·양주·장단·동진군이 3,344결부터 2,419결까지의 범위인데 비해, 같은 4등급으로 분류된 29개 군의 결호수는 2,549결부터 492결에 이르고 있어 등급내 범위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양상은 정확한 결호수를 바탕으로 郡의 규모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등급책정을 하는 합리적 지방제도라기 보다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지방구역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측면이 강하였음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양연간의 개혁은 합리성과 근대성을 내세운 급격한 개혁의 결과를 빛은 갑오개혁에 비해 지역현실을 인정, 이를 바탕으로 지방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근대적 제도정비란 측면에서 바라볼 때 후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당시 전양연간의 개혁에서 道의 하부구조로 1牧·8府·331郡을 두었다. 제주를 특별히 牧으로 정하고, 갑오개혁 때 수도 漢陽을 下向시켰던 것과 달리 府로 승격시켰으며, 최대 지방도시였던 開城, 개항장과 開市場이 설치된 仁川·東萊·德源·慶興은 당연히 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광주와 강화를 여전히 府로 승격시킴은 사실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당시 개항이후 쇠퇴일로를 겪고 있던 강화나, 軍制 개혁으로 방어적인 의의를 상실하고 있던 廣州는 이미 그 중요성에서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종전의 留守府 소재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던 데에 대한 지방적인 반발이 있었던 듯하며,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水原과 春川은 道廳소재지로, 광주와 강화는 府로 승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45)</sup>

44) 尹貞愛는 '8도를 13도로 세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였으며, 府牧이 설정되었다고 하나 郡 단일화체제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갑오개혁의 추진방향과 일치되었다'(전계논문, 95쪽)라고 하여 발천지향적 측면에서 광무개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더 추적 해보아야 하지만, 경기도에 국한해서 개혁의 실태를 살펴볼 때 이천 지역실태를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합리성은 폐보하였다고 판단된다.

45)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 일지사, 1992, 58쪽, 이와 같은

이상에서 근대화과정의 갑오개혁·전양연간의 개혁을 거치면서 성남지역이 어떻게 변모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던 갑오개혁에서 廣州留守府는 郡으로 강등되었다. 갑오개혁의 급진성이 지방사회에 제대로 편철되지 못한 채 지방민의 반발이 거세어졌다. 이러한 지방사회의 동향은 전양연간의 개혁이 합리성보다는 지역현실을 더 반영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전양연간의 개혁에서 광주지역은 또다시 府로 승격되고 郡 등급 역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결국 전양연간에는 守舊的 補完策으로서의 개혁이 이뤄질으로써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에는 역부족이었다.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지역은 이러한 근대화과정의 흐름을 그래도 반증해주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 3. 『廣州府 邑誌』에 나타난 지역실태

19세기 후반은 근대화를 지향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지방제도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갑오개혁·광무개혁의 두 차례 근대적 개혁 와중에서 새롭게 개혁이 시도되었다. 두 번의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지방사회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지방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대규모의 읍지편찬을 지시하였다. 비록 근대적 지방제도로의 개혁이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때 기초조사자료로서 편찬된 읍지를 통해 당시 지역실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지역에는 19세기에 편찬된 읍지로서 세 종류가 남아있다. 이를 읍지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지역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

개혁의 결과 1896년 7월에 茜友馨을 필두로 具然昌·趙漢國·李種元·韓麟鎬·鄭寅奭 등이 연이어 廣州府尹으로서 부임·재직하였다(〈표 13〉 참조바람).

## 1)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의도

당시 조선 내부의 개화파 관료들이나 일본측에서도 모두 한결같이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의 정비가 시급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갑오개화파가 들어서면서 지방제도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제반조사에 착수하였다. 1894년 9월 25일에 지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도의 塗邑에 邑誌와 事例를 수집·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空冊을 印出하여 兵水營 및 各邑鎮驛堡에 나누어 주어, 전래되어 오는 사례와 誌를 空冊에 정밀히 기록하여 연말까지 중앙에 올려보내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sup>46)</sup> 이 시기 편찬된 지방자료로 「京畿各邑新定事例」<sup>47)</sup>와 경상도의 「開慶府新定事例」, 「醴泉郡新定事例」, 「北安縣新定事例」의 경우가 확인된다.<sup>48)</sup> 이 시기 읍사례의 작성은 새로이 개혁된 조세제도의 시행을 확인하고 지방경비를 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sup>49)</sup>

각지의 읍사례편찬이 지방재정의 개혁 실시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邑誌는 해당 읍의 인구 및 관원, 소속 면리 등의 파악으로 이루어져 지방행정구역의 개혁에 참조하기 위해 지시된 것이

46) 「관초존안」, 1894년 9월 25일, 237쪽.

47) 1894년 10월-11월에 경기 각읍에서 만들어진 총 36개 사례를 경기감영에서 다시 취합하여 작성한 것이 바로 「京畿各邑新定事例」이다. 박지부에서는 농민전쟁이 끝난 뒤 지방재정의 기준으로서 참조하도록 「京畿各邑新定事例」를 각 지방에 배포하였다(『公文編案』 13, 1895년 2월 完營去關).

48) 이 사례들의 항목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요, 稅賦上納秩, 稅賦外上納秩, 戶布上納秩, 各營鐵納秩, 邑公用秩로, 官況及任賴秩, 曹前官況秩로 구분되어 읍재정의 제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地方史資料叢書』 事例編, 여강출판사).

49) 유정현, 1992, 「1894-1904년 地方財政制度의 改革과 衛齊層動向」, 『漢江學報』 73, 81-85쪽. 이에 반해 김태웅은 이 시기 편찬된 신정사례는 지방재정을 해체하고 중앙집권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甲午改革期 全國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의 마련」, 『國史館論叢』 66, 1995).

었다. 이 읍지들은 지방사례와 더불어 1894년 7월부터 시작하여 1894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상달하도록 하였다. 당시 농민전쟁으로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서울과 경기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탓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sup>50)</sup>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각지의 읍지는 1895년 3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작성되지 못해, 중앙정부에서는 기간을 넘기지 말도록 각 지방에 재차 재촉하는 형편이었다.<sup>51)</sup> 새로이 편찬된 읍지의 내용도 이전시기에 작성된 읍지와 별다른 바가 없었다. 새로이 추가되는 항목도 없을 뿐 아니라, 각 항목의 내용은 오히려 이전시기의 읍지보다도 간략한 지경이었다.

전라도 영광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광군의 읍지는 1872년 경 작성된 『湖南邑誌』<sup>52)</sup>와 1895년에 작성된 『湖南邑誌』<sup>53)</sup>를 살펴보면 체제와 항목이 똑같은 뿐더러, 1895년에 작성된 영광군읍지가 각 항목에 따른 내용면에서 오히려 1872년에 작성된 읍지보다 간략하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당시 각 감영에서 작성하여 올린 읍지는 이전에 작성된 읍지의 내용을 移記한 데에 불과할 뿐 새로이 개혁의 참고자료로 이용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사전조사가 이렇게 미미하게 진행되자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을 다분히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의도는 개혁 실시이전에 지방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의 읍지를 재편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규모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894년 12월 26일에는 지방제도 개정에 앞서서 州郡의 대소와 道里의

50) 『공문편안』 5, 1894년 8월 28일, 京畿去關.

51) 『관초본안』, 1895년 3월 1일.

52) 至 12175,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4, 전라도 ①, 한국학문현연구소편, 아세아출판사, 1983, 282-290쪽.

53)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5, 전라도 ②, 한국학문현연구소편, 아세아출판사, 1983, 607-613쪽.

遺近을 보아 일음의 수령으로 하여금 여러 읍을 兼官체 하는 칙령을 내렸다.<sup>54)</sup> 아울러 팔도의 각 지방의 吏治 民隱을 內務衙門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원을 파견하여 그 罷據·整理事의 방책을 모아서 보고도록 하는 칙령도 내렸다.<sup>55)</sup> 이 조치는 곧 이어 행해질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쉽게 작수할 수 있는 군현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통합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제도 개혁과정은 경기도 성남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음에서는 여러 시기에 편찬된 광주부읍지들을 분석함으로써 근대화과정에서 성남지역의 지방제도가 어떠한 변모를 거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한다. 또한 당시 19세기 후반 광주지방의 전반적 실태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읍지분석을 통해 본 광주지역의 실태

경기도 성남지역의 변동상황을 밝혀줄 광주부 읍지는 현재 19세기 이래 편찬된 것으로 세 종류가 남아있다. 연대가 불확실하지만 편찬형식으로 미루어 보아 1842년-1843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 『廣州府邑誌』<sup>56)</sup>와 1871년경에 편찬된 『廣州府邑誌』<sup>57)</sup>, 그리고

54) 『日省錄』 고종 31, 1894년 12월 16일, 칙령 20호.

55) 『日省錄』 고종 31, 1894년 12월 16일, 칙령 21호.

56) 卷 10740, 『京畿道邑誌』 1, 서울대규장각, 1998, 1871년경에 편찬된 『광주부읍지』의 公廉항목에 수록된 日長閣과 坐勝堂 등이 이 읍지에 빠져 있는데, 이를 전물은 모두 순조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읍지에 실려있는 읍 상황들이 어느 시기를 반영하는 것인지가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편찬시기만을 놓고 볼 때에는 建置沿革항목에서 이미 정조때의 사례가 실려있고, 읍지의 변화된 형식이 『京畿誌』 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京畿誌』 편찬시점인 1842년에서 1843년과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京畿道邑誌』 1, 4쪽 해설참조).

57) 卷 12180, 『京畿道邑誌』 1, 서울대규장각, 1998.

1899년에 편찬된 『廣州府邑誌』<sup>58)</sup>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갑오개혁기에 편찬된 광주부 읍지는 남아있지 않다. 지방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중앙정부는 '各道 監兵營으로부터 州府郡縣鎮驛堡에 이르기까지 背役軍卒案付總額과 各樣上納名目實數, 各該公用支故事例를 일일이 成冊하여 원근을 기준으로 하여 군국기부처에 보고할 일'<sup>59)</sup>와 같이 각 지역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지금 甲午年 연말이니 漢城府, 9道, 5都에서 호구수를 조사하여 바친 것을 12월 1일에 일제히 모아서 보고 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규정이다(밀줄-필자). 그런데 전라도, 평안도, 강원도 按撫營과 廣州府, 濟州牧에서는 아직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못하였다.<sup>60)</sup>

위의 자료는 그 해 달라진 호구수를 조사하여 12월 1일에 일제히 보고하여 다음해 통치에 참조도록 하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광주부에서는 아직 보고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年例의 戶口調查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1894년에는 지방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국적인 읍지 및 읍사례의 편찬을 각 지역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읍지편찬 명령은 京官職이 아닌 地方職에 해당되는 지역에만 하달되었다. 광주부는 開成, 水原, 江華와 더불어 留守營으로서 京官職의 관할구역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이때의 읍지 편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sup>61)</sup> 광주부에선 갑오개혁기 대규모 읍지 및 읍사례 편찬시기에 읍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19세기 마지막 광주부읍지는

58) 古915.12-G994b, 『京畿道邑誌』 1. 서울대 규장각, 1998.

59)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1일; 김태웅, 「甲午改革期 全國 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의 마련」(『國史館論叢』 66집) 참조.

60) 『高宗實錄』, 1894년 12월 7일.

61) 김태웅, 천개논문, 46쪽.

1899년에 이르러서야 편찬되었다.

중앙정부는 光武改革期인 1899년에도 '敎十三道各郡 修上郡邑誌于内部'62)라 하여 대규모 읍지편찬을 각 지역에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광주부에서도 읍지가 편찬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899년 廣州府邑誌였다.

그렇다면 세 종류의 광주부읍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지방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어느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가 지방제도 개혁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세 읍지의 서술체계 및 항목을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광주부 읍지의 서술 항목 비교<sup>63)</sup>

| 광주부읍지<br>(1842~3년경) : A 읍지   | 광주부읍지<br>(1871년경) : B 읍지   | 광주부읍지<br>(1899년) : C 읍지  |
|--|--|--|
|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行署, 城池, 官廳, 山川, 風俗, 陵寢, 墓廟, 公寓, 慈塲, 物產, 糜采, 驕院, 牧場, 騰列, 鐘鐘, 樓亭, 寺剎, 古墳, 鎮堡, 人物, 田賦, 通貿, 銀摺, 田稅, 大同, 軍兵, 佈施, 盒板, 藩隸, 遷擇, 到備數, 外道數, 處入, 受料, 屯田, 科試, 先生 | 地圖,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行署, 城池, 官廳, 山川, 姓氏, 風俗, 陵寢, 公寓, 墓廟, 物產, 橋梁, 驕院, 關隘, 牧場, 古墳, 鎮堡, 人物, 田賦, 通貿, 銀摺, 田稅, 大同, 軍兵, 佈施, 盒板, 藩隸, 遷擇, 到備數, 外道數, 處入, 受料, 屯田, 科試, 先生 |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行署, 城池, 官廳, 山川, 姓氏, 風俗, 陵寢, 墓廟, 公寓, 墓廟, 物產, 橋梁, 駕院, 關隘, 牧場, 古墳, 鎮堡, 人物, 田賦, 通貿, 銀摺, 田稅, 大同, 軍兵, 佈施, 盒板, 官案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시기의 읍지는 서술항목으로 볼 때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B읍지에는 없는 목장 항목이 A, C 읍지에는 서술되어 있고, A읍지나 C읍지에는 없는 지도가 B읍지에는 실려 있는 점이 다른 점이기는 하나 이는 소소한 문제이다. 가장 커다란 서술체계상 차이점은 읍 재정상황이 서술되어 있느냐의 여부

62) 「梅泉野錄」 권3, 「黃茲全集」 下, 1152쪽; 윤정애, 전개논문, 93쪽 참조.

63) A읍지-「廣州府邑誌」『京畿道邑誌』1(奎 10740), 1842~3년경,

서울대 규장각.

B읍지-「廣州府邑誌」『京畿道邑誌』1(奎 12180), 1871년경.

서울대 규장각.

C읍지-「廣州府邑誌」『京畿道邑誌』1(奎 古915.12-G994b), 1899년,

서울대 규장각.

이다. A읍지에는 읍 재정에 관한 항목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반면, B읍지에는 읍사례에 충할 정도로 자세한 읍 재정상태가 나타나 있다. 結總이나 遷總 등이 실려 있어서 당시 광주부의 재정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런데 가장 후에 편찬된 C읍지에는 이러한 읍재정의 대략적 상황만이 나와 있을 뿐 재정상태 파악의 핵심항목인 절충이나 환충 등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만을 살펴볼 때, 당시 C읍지는 B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移記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세 시기의 읍지에 적혀있는 광주부 소속 面들의 호구수와 인구수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표 10〉 각 광주부 읍지의 호구수 비교

| 면   | A읍지(1842년경)           | B읍지(1871년경) | C읍지(1899년)        |
|-----|-----------------------|-------------|-------------------|
| 城內  | 戶口數 1,161             | 1,161       | 1,088             |
| 兩洞  | 人口數 男:2,100 女:1,947   |             | 남:2,100 여:1,947   |
| 慶安面 | 戶口數 541               | 657         | 541               |
|     | 人口數 男:1,234 女:1,350   |             | 남:1,234 여:1,350   |
| 五浦面 | 戶口數 417               | 627         | 417               |
|     | 人口數 남: 969 여: 1,460   |             | 남: 969 여: 1,460   |
| 都尺面 | 戶口數 469               | 585         | 469               |
|     | 人口數 남: 687 여: 928     |             | 남: 687 여: 928     |
| 實村面 | 戶口數 653               | 653         | 612               |
|     | 人口數 남: 1,115 여: 1,206 |             | 남: 1,115 여: 1,206 |
| 草月面 | 戶口數 813               | 838         | 590               |
|     | 人口數 남: 1,202 여: 2,004 |             | 남: 1,202 여: 2,004 |
| 退村面 | 戶口數 478               | 478         | 462               |
|     | 人口數 남: 594 여: 893     |             | 남: 594 여: 893     |
| 草阜面 | 戶口數 424               | 424         | 358               |
|     | 人口數 남: 745 여: 741     |             | 남: 745 여: 742     |
| 東部面 | 戶口數 772               | 772         | 722               |
|     | 人口數 남: 1,325 여: 1,596 |             | 남: 1,153 여: 1,596 |
| 西部面 | 戶口數 487               | 546         | 487               |
|     | 人口數 남: 1,153 여: 1,601 |             | 남: 1,150 여: 1,601 |

## 140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     |                   |        |                   |
|-----|-----|-------------------|--------|-------------------|
| 귀川面 | 戶口數 | 408               | 540    | 408               |
|     | 人口數 | 남:917 여:1,155     |        | 남:917 여:1,155     |
| 申대面 | 戶口數 | 727               | 770    | 727               |
|     | 人口數 | 남:1,438 여:1,799   |        | 남:1,438 여:1,799   |
| 舞村面 | 戶口數 | 440               | 440    | 375               |
|     | 人口數 | 남:827 여:847       |        | 남:827 여:847       |
| 突馬面 | 戶口數 | 575               | 575    | 460               |
|     | 人口數 | 남:1,020 여:1,616   |        | 남:1,020 여:1,344   |
| 樂生面 | 戶口數 | 579               | 616    | 579               |
|     | 人口數 | 남:1,146 여:1,246   |        | 남:1,146 여:1,246   |
| 大旺明 | 戶口數 | 772               | 1,007  | 772               |
|     | 人口數 | 남:1,612 여:2,159   |        | 남:1,212 여:2,159   |
| 泰州面 | 戶口數 | 738               | 979    | 738               |
|     | 人口數 | 남:1,559 여:1,757   |        | 남:1,559 여:1,757   |
| 義谷面 | 戶口數 | 387               | 307    | 287               |
|     | 人口數 | 남:540 여:727       |        | 남:540 여:727       |
| 旺倫面 | 戶口數 | 276               | 374    | 276               |
|     | 人口數 | 남:565 여:652       |        | 남:565 여:652       |
| 月谷面 | 戶口數 | 359               | 359    | 352               |
|     | 人口數 | 남:494 여:563       |        | 남:494 여:563       |
| 北方面 | 戶口數 | 327               | 449    | 327               |
|     | 人口數 | 남:684 여:678       |        | 남:684 여:678       |
| 盤串面 | 戶口數 | 367               | 367    | 356               |
|     | 人口數 | 남:688 여:720       |        | 남:688 여:720       |
| 僧戶  | 戶口數 | 68                |        | 68                |
|     | 人口數 | 143               |        | 143               |
| 總計  | 戶口數 | 13,534            | 13,534 | 11,471            |
|     | 人口數 | 남:22,731 여:27,263 |        | 남:22,731 여:27,263 |

위 A, B 두 읍지에 표기되어 있는 각 면의 인구수와 호구수를 표면상 살펴보았을 때 1842경 광주부에는 13,534호가 살았는데, 30년 정도가 흐른 1871년경에도 13,534호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0년이란 그다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기근과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대로 전체 호구수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A, B읍지의 각 면의 호구수를 비교해보면 城內兩洞을 포함하여

총 22개 면 가운데 9개 면이 뿐 나머지 면들은 모두 호구 수가 다르다. 총 호수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 A읍지의 경우 총 戶數는 13,534호가 아니라 12,238호이며, B읍지의 총 戶數는 13,534호가 아니라 13,524호였다. 따라서 A, B읍지의 총 호구수 계산 자체가 불리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오차는 A읍지(-1,296호)보다는 B읍지(-10)가 훨씬 적었다. 게다가 A읍지의 경우는 細村面의 호구수 '戶四百七四十'이라 적혀있어서 70인지 40인지 불명확하고, 四百의 '四'와 四十의 '四'는 활자체가 아닌 手記로 고쳐져 있었다.<sup>64)</sup> 따라서 A읍지의 경우 그 신뢰도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B읍지는 A읍지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지만, 호구수만이 적혀있고 인구 수가 생략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지방민의 조세수취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C읍지의 각 면의 호수를 A읍지와 비교했을 때 12개의 면 호수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혹 A읍지를 그대로 移記한 측면도 있으나, 총 호수 11,471호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세 읍지 가운데 가장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읍지를 타 읍지와 비교해보면 잘못된 활자나 오류를 잡아내어 올바로 수정해서 기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B읍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姓氏부분에서 '諸姓譜廣州覆姓有石抹 今則無性 李安姓最著'라 하여 1899년 당시 광주부에선 이씨와 안씨의 두 개의 성씨가 가장 많았음을 기재하고 있고, 金幹墓의 경우 역시 '在旺倫面'이라 소재지를 밟혀 실어놓았다.

또한 C읍지는 B읍지보다 墳墓항목을 훨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B읍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구巖書院 秀谷書院 明阜書院 등 서원의 자세한 내력을 기재하였으며, 관청 가운데 吹手廳·僧徒廳, 堤堰항목의 池頭堰·正林堰·泡谷堰, 倉庫항목의 新豐倉·新南倉·舊南倉·東別倉·新北倉·舊北倉·補闕庫 등이 B읍지와 달리

64) A읍지는 곳곳마다 이렇듯 활자체가 아닌 手記로 고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기재되어 있다. 牧場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기술되어 있고, 樓亭항 목의 내력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寺刹항목에서도 妙會庵·淨光寺·修理寺·靈臺庵·新日寺·鳳雲寺·雙溪庵·落水庵이 새로 첨가 기술되어 있다. 人物항목에서도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지조를 버리지 않았던 金尚憲·洪翼漢·尹集·吳達濟가 첨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읍지 마지막 부분인 官案 역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559년 廣州牧使로 부임한 尹鉉부터 시작하여 C읍지 편찬년 도인 1899년(己亥年) 8월 2일에 부임한 鄭寅奭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계다가 赴任과 移任날짜가 干支로 표시되어 있어 사료상 가치도 매우 높다.

이와같이 C읍지는 B읍지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B읍지 이후시기의 지역사정을 보충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94년-1895년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방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조하기 위해 전국에 지시를 내려 만들어진 읍지들이 하나같이 이전 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싣거나, 소략하기까지 하였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오개혁기에는 광주부가 경관직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읍지 上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이후 1899년에 만들어진 C읍지에서는 갑오개혁기의 前例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갑오개혁의 실패 이후 또다시 제기된 지방제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광무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조사로 지시한 각지의 읍지는 갑오개혁 때보다 훨씬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지방제도 개혁작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자료는 해당지역의 재정규모이다. 갑오개혁기 지방제도 기초작업으로서 전국에 읍지 및 읍사례를 편찬도록 지시를 내리고 나서, 2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곧바로 '新定事例'의 제정을 하였던 전례<sup>65)</sup>를 비춰본다면, 지방기관

65) 『京畿各邑新定事例』第一, 榕州牧 結稅戶布應掉 各樣應下 新定事例: 金泰雄의 전계논문 참조. 이때의 신정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 재정상태와 규모는 개혁의 필수적인 기초조사였다.

그렇다면 B읍지의 읍재정규모와 간략하나마 약술된 자료이지만 C읍지상에 보이는 읍재정규모를 상호비교하여 당시 광주부의 지역 상황을 추론해보고, 광주부 읍지의 신뢰성 여부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세 시기의 읍지의 각 면의 元帳簿 結數는 거의 같았다.<sup>66)</sup> 단지 C읍지의 경우 遇村面과 細村面의 전답결수가 B읍지와는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면들은 똑같다. 이렇듯 세 읍지에 나타나 있는 전답결수가 원장부상 거의 60년 동안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로 광주부의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읍의 사례가 나타나 있는 B읍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기로 하자.

#### 〈표 12〉 광주부 還穀 읍영의 내역

| 항목     | A읍지                  | B읍지                  | C 읍지              |
|--------|----------------------|----------------------|-------------------|
| 總合(총액) | 107,969石 6斗 3升 7合 3夕 | 107,969石 6斗 3升 7合 3夕 | 105,066石 1斗 1升 3夕 |
| 散在穀    | 58,188石 2斗 1升 6合 7夕  | 58,188石 2斗 1升 6合     | 51,347石 4斗 4升 9合  |
| 實留庫穀   | 49,779石 4斗 2升 6夕     | 49,779石 4斗 2升 6夕     | 51,347石 4斗 4升 9合  |
| 每年還分折米 | 16,000石              | 16,000石              | 16,000石           |

各樣의 有土無土 免稅結은 다 陞摺하여 조세를 낸다.

復戶結은 전례에 따라 結價의 반을 지급한다.

호포는 각 旗團의 慕軍이나 자영의 군졸에게도 똑같이 거둔다.

士族家나 墓村, 內侍村, 契房村은 철저히 조사하여 應役한다.

結簿, 還簿를 마감하는 비용은 다 없엔다.

관에 공급하는 각종 물품은 다 시가에 따라 쓰고 현물로 민간에 책납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結錢과 戶布 이외에는 조금도 거두지 않는다.

邑屬이 禮錢이라면서 民에게서 거두는 것은 다 草罷한다.

京各司와 遷營下屬의 契房은 다 혁파한다.

不恒上下錢은 연말마다 餘不足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66) 대소 장황한 듯 하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廣州府 所屬面의 전답수 전체를 뽑아본 것이다.

〈표 11〉 광주부 전답의 결수

1871년 당시 광주부 환곡의 총액은 B읍지에 의하면 도합 各數 107,969石 6斗 3升 7合 3夕인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양은 58,188石 2斗 1升 6夕이고 실제 창고에 남아 있는 양은 49,779石 4斗 2升 6夕으로 되어 있다. 매년 還分折米는 16,000石으로 되어 있다. 반면 1899년 당시 광주부의 환곡총액은 C읍지에 의하면 105,066石 1斗 1升 3夕인데, 곳곳에 흩어진 양은 51,347石 4斗 4升 9合이고 실제로 창고에 남아 있는 양은 51,347Stone 4斗 4升 9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還分折米가 16,000Stone으로 되어 있다. 두 시기에 걸친 환곡 운영을 살펴보면 약 3,000Stone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還分折米는 16,000Stone으로 똑같다.

여기에서 참시 1862년 임술민란이 발생할 당시 광주부의 환곡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보자.『三政釐廳賸錄』에 나와있는 광주부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1862년경에도 광주부에는 10만 여석의 환곡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미 6만 5천여 석은 없어진 상황이고,

| 각 면 | A읍지                    | B읍지                    | C읍지                    |
|-----|------------------------|------------------------|------------------------|
| 慶安面 | 전226길24무8속, 딤75길58무9속  | 전226길24무8속, 딤75길58무9속  | 전226길24무8속, 딤75길58무9속  |
| 五浦面 | 전194길62무9속, 딤61길15무4속  | 전194길62무9속, 딤61길15무4속  | 전194길62무9속, 딤61길15무4속  |
| 都凡面 | 전164길62무7속, 딤83길96무6속  | 전164길62무7속, 딤83길96무6속  | 전164길62무7속, 딤83길96무6속  |
| 寶村面 | 전129길58무1속, 딤60길32무8속  | 전129길58무1속, 딤60길32무8속  | 전129길58무1속, 딤60길32무8속  |
| 草月面 | 전187길91무4속, 딤65길98무8속  | 전187길91무4속, 딤65길98무8속  | 전187길97무4속, 딤65길98무8속  |
| 逃村面 | 전115길42무, 딤37길73무5속    | 전115길42무, 딤37길73무5속    | 전115길42무, 딤22길73무5속    |
| 草專面 | 전154길95무2속, 딤39길53무5속  | 전154길95무2속, 딤39길53무5속  | 전154길95무2속, 딤39길53무5속  |
| 東都面 | 전197길75무7속, 딤60길75무2속  | 전197길75무7속, 딤60길75무2속  | 전197길75무7속, 딤60길75무2속  |
| 西都面 | 전184길43무7속, 딤70길61무5속  | 전184길43무7속, 딤70길61무5속  | 전184길43무7속, 딤70길61무5속  |
| 光川面 | 전265길12무4속, 딤147길93무8속 | 전265길12무4속, 딤147길93무8속 | 전265길12무4속, 딤147길93무8속 |
| 中壠面 | 전264길51무7속, 딤130길58무5속 | 전264길51무7속, 딤130길58무5속 | 전264길51무7속, 딤130길58무5속 |
| 細村面 | 전116길39무3속, 딤88길48무7속  | 전116길39무3속, 딤88길48무7속  | 전160길39무3속, 딤88길48무7속  |
| 突馬面 | 전164길54무2속, 딤88길24무9속  | 전164길54무2속, 딤88길24무9속  | 전164길54무2속, 딤88길24무9속  |
| 蠻生面 | 전142길50무5속, 딤110길48무4속 | 전142길50무5속, 딤110길48무4속 | 전142길50무5속, 딤110길48무4속 |
| 大田面 | 전216길42무6속, 딤148길96무1속 | 전216길42무6속, 딤148길96무1속 | 전218길82무6속, 딤148길96무7속 |
| 垂州面 | 전655길25무6속, 딤175길25무3속 | 전655길25무6속, 딤175길25무3속 | 전655길25무6속, 딤175길25무3속 |
| 鬱谷面 | 전77길2무5속, 딤32길75무1속    | 전77길2무5속, 딤32길75무1속    | 전77길2무5속, 딤32길75무1속    |
| 莊儀面 | 전96길18무2속, 딤55길71무     | 전96길18무2속, 딤55길71무     | 전96길18무2속, 딤55길71무     |
| 月谷面 | 전119길4무6속, 딤94길5무1속    | 전119길4무6속, 딤94길5무7속    | 전119길4무6속, 딤94길5무7속    |
| 北方面 | 전114길13무, 딤74길63무      | 전116길13무, 딤74길63무      | 전114길13무, 딤74길63무      |
| 雙牛面 | 전73길24무8속, 딤66길4무6속    | 전73길24무8속, 딤66길4무6속    | 전73길24무8속, 딤66길4무6속    |

실제로는 3만 5천여석이 남아 있을 뿐이다.<sup>67)</sup> 이에 봉건정부는 없어진 곡식의 3분의 2에 해당된 43,825석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삼분의 일인 21,913석은 포홍을 한 *吏奴* 중에 이미 사망한 자는 징수하지 않고 생존자들에 한해 10년에 나누어 상납하도록 하고 천석 이상 착복한 자는 반드시 제문한 후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 있는 3만 5천 여석은 매석당 3냥씩 돈으로 납부하여 총 107,000냥을 3년에 나누어 거두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절목의 시행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2만 여냥 이상의 돈을 3년에 걸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야기되자 광주부 민인들이 봉기한 것이 광주부 임술농민항쟁이었다.<sup>68)</sup>

이처럼 19세기 광주부에서 환곡의 문란은 고질적인 폐단이었다. 잡오농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에서도 그러한 고질적인 환곡의 폐단은 여전하였다.

67) 時起田畜, 3925경, 배질 2냥씩 7850냥내에 一年應下耗, 1700석, 매석 3냥씩 5100냥 色落條, 1700냥 잡비 200냥 합 7000냥 除 850냥 遷總 101,691석 虛留 65,738석내 3분2條 43,825석, 全數舊減 삼분一條 21,913석 중에서 *吏奴*遭身死者勿徵, 生存者排限十年除, 耗執錢, 上納均廳, 千石以上犯道者 啓聞後 施以一律事 實留 35,953석, 매석 3냥씩 107,859냥 分三年收排 內下錢 2000냥로 합 109,859냥內 恒留大米 12,000석, 매석 5냥씩 60,000냥 黃豆 3000석, 매석 2냥 5전씩, 7500냥 합 67,500냥 分三年作數년 餘42,350냥(『鑒整廳錄』, 『韓國史料叢書』 권 8, 국사편찬위원회, 1958, 353쪽).

68) 19세기 광주부에서 발생한 농민항쟁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환곡문제에 있었다. 광주부지역에서 발생한 임술농민항쟁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바람.

鄭銀景, 「19세기 城南地域의 농민항쟁」 『城南文化研究』 제9호, 2002, 성남문화원.

양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862년 농민항쟁-증세말기 전국 농민들의 반봉건투쟁」, 동네, 1988.

광주부의 환곡문제는 이미 18세기 초엽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손실분이 상당하여 자체 운영이 힘든 나머지 紿代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朝鮮王朝實錄』, 순조17년 5월 19일 신유).

廣州에서 還政이 오랫동안 배성들의 폐단이 되고 있으니 바로 잡도록 지시하다<sup>69)</sup>

廣州배성들이 환곡과 관련한 폐단을 바로 잡을 것을 무리로 모여서 신소하다. 广州留守 洪淳馨을 파면시키고 右贊成 李容元을 임명하여 조사하고 징계하다<sup>70)</sup>

위의 기사와 같이 1894년에도 환곡의 문란이 여전하여 이것이 곧바로 농민항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중앙정부도 이러한 환곡의 문란상을 인식하고 京畿내의 장부에 올라 있는 還穀으로서 받을 데가 없는 것은 모두 탐감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되는 형편이었다.<sup>72)</sup>

1890년대에 광주부 환곡실태가 위와 같았음을 비춰볼 때, 1899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862년에 10만여 석이었던 환곡은 여전히 1871년에도 107,969石, 1899년엔 105,066石으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때 1899년 당시 환곡실태 역시 이전시기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1년경의 읍지와 1899년 읍지에서 전세와 대동미는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 전세는 매결당 米4斗씩 거두었으며 大同米는 每結當春秋로 12斗씩 거두었다.<sup>73)</sup> 또한 대동미는 '自己卯始有結錢定式 每結收排五疋一分 廢數年各不同 全屬本城以爲充補 於將士支放之資'<sup>74)</sup>라는 후술된 내용이 적혀있는데, 즉 己卯年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69) 『高宗實錄』, 1894년 8월 22일.

70) 『高宗實錄』, 1894년 10월 20일. 广州留守 洪淳馨은 얼마 있지 않아 사면받았다(『高宗實錄』, 1894년 11월 1일).

71) 광주부에서 발생한 갑오농민항쟁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鄭銀景의 전개논문 참조바람.

72) 『高宗實錄』, 1894년 11월 7일.

73) '每結米4斗式全屬山城元無京上納'이라 하여 광주부에 소속된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田稅, 大同米를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자체경비로 충당도록 하였다. 『廣州府邑誌』, 『京畿道邑誌』 1, 153쪽, 275쪽.

74) 『京畿道邑誌』 1, 『廣州府邑誌』 64쪽, 153쪽, 275쪽. 서울대학교 규장각.

結錢을 거두는 것으로 正式化되었는데, 매결당 5조 1分씩 거두는 것으로 하되 그 해마다 숫자는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752년에 마련된 「結米節目」에 의해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 1결당 쌀 2만 또는 錢 5조를 징수하도록 한 결작미의 양과 거의 같다. 결작미는 균역법에 의해 결손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거두었는데 처음에는 현풀(米)과 錢을 모두 혼용하였으나 뒤에 절차 錢으로 납부방식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6도 중에서도 개성부와 강화부 내의 토지에는 결작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원부와 광주부의 결작은 각 부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미루어보아 읍지에 大同항복에 기재된 후술내용은 結作米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광주부의 읍·재정의 전체적 규모와 조세수취방법 등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 재정운영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結總과 遷擲은 B읍지에만 기재되어 있다. 비록 1871년경의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광주부의 재정상황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結總은 원장부에 전답 5,858결 88부 1속(전 4,109결 91부 1속, 담 1,748결 97부)으로 되어 있고, 各樣 雜頃로서 2,962결 69부 8속으로 되어 있어 결국 실제로 수세할 수 있는 결수는 2,906결 18부 3속이다.

遷擲은 米 7,320석 13두 1승 1합 1석이고, 田米 1,759석 2두 6승 5합 4석, 豆 331석 6두 8승 4합 5석, 太 10,765석 7두 2승 3합 1석, 租 3,788석 12두 8승 6합 6석, 稷 690석 6두 2승 1합, 木麥 320석이므로 총합 24,976석 3두 9승 1합 7석이다. 別備穀으론 太 200석인데, 경자년에 처음으로 添餉米 150석을 만들었고, 신미년에는 처음으로 토지를 사들여 만든 米가 500석이며, 갑자년에 별도로 두었다. 또한 外道穀은 米 18,232석 8두 4승 4합 9석을 영남에, 小米 13,098석 5두 2승 9합 5석을 海西에 설치하였으며 매년 그 이식을 거두어왔다.

광주부의 총 歲入錢을 보면, 結役과 結錢으로 35,330냥, 境內 戸布로 19,320냥, 各邑 軍錢으로 9,350냥, 各邑 義僧錢으로 7,059냥, 各屯稅錢으로 6,955냥, 嶺南耗米代錢으로 5,469냥, 海西米耗代錢으로 4,584냥, 兩西間年添餉米代錢으로 1,750냥, 신미년에 처음 시작된 加結米代錢으로 2,266냥으로서 총합 92,083냥에 이른다. 이는 각항목의 經用과 作米支放으로 처리된다. 여기에 米 1,600석은 還分耗로 거두어들이며, 2,500석은 別貿米로 辛未年부터 거두어들여 도합 米 4,100석이 지출되었다.

광주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將官으로 別破哨官 15員, 牙兵把撫 2員, 牙兵哨官 5員, 馬兵哨官 1員, 東伍把撫 3員, 東伍哨官 7員이 배치되어 있고, 將校로선 教練官 19員, 本廳軍官 29員, 旗牌官 20員, 別軍官 9員, 知數官 8員, 捕盜軍官 18員, 二廳軍官 18員, 中고營軍官 14員, 崇烈殿監 2員, 醫員 1員, 領將 2員, 訓長 1人, 弓人 2人이 배치되어 있다. 員役으론 背吏 80人, 罷直 40人이 있고, 奴僕으로 營奴 30명, 營婢 13명, 使令 23명, 各所使令 8명이 있다. 軍卒에는 別破陣 129명, 巡牢 75명, 軍幕軍 4명, 都訓導 4명, 細樂手 26명, 匠手 3명, 熟手 6명, 捕卒 8명, 門直 4명, 山直 6명, 各直 33명, 各屬 39명이 배치되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도합 707員의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렇듯 많은 관속이 봉급을 지금 받았으므로 관청 경비중에서 관속봉급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갑오개혁 당시 廪官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혁발침을 정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당장 인건비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897년에 이르러서도 광주부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다음 기록이 눈에 띈다.

前 廣州郡에 줄 그전 돈과 지방군사 겸 巡檢들을 위한 경비로 채 주지 못한 급료 1,136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도록 한다.<sup>75)</sup>

경기 광주에서 연전에 순검 설시할 때 든 경비 5,680냥 4전 8푼을 결세전 중에서 제감하여 달라고 한다.<sup>76)</sup>

위의 기록처럼 광무개혁이후 지방관속의 수와 경비가 중앙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상황에서도 광주부에선 지방제도 개혁에 따른 경비지출의 증가로 관속의 급료를 채워주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하곤 하였다. 게다가 1897년에는,

경기 각군에 작년 농사 잘못이 우심한 고율은 18인데 강화, 인천, 수원, 평진, 장단, 부평, 남양, 풍덕, 죽산, 안산, 안성, 김포, 읊죽, 진위, 양천, 지평, 양성, 교동이고 지체된 고율은 20인데 광주, 개성, 여주, 양주, 파주, 이천, 포천, 양근, 삭령, 고양, 영평, 마천, 교하, 가평, 용인, 시흥, 적성, 과천, 연천, 양지이며 각군에 신재는 7,170결 22부 3속이라 하다.<sup>77)</sup>

와 같이 농사 작황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편찬한 19세기 세 시기에 걸친 읍지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의 광주지방의 실태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 세 읍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당시 지역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신뢰성이 의문시된다. 그 가운데 1899년에 제작된 읍지는 새로운 지방제도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성된 것이었는데, 갑오개혁기에 만들어진 읍지보다 상당히 충실히 읍사정이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읍지에는 가장 중요한 結緝、還撫이 생략되어 있으며 전답의 정확한 파악이 결여되어 있어, 광무개혁시 지방재정의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

75) 『高宗實錄』 1897년 9월 14일.

76) 『高宗實錄』 1897년 10월 14일.

77) 『독립신문』 1898년 2월 3일.

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당시 환곡의 문란상도 여전히 이전시기와 같았음을 숫자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계속된 재정악화로 관속들의 봉급 지급도 여의치 못한 실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작업이 잡오개혁·광무개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위와 같은 지역상황하에서는 근대화된 지방제도가 정착되기에 상당히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 3) 광주부 지방관직의 운영실태

지방관의 빈번한 교체문제는 이미 일찍부터 지방행정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다. 조선시대 수령들은 왕명을 대신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그 지방의 절대적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항상 지방세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령이 오랫동안 한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임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大典會通』에 규정된 수령의 임기는 관찰사의 경우는 360일, 수령은 1800일, 堂上官 및 가족을 수반하지 않는 수령의 경우는 900일이었다.<sup>78)</sup>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규정이상으로 매우 빈번하게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령이 교체되는 경비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으로 귀결되어어<sup>79)</sup> 지나치게 찾은 수령의 교체는 백성들에게 민폐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방관 직무권한과 임기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광무개혁에서 실시되었다.

정부는 칙령 46호로 지방관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시작하였다. 먼

78) 『大典會通』 권1. 更典, 外官職條.

79) “경費가 모두 백성한테서 나오는데, 그 원근을 따져보면 먼 곳은 천금이 넘게 들기도 하고 가까워도 45百金에 밀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마다 징수하기도 하고 혹 한 해에 두서너 번 징수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조선왕조실록』 순조 22년 9월癸未條) 김동수, 전계논문: 李源鈞 「朝鮮時代의 수령직 교체실태」(『부산사학』 3, 1979) 참조바람.

저 지방관의 질서체계를 확실히 규정해놓았다. 즉 법률과 지방을 지방에 반포할 때에는 内部나 各部-관찰사-府尹·都守의 위계질서 체계를 갖추어 轉飭·報告·質稟을 하도록 규정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계를 뛰어넘지 않도록 하였다.<sup>80)</sup> 또한 쇠령 48호로 「判尹觀察使牧使府尹都守의在任期限은 4個年으로定하야限滿한 기전에는 移遷할을勿許함」<sup>81)</sup>라 하여 지방관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였다. 임기가 다한 뒤에 부득이하여 임지를 떠나지 못할 경우에는 半期(2년)를 재임하도록 하고 또 2년이 지난뒤에 치적이 현저하게 두드러진 경우에는 나머지 2년을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광주부에서는 이와같은 규정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었는지를 광주부 읍지에 실려있는 先生案 혹은 官案을 통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1871년경에 편찬한 읍지에는 선생안이 실려있으나 이 뿐만 나열되어 있는 반면, 1899년에 편찬된 읍지에는 부임한 간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 시기 광주부의 수령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뽑아낼 수 있다.

〈표 13〉 역대 광주부 지방관 명단<sup>82)</sup>

| 관직명 | 풀계  | 성명  | 부임시기     | 이임시기     | 재임기간 | 비고     |
|-----|-----|-----|----------|----------|------|--------|
| 留守  | 鄭基世 | 鄭基世 | 1871년7월  | 1873년1월  | 1년6월 |        |
| 判官  | 成惠鑑 | 成惠鑑 | 1871년11월 | 1873년2월  | 1년3월 | 移拜軍資正  |
| 留守  | 趙錫雨 | 趙錫雨 | 1873년1월  | 1873년11월 | 10월  |        |
| 判官  | 趙熙齊 | 趙熙齊 | 1873년2월  | 1873년6월  | 5월   | 移拜永川郡  |
| 判官  | 洪厚邊 | 洪厚邊 | 1873년6월  | 1874년4월  | 9월   | 移拜濟道郡守 |
| 留守  | 李旼  | 李旼  | 1873년11월 | 1875년6월  | 1년7월 | 移拜刑曹判官 |
| 判官  | 李錫應 | 李錫應 | 1875년8월  | 1876년12월 | 1년4월 | 移拜善山府使 |
| 判官  | 金有鉉 | 金有鉉 | 1876년4월  | 1875년7월  | 1년3월 | 移拜大田判官 |

80) 『舊韓國官報』 建陽元年 8월 13일, 쇠령46호.

81) 『舊韓國官報』, 건양원년 8월 10일, 쇠령48호, 517쪽.

82) 『廣州府邑誌』, 『京畿道邑誌』 1, 서울대규장각, 155쪽-199쪽, 1889년에 부임한 자현대부 민영소의 경우 이임날짜가 庚辰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庚寅年の 謌字인 것으로 보인다. 1871년 이전의 광주부 지방관 명단은 위 읍지 官案을 참조바람.

## 152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      |     |          |          |       |          |
|----|------|-----|----------|----------|-------|----------|
| 留守 | 資憲大夫 | 尹道惠 | 1875년7월  | 1877년9월  | 2년2월  | 京畿監司相換   |
| 留守 | 崇政大夫 | 李勸元 | 1877년9월  | 1878년7월  | 10월   | 移拜兵曹判書   |
| 留守 | 崇祿大夫 | 金輔鉉 | 1878년7월  | 1879년2월  | 7월    | 移拜禮曹判書   |
| 判官 |      | 金永權 | 1877년1월  | 1879년2월  | 2년1월  |          |
| 判官 |      | 朴宣陽 | 1880년3월  | 1880년7월  |       | 移拜 樂根郡守  |
| 留守 | 資憲大夫 | 閔泳ழ | 1879년3월  | 1880년12월 | 1년9월  | 移拜郡捷管    |
| 判官 |      | 李稷敬 | 1880년9월  | 1881년2월  | 5월    |          |
| 留守 | 資憲大夫 | 沈辰澤 | 1881년3월  | 1882년6월  | 1년3월  |          |
| 判官 |      | 閔泳學 | 1881년3월  | 1881년12월 | 9월    | 宜寧縣監相換   |
| 判官 |      | 閔泳國 | 1881년12월 | 1883년1월  | 1년1월  | 水原判官口傳相換 |
|    | 大匡   | 李崔應 | 1882년5월  | 1882년6월  |       | 卒逝       |
| 留守 | 正憲大夫 | 趙慶鎮 | 1882년5월  | 1883년3월  | 9월    | 移拜漢城判尹   |
| 判官 |      | 李商應 | 1883년2월  | 1883년8월  | 6월    | 移拜敷寧郡正   |
| 留守 | 資憲大夫 | 南廷賴 | 1883년10월 | 1885년6월  | 1년8월  | 江原監司相換   |
| 判官 |      | 李周備 | 1883년8월  |          |       |          |
| 留守 | 資憲大夫 | 閔致序 | 1885년8월  | 1886년2월  | 6월    |          |
| 留守 | 正憲大夫 | 金允植 | 1886년2월  | 1887년5월  | 1년3월  |          |
| 判官 |      | 李承喜 | 1886년12월 | 1887년4월  | 1년2월  | 青松府使相換   |
| 留守 | 資憲大夫 | 洪鍾軒 | 1887년6월  | 1889년5월  | 1년11월 | 移拜知莊寧    |
| 判官 |      | 朴世榮 | 1887년6월  | 1889년7월  | 2년3월  | 移拜朝寧郡守   |
| 判官 |      | 趙興永 | 1889년8월  | 1889년11월 | 3월    | 移拜丹陽郡守   |
| 留守 | 資憲大夫 | 閔泳詮 | 1889년5월  | 1890년12월 | 1년7월  | 移拜吏判     |
| 判官 |      | 宋萬燮 | 1890년12월 | 1893년2월  | 3년    | 移拜高城郡守   |
| 留守 | 資憲大夫 | 金興鎮 | 1890년12월 | 1892년1월  | 1년1월  | 移拜統灘使    |
| 留守 | 資憲大夫 | 金文鉉 | 1892년1월  | 1893년2월  | 1년1월  | 移拜全羅監司   |
| 判官 |      | 金興熙 | 1892년12월 | 1893년1월  | 11월   |          |
| 判官 |      | 李純宰 | 1893년1월  | 1894년9월  | 118월  |          |
| 留守 | 正憲大夫 | 尹榮信 | 1893년12월 | 1894년8월  | 1년6월  |          |
| 留守 | 資憲大夫 | 洪淳馨 | 1894년8월  | 1894년10월 | 2월    | 謹聽       |
| 留守 | 崇政大夫 | 李容元 | 1894년10월 |          |       |          |
| 判官 |      | 徐殷淳 | 1894년9월  | 1895년11월 | 1년2월  |          |
| 都守 |      | 朴基仁 | 1895년9월  | 1896년1월  |       | 卒逝       |
| 都守 |      | 李會廣 | 1896년1월  | 1896년6월  | 5월    | 免本官      |
| 府尹 |      | 姜友鑑 | 1896년7월  |          |       | 未赴任      |
| 府尹 |      | 具然昌 | 1896년8월  | 1897년8월  | 1년    |          |
| 府尹 |      | 趙漢國 | 1897년8월  | 1898년2월  | 7월    | 移拜開城府尹   |
| 府尹 |      | 李種元 | 1898년3월  | 1898년12월 | 9월    | 免本官      |
| 府尹 |      | 韓麟鎮 | 1899년2월  | 1899년6월  | 4월    | 移拜江原府尹   |
| 府尹 |      | 鄭寅卿 | 1899년4월  |          |       |          |

위의 표는 1899년 읍지의先生案에서 1871년 읍지에 실려진 官案 그 이후시기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위 표의 관직명을 보면 19세

기 말 광주부의 지방제도 개편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유수부였던 광주가 1895년 23부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군으로 재편되자, 위 선생안에서도 광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군수가 부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6년 갑오개혁 기 지방제도 실패로 인해 13도로 재편되었을 당시에 광주가 府로 승격되었던 사실이 위 선생안에서 1896년 府尹으로 바뀐 땅침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위 표에서 留守(郡守·府尹)의 평균 재임기간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23개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평균 1년 1개월이 된다. 그 가운데 1896년 지방제도 개혁이후 府尹으로 임명된 경우는 4번이며, 각각 1개년, 7개월, 9개월, 4개월이다. 이렇듯 빈번한 지방관리의 파견이 그대로 민폐로 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4년간의 재임기간을 준수하도록 개혁하였지만, 여전히 잦은 지방관의 교체는 조선시기이래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광주유수직을 이임하는 관리의 後任職이다. 유수는 경기관찰사를 겸직하기 마련인데,<sup>83)</sup> 위 표에서는 광주부 유수를 경기감사와 서로 相換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 외에 강원감사와 서로 상환하거나 전라감사로 이임하는 것은 같은 從2品職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부 유수직을 지낸 많은 관리들이 정2품직인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한성판윤 등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종2품직인 他道의 관찰사직책보다 광주부 유수직은 승진할 수 있는 효직으로 분류되었던 듯 하다.

이처럼 새롭게 지방관직의 임기제를 규정한 이후에도 빈번한 지방관의 교체는 지방관들의 개혁의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96년에 실시한 지방제도 개혁 역시 지방사회에 실제 적용과 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3) 『經國大典』, 史典, 京官職.

### 5. 맷음말

지금까지 19세기 근대화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여러차례 지방제도 개혁작업이 실제로 성남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지방지배정책이 지방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지방사회의 실정과 유리된 채 정권담당층의 의도만으로는 일방적인 개혁이 될 뿐 그 성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즉 지방지배정책은 중앙의 개혁의지가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지방사회의 실정과 부단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조선에서 근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의 첫작업은 1895년 김홍집내각이 붕괴된 후 박영효내각에 의해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이는 내부를 중심으로 지방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지방행정의 각 부문과 지방재정을 중앙에 이속시키며, 이서충의 대폭적인 절감과 지방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화정책이었다. 이어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전국의 8도체제가 23府체제로 개혁되었다.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부는 이때 광주군으로 강등되고 5개의 郡 등급에서 3등급으로 관정받았다. 이로 인해 광주부라는 留守府로서의 지위를 누려오던 지방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게 되고 지방제도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급격한 개혁방침으로 지방민의 반발이 야기되자, 조세수취권을 다시 군수에게 이관하고 대신 군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이루려는 방향으로 개혁의 정도가 이완되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였던 지방제도를 개혁하고자 단일화된 체제를 치향하였지만, 결국 인위적인 지방구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갑오개혁기 지방제도 개혁은 근대적 지방통치체제를 치향하고 있었지만, 제도자체에서 새로운 개혁과 종래 관행이 뒤얽혀 있는 형태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사회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방제도 개혁은 고종이 아관파천해 있었던 1896년 8월에 재차 실시되었다. 이때에는 13도제로 개혁됨으로써 예전의 道副로의 환

원이 이루어짐으로써 '舊本新參'이란 광무개혁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때 광주는 다시 廣州府로 승격되었을 뿐 아니라 1등급의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미 중심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府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은 갑오개혁에 따른 광주민인들의 반발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이렇듯 급변하는 근대화 시기에서 광주는 근대적 개혁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변화되는 성남지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광주부읍지를 분석해보았다. 당시 지방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지방실태 조사가 기초작업으로서 필요하였고 이에 중앙정부는 각 지방에서 邑誌 및 邑事例를 편찬, 상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894-5년 지방제도 개혁작업에서 광주부는 京官職에 속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읍지 편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896년 이후 지방제도 개혁속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또다른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의 읍지편찬 지시 역시 또 다시 한차례 내려져서 전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읍지를 만들어 上送하였다. 광주부는 이 당시에 읍지를 편찬하였으며, 그 읍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은 광주지역의 읍지 가운데 19세기에 편찬된 읍지는 모두 3종류이다. 1842년경에 편찬된 읍지와, 1871년경에 편찬된 읍지, 그리고 1899년에 편찬된 읍지가 그것이다. 이 세 종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성남지역의 지역상황을 파악해보았다.

세 읍지는 편찬항목이나 각 호구수, 전결수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유사하여 갑오개혁기에 만들어진 읍지처럼 이전 읍지를 移錄하는 전례를 밟은 듯 보인다. 그 중 1899년에 제작된 읍지는 갑오개혁기 읍지보다 상당히 충실히 지역상황을 기술하여 당시 광주부 지역상황을 자세히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읍재정을 파악할 수 있는 結總, 邊撫이 생략되어 있으며, 전답의 수도 이전 시기 읍지와 대동소이하여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환곡의 總

數 역시 이전 시기와 거의 같기 때문에 19세기 초반에 팔주부 지역의 특징이었던 환곡의 문란상 역시 시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만들어진 당시 읍지들은 내용이 대동소이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실정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였다. 이에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은 정확한 지방실태 파악이 결여되어 그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정악화로 지방관속의 봉급 지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평균 1년 1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에서 알 수 있는 짧은 지방관 교체는 지방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기 및 전양연간에 실시된 지방제도는 근대적 제도화를 지향한 개혁이었으나, 지방사회에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변용이 일어나고 제대로 정착시킬 수 없었다. 결국 개혁의 원래 취지는 달성못한 채 불완전한 개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동억\*

## 〈목 차〉

- 1) 서문.
- 2) 대열의 의의.
- 3) 대열외궤의 정립.
- 4) 대열의 필요성과 경제.
- 5) 구전에 의한 성남지역의 대열.
- 6) 결론.

## 1. 서 문

성남지역은 고대(古代)로 부터 많은 왕실문화가 있었지만 거의 사장(死藏) 되다싶이 하고 몇 않되는 구전(口傳)에 의한 문화가 잔존(殘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열(大閱)이나 수령(狩獵)은 왕(王)의 전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군사들의 군사 전술을 직접 지휘통솔 함으로서 병법에 의한 실전무예(實戰武藝)를 갖춘 임금으로서의 위상을 제고(提高)하였으며 건강한 임금의 국가통솔 능력을 온 백성에게 알려 왕의 지엄(至嚴)한 왕권위용(王權威容)을 과시하는 최대의 최고급 왕실문화(最高級王室文化)였다. 대열은 송나라에서 시작되어 고려때에 도입된 군사문화이다. 조선왕조 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태종대왕때부터 지금의 송파구 일대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까지를 통털어서 정금원(鄭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전)연구위원

金院)이라고 불리는 전국 최대의 훈련장에서 이루어 졌으며 역대 임금들의 행행(行幸)이 많이 있었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새겨진 유서 깊은 지역 이기도하다. 이러한 역사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일깨워서 재 조명하여 그 시대를 이해하고 국가적 행사의 의의와 규모를 파악(把握) 하여 둘다면 후세에 키다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수령 또한 대열 못지 않은 국가적 대사(大事)였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의 친립(親獮)은 임금의 건강하고 개인한 체력을 대 내외에 과시(誇示)하고 임금이 직접 군사를 지휘관掌(指揮管掌)함으로서 막중(莫重)한 국가 경영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지금의 궁내동 풀케이트 주변으로 추정되는 낙생행궁에 대한 실록은 이지역이 파오달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것 이외에 교통의 요충지 있음을 대변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임금의 대열이나 수령행차와 함께 낙생역을 전교, 앞들, 파오달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은 성종실록에서 낙생행궁이라는 기록이 발췌(拔萃)되므로서 성종이전에 이미 낙생행궁이 짓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계기(癸期)가 마련된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연구하여 확인하고 재현하여 중요성을 후세에 전함은 물론 대열문화의 재 조명과 복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대열(大閱)의 의의(意義)

대열은 송나라때에 실시되기 시작한 군사훈련으로 송나라가 계속되는 전쟁에 와중에서도 잠시간이라도 평화로운때에도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무비(武備)를 정돈하여 뜻밖에 빙고에 대비한 최고의 군사전술 이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문무

왕17년 3월에 강무전(講武殿) 남문(南門)에서 활쏘기를 관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도 강무(講武)라는 이름으로 임금들이 장병들에게 친(親)히 군사(軍事)에 대하여 강론(講論) 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친강(親講)을 하므로서 군대(軍隊)의 사기(士氣)를 높이고 임금에게 충성을 맹서(盟誓)하게 하는 의식(儀式)이 강무(講武)라는 이름으로 제도(制度)가 도입되었다. 대열은 만약에 사태(事態)를 대비(對備)하여 병 국가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엄청난 국력을 기울여 군사를 조련하는 최대의 큰 행사였으며, 전래된 국가 최고의 군사문화(軍事文化)며 최대의 왕실문화(王室文化)인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이 각각 강무에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은 각기 수도(首都) 근처에서 강무와 사열을 하였을 것이고 그 위용을 기초로하여 군대의 사기를 양양시켜 전쟁에 임(臨)하였다던 것 같다. 고려사(高麗史)를 살펴보면 고려초에는 사열(查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태조 이후에 군대를 사열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 열전 명종5년 10월에 10일간 대열을 하였고 명종14년 11월 겸술에 대열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사 세가(世家)에 충렬왕6년 11월과 7년 4월에 그리고 11년 5월에 대열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공민왕 원년 9월에 대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 세가에는 총 39건의 사열(查閱) 기록이 있고 고려사 지(誌)에 4건 고려사 열전(烈傳)에 7건 등 50여곳에서 대열이나 사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면 군대를 조련하고 병사들의 전쟁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최고의 방어적 수단이며 최후의 승리를 쟁취 하려는 공격적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서 대열의 대한기록은 상고한바와 같이 여덟번 밖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강무(講武)와 사열(查閱)과 대열(大閱)의 대한 논란(論難)기록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 이것은 새로이 개국한 조선의 위치에서 첫째로 막강한 군사력(軍事力)이 필요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시로 군사를 점검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개인무에나 전술훈련에 치중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대왕이 개국한 이래로 시작된 강무에 대한 기록이 순조때까지 천여회에 이르는 것 만으로도 군사들을 독려하고 무예를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종대왕과 세종대왕, 세조대왕, 성종대왕실록은 100여회 이상의 강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역대 대왕실록 중에 80%를 차지하는데 이토록 많은 강무를 통하여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온 임금 때에는 국가의 안위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강력한 왕권으로 인하여 국태민안을 위한 통치기능이 현저하게 고조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사회분위기가 한층 상승된 시대로 이끌어 성군(聖君)으로 칭송(稱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잔병이 유난히 많았던 세종은 불편한 신체조건에도 재임기간 동안에 3회에 걸친 대열을 행하였던 왕(王)이었으며 대열의 주(大閱儀註)를 만들어 후세에 전하므로써 커다란 업적(業績)을 남긴 왕이 되었다. 실록(實錄)에 의하면 대열(大閱) 때에는 임금을 호종(扈從)하는 만조백관(滿朝百官)과 종친(宗親)과 재추(宰樞)가 모두 감주를 입고 대열(大閱)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만큼 큰 중요성과 임금의 통제 위엄이 배어 나와야 군사의 사기가昂揚(昂揚)되어서 사기충천한 가운데 엄격한 군률(軍律)을 몸에 익히고 개인의 무예를 칼고 닦아 기량을 극대화 하여 고되고 힘든 군사훈련을 마치어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터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 3. 대열의궤(大閱儀軌)의 정립(定立)

세종3년 5월 13일 병조에서 대열편제에 대하여 아뢴 것을 보면 5개소로 나누어진 편제를 알 수 있다. 임금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중

위(中衛)에는 의정부(議政府), 든녕부(敦寧府), 이조(吏曹), 병조(兵曹), 대언사(代言司), 사현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삼군진무소(三軍鎗撫所), 내금위(內禁衛), 충의위(忠義衛)가 예속(隸屬)되고, 좌소(左所)에는 예조(禮曹)가 예속되고 우소(右所)에는 형조(刑曹)가 예속되며 전소(前所)에는 호조(戶曹)가 예속되고 후소(後所)에는 공조와 한성부가 예속되게 하였는데 각 부서(部署)의 2품이상의 관리가 예속되게 하였다. 5개조로 나뉘어 편제된 소속의 관리를 중 군직(軍職)에 종사하는 2품이상의 예속자는 모두가 진도(陳圖)를 예습(豫習)하게 하였다.

이것은 전시(戰時)에 만조 백관이 임금을 모시는 방법을 군률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의 안위는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 되었기 때문에 임금을 호위하는 절차는 매우 상엄하게 하였던 것이다.

세종3년 6월1일 예조에서 대열의 의식과 절차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세종3년 7월9일 병조에서 전법과 그 운용에 관한 소문(疏文)을 올려서 대열의주(大閱儀注)의 기초를 닦았고 세종3년 8월12일에 병조에서 각도의 군사들을 오위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소문으로 경기, 전라, 경상도는 중위(中衛)에 속하게하고 평안도는 전위에 속하게 하며 충청도는 좌위에 속하게 하고 황해도는 우위에 속하며 함길도는 후위에 속하게 하는 왕명이 있었다. 세종3년 6월에 예조에서 대열(大閱) 절차(節次)에 대한 계(晷)를 올려 건의한 대열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열의주(大閱儀註)는 세종6년 9월24일 대열의 기일과 절차에 대한 의례로 확정 되었다. 그전에는 대열의주 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대열의주를 살펴보면 9월이나 10월중에 도성밖에서 대열을 행하되 강일(剛日)로 정하고 기일전 11일에 병조에서 대열교지(大閱敎旨)를 받은후에 장수(將帥)를 정하고 팔도(八道)에서 군사를 선발하며 대열장소에 풀을 베어내고 터를 둑는데 한쪽길이가 1200보(步)(약 1200M정도로 추정됨)씩으로 하여 정사각형(正四角形)으로 만든다.

이터에 네 군데에 군문(軍門)을 내는데 화문(和門)이라고 칭(稱)하였다. 이터 안에 동,서에다 보병(步兵)과 기병(騎兵)을 나누어 두개의 진영(陣營)을 만들어 서로 마주 보게 하며 한 가운데에 300보의 거리를 두게하고 50보마다 표(標)를 한줄로 세우는데 5줄이 되게하고 표와 표사이가 50보가 되게하여 군사들이 나아가고 멈추는 표준이 되게 하였다.

대열장 북쪽에는 별도로 단을 남향으로 만들어서 기가가 머물러 서 볼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대열 이를전에 대차(大次)와 어좌(御座)를 그 가운데에 설정하고 소차(小次)를 대차의 동쪽에다 설치하는데 땅의 형편에 따라 설치하고 왕세자(王世子)의 막차(幕次)는 소차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동쪽으로 불이고 서향으로 설치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백관이 절 할 자리(壇所)는 대차의 남쪽에 설치한다.

대열 하루전에 장수와 사졸들이 갑옷과 병장기를 갖추고 단소앞에 모여 각 방위에 따라 깃발을 세워서 화문을 만들고 대장이 지휘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이한다. 당일에는 각기 진(陳)의 위치에 정렬하고 거가(車駕)가 단소앞에 이르면 병조판서가 갑주차림으로 말을 타고 도단소 북쪽화문으로 들어가서 소차 앞에서 말을 내려 막차로 들어가 대기하고 왕세자가 막차로 들어오면 종친이하 문무백관이 대차의 남쪽문으로 들어가서 문관은 동쪽에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게 하는데 가운데가 상위계급이 서고 관위(官位)에 따라 여러줄로 서게 하였다.

왕세자가 갑주를 갖추고 막차에서 나오면 맨앞 자리에 서게 하고 왕이 금갑주를 입고 소차에서 나와 대차에 자리하면 통찬의 령에 따라 모두가 사례한다. 장률들은 중군장(中軍將)이 기를 높히면 군사들은 그진에서 북향하고 사례를 한다. 중군장이 기를 들면 기병은 말을 타고 보병은 일어난다. 이것이 끝나면 병조판서가 동편 쪽에 서향하여 자리한다.

이때에 왕세자가 맨앞에서고 시신들이 왕의 관로(觀路)동,서로

나뉘어 서는데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선다. 시신(侍臣)들의 10보 밖으로 관위(官位)에 따라 여러줄로 북쪽을 위로 하여 서게한다.

대각(大角)을 세 번 불면 두편의 중군장이 각기 비를 들어 북을 치게하면 두편의 군사가 북을 두드린다. 유사가 기를 높히면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끓어 않는다. 두편의 장수와 상호군 이상이 중군대장 기고(旗鼓) 아래 모이는데 좌편 중군대장은 기고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여려 군장(軍將)은 기고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고 서되 동쪽을 위(上)로 하여서고 우편 중군대장은 기고의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여려 군장은 기고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는데 서쪽이 위(上)가 되도록한다. 이때에 대장이 맹세하기를 "이제 대열(大閱)을 시행하여 사람에게 전투를 가르친다. 나아가고 물려가고 원편으로 가고 오른편으로 가는 것은 일체 군법과 같이하여 명령대로 하면 의당한 상(賞)이 있고 명령을 어기면 의당한 형벌(刑罰)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여 힘쓰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맹세하는 서사(誓詞)를 한다. 맹세가 끝나면 좌우군의 사후(司候)각 두사람이 방울을 흔들고 순행하면서 여려 사람에게 서사를 들려주고 여려 상호군이 모든 군사에게 서사를 알려주고나면 북을 친다. 유사가 기를 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모두 행진하여 풋말에 이르면 징을 쳐서 기병과 보병을 정지 시킨다. 또 세 번 북을 치면 유사가 기를 높히고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끓어 않는다. 또 북을 세 번치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기병은 달리고 보병은 뛰어서 풋말에 이르면 그곳에 정지하여 열을 정돈하고 자리를 정한다. 동시에 양군이 오행에 의해 서로 이기는 법칙에 따라 각기 진을 짜서 응전(應戰)하는데 매양 진형(陣形)이 변할때마다 각자 창칼과 방패를 가진 50명씩을 뽑아서 양군 앞에서 싸움을 돋우는데 제1차, 2차는 번갈아서 용감하고 겁내는 형상을 짓고 제3차 싸움때는 상대와 균형을 이루는 형세를 짓고 제4차, 제5차로 싸움을 돋울때는 이기고 패하는 형상을 지어

서 5진이 끝나면 양군은 모두 직진(直陣)을 한다. 이때 북을 3번 치서 유사가 기를 늘히면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끌어 앉는다. 다시 북을 세 번 치고 유사가 기를 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보병이 달려 나가면 기병이 망을 달려 쫓아가서 좌우군이 중간 풋말에 이르러 서로 대적하여 치는체 하다가 각기 진영으로 돌아간다. 매양 돌아갈때는 일행에 풋말에 이르기를 전과 같이 하여 그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서로 치는 것 같이 할 때는 양편군사 모두가 찰날이 서로 미치지 아니 할 뿐아니라 보병이 쫓아가고 물러날때에도 중간 풋말에서 20보를 지나서 그쳐야 한다. 이러한 군사훈령이 끝나면 판통례가 끊어 앉아 대열의 예가 끝났음을 아뢰면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차로 들어가서 금갑옷을 벗고 왕세자도 막차로 들어가서 갑옷을 벗고 병조에서 교지를 받은 군사 이외에는 백관(百官)이 모두 갑옷을 벗는다. 임금이 평상복으로 다시 대차로 돌아와 자리하면 다삼(茶床)을 반들어 올리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판통례가 끊어 앉아 환궁하기를 계청(啓請)하면 환궁할때에 의식은 올때에 의식과 같이한다.

세종8년 9월24일 상기와 같은 대열의주에 따라 동교(東郊, 정금원으로 추정)에서 9천7백여명의 군사로 행(行) 하여진 대열의 최후에 승자는 좌상군이 이겼고 우상군이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좌상군이 쇠(金)소리를 듣고도 물리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임금이 “북을 울리면 친군하고 쇠를 울리면 뢰군하는 것이 군중(軍中)의 상법(常法)이거늘 이제 사졸들이 물리가지 않는 것은 병법(兵法)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일(前日)에 미리 연습한 본의(本意)가 어디있는가?” 하고 병조에 계(啓)를 받아들여 명령을 어긴 죄를 물어 유사(有司)에 의하여 국문(鞫問)하도록 결정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군의 기강을 세우는데 있어서 초 강경책을 고수한 것이라 하겠다. 이후에 세종실록에는 대열을 한 기록이 없는데 세종 30년 7월3일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년9월에 대열(大閱)하

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내가 즉위한 이래로 다만 세 번 행하였다”라는 실록과 세종30년 7월11일 실록에는 잡인년(세종8년 9월24일) 이래로 행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세종1년 11월3일 상황인 태종과 강원도에서 대규모로 강무한 것을 대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세종1년 10월29일 실록에 의하면 병조에서 대규모 열병을 전의하였고 왕이 대열을 윤허한 기록을 참고하고 동년11월3일 기록을 살고 하여보면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호종(扈從) 하였고 백관(百官)이 호종한 기록이 있고, 또 말이 만여필이고 시위 패가 2000여명이고 별군 별패가 수천명이며 삼군의 장수를 6명이나 임명한 것을 참작 하거나 말이나 군사의 수호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인하여 대열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광주(廣州)에서 갈무한 기록이 많은데 그중에 세종3년 5월18일에 상왕을 모시고 대규모의 오위의 진을 크게 대열한 기록을 들 수 있겠다. 이때에 오진(五陳)은 세종이 직접 그런 새로운 진법에 의하여 그려진 새 진도(陳圖)를 변계량이 참고 하고 연구하여 만든 오진법(五陳法)으로 이날 최초로 크게 대 열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3년 7월9일 병조에서 오위에 적합한 진법과 운용에 대한 오진법을 정하고 왕의 재가를 받은 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진법에는 중위에서 각을 불고 북을 치면 각위가 정돈하여 준비를 갖추고 다시 각을 불고 행진 신호로 북을 치면 좌위(右輅)가 먼저 나오고 다음은 전위, 다음엔 중위, 그 다음에는 후위가 그리고 좌위의 순으로 나오게 하고 네위(四輅)가 각기 관기(官旗)를 세우고 천천히 행진 하다가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행진하고 셋소리를 들으면 정지한다. 급한일이 있으면 푸른기는 앞을 가리키고 흰기는 뒤를 가리키며 빨리 행진하라는 신호의 북이 울리면 좌, 우위가 자기 밤위에 나아가 정지하여 진(陳)을 치고 적군을 대기 하는데 가로(橫)서고 바로(直)서는 항오(行伍)는 지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결진법은 중위에서 각을 한번불면 네위의 후소(後所)에서 기병이 먼저 나와 사방에 분포하여 5개의 기가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다섯위가 진을

이룬다. 이때에 중위는 동글(圓陣)고 좌위는 곤(直陣)고 전위는 뾰족(銳陣)하고 우위는 모(方陣)나고 후위는 굽은(曲陳)진을 이루한다. 기병이 첫소리를 들고 진안으로 들어오면 중위의 5개의 기가 모두 놓고 복이 울리고 흰기가 달려지면 다섯위가 각기 방진(方陣)을 이루는데 우위는 본진 그대로 있고 중위의 5개의 기가 합쳐지고 복이 울리면서 흰기가 달려지면 네위가 중위에 합하여 방진(方陣)을 이루고 네위는 각기 사면에 늘어서서 팔문(八門)을 만들고 각기 그 방위 빛갈의 기를 세우고 중위는 원진(圓陣)으로 늘어서서 사문을 만들고 각기 수기를 세우며 내문과 외문에는 기병(跳饗)이 이를 수비한다. 중위가 다섯 개의 기를 놓히고 판기만 세우며 중위에서 검은기가 달려지고 복이 울리면 방진을 곡진으로 만들고 푸른기가 달려지고 복이 울리면 곡진을 변하여 직진으로 만든다. 붉은기가 달려지고 복이 울리면 직진을 변하여 예진으로 만들고 누른기가 달려지고 복이 울리면 예진을 변하여 원진으로 만든다. 푸른기와 붉은기가 합쳐지고 복이 울리면 전위와 좌위가 합하여 한 개의 진이 되어 원쪽에 있고 횡기와 검은기가 합쳐지고 복이 울리면 우위와 후위가 합쳐 한 개의 진이 되어 오른쪽에 있으며 중위는 스스로 한 개의 진이 된다. 모든 진의 면(앞)에는 대오를 지어 늘어서고 (방쾌병) 다음은 창(槍), 장검(長劍), 그다음은 화통(火筒), 궁노(弓弩), 다음은 기창(騎槍), 기사(騎射)가 그 진(陳) 안에 포열되고 안과 밖이 모두 그렇게 한다. 다섯위가 오색(五色)의 장(章)이 있으니 중위의 누른장(黃章)은 원경(圓徑)이 오촌(寸)인데 웃깃 앞에 달고 전위에 붉은장(赤章)은 삼방형(三方形)이니 길이가 7촌(寸)인데 배(腹)에 달고 좌위에 푸른장(青章)은 길이가 8촌(寸) 넓이가 3촌인데 원쪽 어깨에 달고 우위의 흰장(白章)은 사방이 사촌인데 오른쪽 어깨에 달고 후위의 검은장(黑章)은 곡면이 6촌인데 등에 달게 되며 각기 위호와 각 소(所)와 각대(隊)의 칭호를 쓰고 아울러 인수 까지 그려 봄인다. 다섯위에는 각

기 다섯 소(所)가 있는데 군졸 한명이 6척(尺) 간격으로 서고 마병은 그 간격이 배가 되게 하고 5명씩 대오(隊伍)를 결성하는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결성하여 오(伍)가 되게 하고 오 가운데 장이 있으며 10명이 소대(小隊)가 되며 그중에는 장(長)이 있으며, 25명이 중대(中隊)가 되고 중대에는 정(正)이 있으며 50여명이 대대(大隊)가 되고 대대에는 교(校)가 있다. 50여인이 그 마음을 결합(結合)하여 행진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그 대에서 모두 의부(依附)하게 하고 싸울 때에는 5명씩 5명씩 서서 장교가 뒤에서 싸움을 독려한다. 결전하는 법은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군사의 수효가 많을 때에는 64명에 까지 이르게 되고 모두 때에 따라 형세에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요(大要)는 오행(五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 1) 적군과의 응전(應戰)하는 법이니,

중위에서 복을 한번치면 여러 위(輜)의 유군(遊軍)의 사후가 나아가서 중군의 영(營)을 받고 여러 위(輜)의 유군(遊軍)이 먼저 사방으로 나가서 적군을 망 보고 각(角)을 불어 그 위에 알리면 그 위에서 각을 불면 중위에 보고 하게 되고 중위에서 각을 불고 검은 기가 앞을 가리키면 복이 울리면 후위가 먼저 나가서 적군을 대적 할 것이며 붉은 기가 앞을 가리키고 복이 울리면 전위가 먼저 나가서 적군을 대적한다.

다른 위도 이를 모방하여 <기 빛갈에 따라한다> 한위가 먼저 나가면 다른 위도 군사를 내어 구원하게 되는데 모두 중위에 기를 세우고 복을 울리고 각을 부는 절차에 따라 응(應)하게 되며 만약 사면에서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각기 그 위에 기를 세우고 복을 울리고 각을 부는 절차에 따라 싸우게 되며 중위는 병력을 나누어서 가서 구원 하게 한다. 출병하여 적군과 응전하는 군사는 일제히 나아가서 10보(步)까지 가서는 흘어져 서며 기마병도 또한 50보 까지 가서는 정지하고 싸우게 된다. 적군이 패하여 달아나면 복

과 각이 합하여 울려지고 기마병이 나가서 추격하는데 유군과 보졸은 사면에 포열(布列)하여 마병을 구원 한 뒤에 그 위치로 돌아가며 추격 할 때에는 항오(行伍)를 잃지 않아야 되며 첫소리를 들으면 그치고 【정을 한번 치면 싸움을 늦추고, 두 번치면 싸움을 그치고 세 번 치면 뒤로 돌아 서고 네 번 치면 물려오고 다섯 번 치면 급히 물려온다.】 북이 급히 울리면 다시 나가서 급히 공격하는데 만약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여 후퇴 하였다가 다시 싸울 계획을 하면 각 위에서 항오를 잃지 않고 결진(結陣)하여 물려나며 좌위와 전위의 유군, 마병, 보병이 한 대가 되어 뒤에서 적군을 막아 하면서 돌아오며 첫소리를 듣고는 그치며 기를 보면 진을 치고 수비하게 된다. 만약 중위가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진을 옮겨 적군을 대적하는 것과 산골싸기의 싸움이라든가 수풀속에 싸움, 물을 대는 싸움, 불로서 공격하는 싸움 등의 방법은 주장(主將)이 적군을 헤아려 기략(機略)을 세우고 형편에 따라 승산(勝算)을 마련하는데 달려 있으니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

#### ① 교장(教場)의 법인데,

사표(四表)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물려가는 것은 중위에서 각을 한번 불면 다섯 위의 기를 든 사람이 각기 그 방위(方位)로서 기를 전장(陳場)에 세우고 중위에서 북이 울려지면 다섯 위에서 군사를 정돈하여 각기 그 기 아래에 나가서 진을 치고 이를 마치고서, 【진을 치고 천천히 행진 할 적에는 보병이 앞에가고 기병이 뒤에 가며, 빨리 갈 적에는 기병이 앞에 가고 보병이 뒤에 간다.】 중위에서 북이 울려지고 기가 일어서면 다섯위가 모두 일어나고 북을 쳐서 행진 할 것을 신호하면 기병은 달리고 보병은 쫓아가서 제3표에 이르러 쇠를 치고 기를 내리면 이에 그치고 모두 앉게 된다. 북이 또 울려지고 기가 세워지면 다섯위가 모두 일어나고 북을 쳐서 행진할 것을 신호하면 기병과 보병이 모두 빨리 달려서 제4표에 이르러 쇠를 치고 기를 내리면 이에 그치고 모두 앉게 된

다. 다시 기를 세우고 각을 한번 불고 북을 치면 기병은 한번 돌려서 달리고 보병은 한번 돌면서 싸우는데 세 번을 하고서 그치게 한다. 쇠를 한번 치면 싸움을 늦추고, 두 번 치면 싸움을 그치고 세 번 치면 뒤로 돌아서서 행진 하여 제3표에 이르러 이에 그치며. 앓고 일어나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며【다만 제4표를 향하여 돌아서고 일어서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하 모두 이를 모방한다.】 쇠를 네 번치면 빨리 물려나서 행진하여 제2표에 이르러 그치며. 앓고 일어나는 것은 처음과 같이 하며 쇠를 다섯 번 치면 급히 물려나서 행진하여 제1표에 이르러 그치며 앓고 일어나는 것은 처음과 같이한다 각을 한번 불고 쇠를 다섯 번 치면 다섯위가 급히 진(陳)에 나가서 각기 그 문(盾)에 돌아가게 된다. 【군사가 전진 할때에는 북을 치고 물려날적에는 징을 울린다.】 군사들을 출동 시킬적에 중위에서 전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흔들면서 영( 슈 )을 내리 기를 무릇 진(陳)에 있는자는 기(旗)와 각(角)과 쇠와 북의 절차를 따라 앓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려나서 모두 그 차례를 잊지 말고 떠들지 말고 문란하게 굴지 말아서 병법(兵法)을 범(犯)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섯위가 모두 앓아서 영( 슈 )을 듣는 데 마땅히 앞으로 나아갈 것 인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와, 뒤로 물려날 것인데 물려나지 않은자와 앞으로 나아가서는 않될 것을 나아간자와 뒤로 물려나서는 않될 것인데 물려난자와 제 마음대로 원쪽과 오른쪽을 가는 자와 장복(章服)을 입은자 등은 주장(主將)에게 알려서 목을 베며, 5인중에서 2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3인을 처벌하고 소대(小隊)에서 4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6인을 처벌하고 25인이 되는 대(隊)에서 8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전체의 대를 처벌하고, 5인을 잃고 5인을 찾은것과 장(長)을 잃고 장(長)을 찾은것과 장(將)을 잃고 장(將)을 찾은 것은 상쇄(相殺)시키고 5인을 잃기만 하고 5인을 찾지 못한것과 장을 잃기만 하고 장을 찾지 못한것과 장수(將帥)를 잃기만 하고 찾지못한 것은 처벌하고 5인을 찾고 5인을 잃지 않은것과 장을 찾고 장을

잃지 않은것과 장수를 찾고 장수를 잃지 않은 것은 상(賞)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하여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4. 대열의 필요성과 경제.

세종은 항상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구들을 경계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는데 진 평화시대에 군사들의 군률과 기강(紀綱)에 이를 지적하고 대열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록이 많이 있다.

세종3년3월28일에는 대열을 준비하는데 따른 군사들을 진법이나 대열에 의거에 따른 훈련을 명(命) 하였으나 이를 거행하지 않은 병조정랑 정인자, 병조좌랑 구강, 전무(鎮撫) 이영 등을 상왕의 명으로 하속시킨 일이나, 세종3년7월28일에는 상왕(태종)이 대열(大閱)하고자 하여 각도(各道)에 진법(陳法)에 익숙한 훈도관을 여러 도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8년10월3일 대열때에 좌우상 이던 활찬 최윤덕, 판서 조비형, 도총제 이순봉, 총제 황상등을 처벌하라는 사간원의 중론이 상소로 이어졌으나 윤허하지 않았다는 기록등을 참고하여 보면 대열은 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목적과 위용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대열 의거에 따르는 법의 준용과 병법의 정확한 숙지와 이해 그리고 숙련된 무예등을 골고루 점검하였던 것 같다.

특히 군율의 지엄함이 배어 나와야 하였고 군사들을 지휘통솔하는 장수의 통솔과 통이동과 대열의 전략이나 전술이 중요시 되었으며, 군사들을 조련시킨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표출되어 교법에 의한 융전태새와 실전 전투능력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 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리므로 기대 하였던 군사조련의 효과가 낮게 평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열 당시에 지휘부에서 오위(五位)에 최고 사령탑으로 참

여 하였던 신료들에게는 책임에 걸맞는 죄를 물어 후네에 경계함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대열이 실전에 버금가는 전투태세 완비를 목표로하고 있으나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경비와 수만의 군사들을 한곳으로 집결시킴으로서 전국 각지역의 분산되었던 군사 주둔지에 대한 경계가 해술하여 지는 폐해와 정규군 이외에 정규군에 서너배에 가까운 솔종(率從)들이 차출도 힘들었을 것이고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열이 행하여 지면 엄청난 농산물의 피해가 속출되어 조정에서 보상 하였으므로 일부 신료(臣僚)들은 대열 효과에 대한 회의론과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민폐를 이유로 대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세종때에도 많은 신료들이 대열은 유희에 가까운 훈련이므로 별 효과가 없지 않으냐? 하는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대열은 육전(六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화포의 조작방법과 그 위력을 시험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전시에 전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장수들로 하여금 옛날의 전법에 수련과 새로운 전법을 터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세종15년 7월4일 관중추원사 하경복, 형조판서 정흡지, 예문관대제학 정초, 병조우참찬 황보인등이 진서(陳書)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행진과 결전, 군령, 응적으로 나뉘어 아주 소상하게 설명 되어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진서보다 군령부문에서 더욱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기술(記述) 되어있다. 군령대로 따르지 아니한자는 참수하고 휘장이나 복색이 없는자, 군사기밀을 누설한자, 군을 배반하고 달아난자는 목베이고,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자는 가산(家產)을 몰수하고, 항열이 정제하지 못한자, 깃대, 깃발이 바르지 못한자, 쇠와 복을 울리지 않은자, 적군과 사사로이 내용한자, 주장을 않은자는 목베인다.

기(旗)와 북(鼓)과 절(節)과 월(鎗)을 잃은자는 그 부대원 전원을 목베며, 어려운 경우에 구원하지 않은자, 괴상한 말에 헛되이

혹하고 음양설과 점치는 말을 망령되어한 자, 까닭없이 군을 놀라게 한 자, 다섯가지 병기와 군의 장비를 유기한자, 장교와 군속으로 직무의 불공평한 것을 사정을 써서 서로 용서 하여준자, 강포한 힘으로 약한자를 짓누르거나 노름하다가 분해서 싸우거나 술주정으로 야료를 부리어 고약한 육설로 무례하게 굴고 사리에 순응하지 않은자, 군중에서 수레를 달리거나 말을 달리는자, 적군을 부수었을 때 노략질을 한자, 지키고 포위하는데 견고하지 못한자, 밤시각을 지키지 못하고 밤중에 다니다가 군호를 잃고서 단집에서 유숙한자, 파견함에 불복하거나 직무에 말김에 불평하는자, 백성을 침해하고 속이거나 민간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부녀자를 배리고 영문에 들어온자, 주장의 한때의 명령이라도 위반한자는 목 베인다는 초 강경의 군령이 확정 선포되었다. 또 오(伍)에서 두사람을 잃으면 구제하지 않은 세사람을 벌하고, 소대에서 네사람을 잃으면 구제하지 아니한 여섯사람을 벌하고, 25인의 대에서 8인을 잃으면 구제하지 아니한 전원을 벌한다. 오를 잃었어도 포로로 오를 얻었거나 장(長)을 잃었어도 적장(敵長)을 얻었거나 장수(將帥)를 잃었어도 적 장수를 얻으면 공, 과를 상쇄하여 그대로 두되, 오를 잃고 얻지 못 하였거나 장을 잃고 장을 얻지 못 하였거나 장수를 잃고 장수를 얻지 못하였으면 벌하고 오를 잃지 않고 오를 얻은 오(伍)와 장을 잃지 않고 장(長)을 얻은장과 장수를 잃지 않고 장수를 얻으면 상을 준다는 엄한 군령의 시행으로 군기가 잘하고 서슬퍼런 군률이 제대로 서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군대가 군령에 의하여 군률이 제대로 서고 기강이 확립 되면서 확실하게 대오가 정돈되게 되면서 세종시대에는 팔목할만한 군사적인 폐기가 이룩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 위세로 대마도(對馬島) 정벌(征伐)이라든가 사군(四郡)과 육진(六鎮)의 개설로 국위(國威)를 만방에 펼치고 태평성세를 이어가자 신묘들 사이에는 이런 저런 광계로 대열을 반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보인다. 특히 한재(旱災)나 홍수(洪水), 또는 태풍(颶風)이나 흉년(凶年)에는 어김없이 대열의 중단을 요

구하였고 왕도 어찌 할수없이 대열의 중단을 가납(加納) 하였던 것이다. 대열에 대한 기록중 세종31년8월16일 이조판서 정인지, 친현전 부제학 정창손등이 가정군(加定軍)의 징집을 연기 하도록 주청하자, 세종은 우리나라 인심은 오로지 고식에만 일삼아 정부 대신들 까지도 모두 강무(講武), 대열(大閱), 영초(饋瞭), 총통(統簡) 등 군사(軍事)에 관계된 일은 폐단이 백성에 미친다 하여 미리 준비하려 들지 않지만 내가 무비(武備)는 군국(軍國)의 중대사(重大事) 이므로 비록 작은 폐단(弊端)이 있더라도 진실로 폐(廢)할수 없는 것 이기에 무사(無事)한 때를 당하여 반드시 예비 하여야 되겠다. 이번에 중국의 성식(聲息)으로 인하여 민정(民丁)을 징집해서 군병을 실(實)하게 하려 하였는데 민간의 소요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내 장차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한 말씀중에 당시에 임금으로서 국방문제에 대한 번민과 고뇌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열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으며 세조때에 이르러서는 전성기를 맞게 되어 규모가 정규군이 삼만여명에 솔종이 판구만등을 합하면 11-12만여명이 정금원에서 몇일을 쉬임 없이 전투력 점검을 하는 전대미문의 큰(大)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세종은 군사들의 조련 이외에도 신속한 군대 이동을 위하여 노심 초사한 부분이 눈에 띠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2년9월15일 마전도에 배를 만들어서 배다리(舟橋)를 완성한 이튿날 세종2년9월16일에는 “태종비 빈전(賓殿)에서 견전(遣奠)을 지내고 거가(車駕)가 현릉으로 행차할때에 평지길을 밟듯이 하였다. 처음에 박자침이 부교를 만들기를 청하여 상왕이 그말을 풀으니 사람들이 안 될일이라 하더니 이제와서 온 나라가 칭찬하며 감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획기적 이동수단 이었던 것이다. 또 한 기록에는 배다리를 구경한 인파가 만(萬)여명 이라는 기록도 있으니 대단한 공사였던 것이다.

한강에 주교(舟橋)는 태종조에도 시도 하였으나 전실하지 못하여 실용 가치가 없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세종에 결단

에 의하여 훌륭한 배다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민간은 물론 군사작전에 대변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배다리는 지금의 부교를 만드는것과 유사하다고 생각 되는바 이미 600여년전에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부교의 기술의 전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배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개발하여 만들었다고 전해 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조때에 암록강에 부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세종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배다리를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의 지명에도 천하여 오는곳이 채나 많이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세종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기본틀을 유지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여 조선 오백년의 기틀을 마련한 임금으로 추앙 받는 것도 이와같이 다방면으로 국방에 관한 일이면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귀 기울여 듣고 세종 스스로 생각하고 주위에 대소 신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므로서 좋은 병서와 병법을 길이 후세에 남기는 폐거를 이루하였다. 세종의 이러한 노력은 문종에게도 이어져 문종원년6월19일에는 문종이 스스로 지어낸 장문(長文)의 신진법(新陳法)을 수양대군 및 김종서, 정인지 등에게 교정(校定)하도록 하여 이날 완성되었다.

이러한 임금들의 의지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따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서 종묘사직의 백년대계를 이루할 수 있는 계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문종은 수양대군을 비롯한 신료들과 부국강병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화야인들의 대책 수립에 노력하면서 지은 시를 소개하면 “삼공안상연류진(三公案上硯留塵삼공의 책상에는 먼지 않은 벼루가 놓여있고)어사존전화암배(御史輩前花映杯어사의 술통앞에는 꽃이 비친 잔이 놓여있네)”라고 지었으니 태평성세에 무사안일을 모집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전쟁이 없이 긴 세월을 태평성대로 살아 가노라면 언제나 무사대평 하리라는 타성에 젖어 군사(軍事)가 어지러워 지며

군들이 제대로 서지 않고 기강이 해이하여 지는 것은 다반사였다.

세조4년9월2일 세조는 전라도 관찰사등에 명하여 대열에 대비하여 군대를 징집하여 올려 보내라는 전교를 내렸으며, 동년9월23일에는 대열에 대한 논의를 병조의 원로와 병조참판등과 논의하였다. 동년9월25일에는 대열의 진법등에 관하여 강(講) 하였으며 동년9월26일에는 동교에 있는 낙천정(지금의 자양동446번지)에 이르러 대열을 행하였다.

이때는 중궁과 세자등도 임금을 수종(隨從)하여 대열에 동참하였다.

세조5년10월10일에도 화양정(華陽亭) 일대에서 대열한 기록이 있으며, 대열후에는 곧바로 충주 은정(溫井)으로 휴양을 여난 기록이 있음을 볼 때 대열은 참여하는 군사들도 힘들고 피곤하였겠지만, 임금도 피로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6년9월26일 총 2만 8천1백15인의 병력으로 대열을 행하였으며, 동년 10월13일에는 병조판서 이극배와 대열에서 실수가 없었던 우상대장 이철전에게 안구마 한필을 내려 포상하고 병조참찬 한치례, 병방승지 유권과 실수가 없었던 각 위장 6인에게 숙마(熟馬) 1필씩을 내려 포상 하였으며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급을 올려주고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다. 성종은 성종8년2월18일에는 낙천정(樂天亭)에서 종친(宗親), 백관(百官)과 제장의 군장(軍裝)을 점검하는 대열을 친히 거행하였으며, 성종8년 10월3일에는 광주의 정금원에서 삼상(三廡)으로 하여 교전하도록 하는 대열을 하였으며 저녁때에는 낙생역앞 파오달에 이르렀다. 성종은 성종19년9월24일에도 좌의정 홍옹을 대장으로하여 살곶이에서 대열을 하였으며, 성종20년9월28일 좌상대장 이철전과 우상대장 이숙기를 좌,우상 대장으로 삼아 살곶이에 거동하여 낙천정에서 대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살곶이를 건너서 낙천정에서 대열을 하였다면 낙천정을 지나 정금원들에서 대열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세종조 이래로 정금원에서 대열을 하였으며

그많은 군사들이 습진법을 익히기에는 낙천정이 있던 자양동 일대로는 면적이 부족(不足)하였으며 살곶이와 낙천정 일대에는 양창(糧倉)이나 무기창고(武器倉庫)가 없었던 때문이다. 또 한가지 이유로는 여지도(輿地圖) 광주부(廣州府)편에는 정금원평 북쪽 시작 지점인 삼전도(一名 麻田渡)에 잡사창(甲士倉)이라는 무기창고와 마소에 먹일 마초(馬草)창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많은 무기와 마초를 수송(輸送)하기가 당시 수송 수단으로는 대단한 난제(難題)였을것이고 또 세종초와 성종초에 정금원에서 대열을 한 기록이 있기에 정금원에서 행 하였다고 본다. 연산10년10월2일에도 광주 정금원평에서 대 열병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열의 장소로는 정금원평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정금원평은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이고 수많은 인마에게 먹일 식량과 마초의 창고가 있고 병장기의 제조창과 무기창이 있어서 훈련장으로 운송이 편리하였던 이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금원평은 말을 다루는 목장이 있었음이 실록에 기록 되어있고 농경지가 아닌 목초밭(草場)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둔전으로 개간이 시작된 것은 선조27년9월22일 이후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대열 후에는 임금을 비롯한 문무(文武) 백관(百官)들이 수렵을 하였던 전례가 있으므로 청계산과 문현산에 있던 사장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였고 수렵후에는 통신이 편리한 낙생역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숙영을 하기에 편리한 파오달(波吾達)이 있고 임금의 전유물인 낙생행궁(樂生行宮)에서 숙식하기가 편리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대열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5-6일이고 길게는 10여일이 넘었다는 것이 세종실록에서 입증 되었으므로 역(逆)으로 그 규모를 산정(算定)하여 가능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성종6년9월26일 기록에는 2만 8천1백15인의 군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연산10년8월27일 대열 준비를 위한 일로 명조관서 임사홍이 아뢴 것을 보면 “정병이 삼만이요 솔종(率從보급을 위한 노무대)이 팔.구만이나 됩니다.”라는 기록으로 계산 하여보면 대열시에 필요한 사람의 수효는 줄잡아

11여만명 이상으로 계산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열은 국가적인 대사업이요 중차대 한 대사(大事)였으므로 정부의 만조백관 모두가 실사숙고(深思熟考)하여 주청(奏請)하고 의논하여 국가의 이익을 제고(提高)하여 정리(整理)하였던 것이다.

농경국가에서 11-12여만명이 10여일을 계속 훈련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랐음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라.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과 솔종들은 고된 훈련인 만큼 잘 먹여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문무 백관과 시종나인들과 고위 벼슬아치들을 따라나온 상노들까지, 그들이 먹는 식량만도 쌀 한가마로 30-35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대충  $115000명 \times 33명$ 이면 한끼에 약 350여가마 이상이 소요되므로 하루에는  $350 \times 3 = 1050$ 가마  $\times 10$ 일이면 1만5백가마의 곡식이 필요하다. 당시의 농사짓는 방법으로는 한마지기(약 200평)에서 쌀 두가마 정도를 수확하였으니 당시로서는 상답(上畜) 약 110만여 평에서 거두어 들인 쌀을 일시에 소비하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 것이였다. 쌀뿐이 아니고 국을 굶이는데 필요한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과 무와 배추 같은 야채의 수요가 어마어마 하였을 것이다. 그외에도 뱃감으로는 장작을 주로 사용하였다는데 기록이 있으므로 계산 하여보면 쌀 한가마 밥을 하는데는 장정의 짐으로 한짐이 들어가니까 하루에는  $350 \times 3$ 끼 = 1050여 짐이 들어가고, 10일을 곱하면  $1050 \times 10$ 일 = 10,500짐이 되는데 당시에 운반수단은 마차밖에 없는데 1마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량은 2평(한평 6짐) 즉 12짐이 최대치이므로  $10,500 \div 12 = 875$ 마차가 필요한 것이다. 마차를 끌 소나 말의 수효도 결국은 875마리가 된다. 위에 숫자는 사람에 국한된 수치이고 기마병들의 숫자가 얼마나에 따라서 수많은 말을 포함한 마소(馬牛)에 먹일 마초(馬草)와 곡강(穀糠)의 가마니를 운반 하여야 할 마소의 수효를 포함하여 끼니 때마다 죽을 쑤어 주고 여물을 삽아줄 뱃감의 소모량 또한 엄청나게 많은 수치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소모품

들도 쌀 소비에 견줄만 할 것이다. 그외에도 화포에 소용되는 화약과 염초등의 구입비용과 병장기를 새로 만드는등 이에 따르는 소모품들을 만들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포함하면 당시로서는 혜아리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수치의 경제 손실을 감수 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대일 때마다 이런 저런 평계를 대면서 대일의 중지를 주청한 신료들이 많은 이유도 경제적인 연유에 기인(基因) 하였다고 볼수있다. 대일의주(大閱儀註)에는 매년 추수가 끝난후인 초겨울에 대일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에 안위(安危)에 문제가 없음을 빙자하여 대일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청한 신료(臣僚)들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충체적 위난에 대비를 소홀히 하여 엄청난 대란을 몇번씩 겪어야 하였던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가 얼마나 비통(悲痛)한 것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대목인 것이다. 세종께서 이복하신 대일의주나 진법이 날로 시대에 맞게 변형(變形)되면서 문종조에 이르러 신진법(新陳法)이 만들어 졌고 세조와 성종, 연산군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일을 실시하므로서 군사(軍事)를 굳건히 하였다. 또 장병들로 하여금 전투력의 향상과 장비의 사용방법과 전을 구축하는 방법등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하여 주었다. 또 소속된 대, 소 오, 항등의 조직을 익힐으로서 전우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훈련 하였으며 소속장병과 능동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대일때에 어떠한 병장기와 화포를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은 실록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선조때 임진왜란 당시에 삼남도체찰부사(三南都體察副使)로 수군을 전관(專管)하여 판옥선(板屋船)을 제조하여 이순신(李舜臣)장군이 해전에서 승리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등 임진왜란을 몸소 경험하고 광해왕때에 좌의정을 지낸 월단(月灘)한효순(韓孝純)이 저술한 신기비결(神器秘訣)이라는 책에 매우 상세(詳細)하게 나와 있으므로 살고하고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책은 임진왜란을 경험하며 군인들이 부족하였던 화기(火器)

에 대한 기술을 터득(據得)하고 화포에 대한 실전능력(實戰能力)을 익혀서 실전에 부입(投入)하기 위한 화약과 화포를 다루는 최고의 전투지침서(戰鬪指針書)로 평가 받는 책이다.

내용의 상당부분은 최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와 고려때부터 전하여온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병서들을 참조한 것으로 평가 받는데 조선 초기부터 전래된 화기학이 집대성된 책이라고 할수있다. 책에 이크기를 대포의 종류에는 천자총(天字銃), 지자총(地字銃), 현자총(玄字銃), 황자총(黃字銃), 불랑기(佛狼機), 조총(鳥銃), 쌍안총(雙眼銃), 백자총(百字銃), 대승총(大勝銃), 차승총(次勝銃), 소승총(小勝銃), 우자총(宇字銃), 주자총(宙字銃), 홍자총(洪字銃), 황자총(荒字銃), 일자총(日字銃), 영자총(盈字銃), 오자총(吳字銃), 등 18가지의 총통이 기술되어 있으나 조총(鳥銃)의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에 활복 귀순하였거나 포로로 잡혀와 귀화한 항倭 들에 의하여 조총에 대한 제작기술이 전수(傳受)되었다고 전하므로 대열 당시에는 확실히 없던 총통(銃箭)이다. 조총을 제외한 총통들의 위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신기비결을 상고(詳考)하고 고찰(考察)하여보면 천자총은 일회사용 화약이 30냥중(兩中)이고 지자총은 20냥중이며, 현자총은 4냥중을 사용한다. 황자총은 3냥중을 불랑기는 9문 모두에 각각 2냥중씩을 넣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총은 2전(錢), 쌍안총은 좌,우에 각 3층씩 6개층인데 매층마다 2전씩 넣고, 백자총은 1냥을 넣으며 대승총은 매 1문에 6전을 그리고 소승총은 2전 또는 2전 2-3분을 넣는다. 우자총은 2전반을 넣으며 주자총은 2전을 넣고 홍자총과 황자총, 일자총은 2전의 화약을 넣는다. 영자총과 오자총은 1전 5분의 화약을 넣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번에 냥중 이상의 화약이 들어가는 총통은 대포이고 전 이하의 화약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으로 분류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화포의 조작기술을 완벽하게 습득(習得) 하여야만 전시에 유효 사정거리와 효력사(效力射)에 대한 전투기술을 완벽하게

발휘(發揮)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총을 다루는 솜씨를 익히는 것은 지휘장수나 장교와 각개 병사의 몫이므로 각자가 피나는 노력으로 숙련하여야 하였다. 그외에도 장교와 장수들이 익히고 연구하여야 할 것은 적과에 대치시에 필수인 결진법과 해진법이 있는데 결진법에는 초결진법(哨結陣法), 사결진법(司結陣法), 영결진법(營結陣法), 대군결진법(大軍結陣法), 등을 익혀야 하며 해진법(解陣法)은 결진의 역순(逆順)으로 행 하였던 것이다. 변화무쌍한 용진(用陳) 법으로는 친설법에 의하면 팔진법(八陳法)과 육화진(六花陳), 원양진(鷺鷥陳), 배화진(梅花陳), 삼재진(三才陳), 장사진(長蛇陳), 학익진(鶴翼陣), 등의 무수한 진법과 제자 백가와 태공, 범증, 손자, 오자등의 전래의 진법(陳法)이 전투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또 시대에 따라서 번모(變貌)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최신식 병장기에 걸맞게 다듬어진 신진법에 의한 행군(行軍)과 대적(對敵)하는 법을 숙련(熟練)시켜 막강한 군대가 되도록 조련(調練) 하였던 것이다. 특히 화포의 중요성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화력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를 진, 위압하는 효과가 극출(極出)하였던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이러한 대단위 군사훈련을 지속한 왕조시대에는 인접국가와의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維持)하였으나 왕권이 쇠약(衰弱)하였던 시대에는 원훈공신(元勳功臣)들의 세력다툼과 봉당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왕의 존재 가치가 허명무실(虛名無實)한 상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당쟁(黨爭)에 치우친 봉당신료(朋黨臣僚)들의 패거리 정략논쟁(政略論爭)으로 군사(軍事)는 퇴락(頽落)하였고 장병들의 사기(士氣)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참담함이 지속 되면서도 국가에 닥쳐올 불행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국가의 위난(危難)을 말하는 충신들을 역모(逆謀)로 몰아 끝내 제거(除去)하여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계속 되었다.

임금의 깊은 관심과 계속된 대열로 인하여 추상과 같은 군률(軍律)과 기강이 날카로울정 서고 조정 모두가 군사(軍事)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였으며 군대가 자기의 할 일을 알고 있었기에 세종조

에서 연산조 까지는 아무런 외세의 침략(侵略有) 없이 국泰민안(國泰民安)이 이루어 졌고 그 후광(後光)으로 선조(宣祖) 초까지 대평성대가 이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반정(反正)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은 당시 공신들에게 이끌려 다니다가 대열(大閱)을 한번도 못하여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명분뿐인 군대로 살얼음판을 걷듯 허송세월만을 거듭 하였던 것이다. 중종조에서 차츰 격화된 당쟁은 급기야 선조조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도 무비(武備)와 군사(軍事)를 개울리 하였으며 선조16년2월 초하루 병조판서 이이(李珥)가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주달(奏達)하여 선조가 가납(加納) 하려하자 율곡을 탄핵(彈劾)하는등의 봉당정치의 폐해가 이루어 졌다. 특히 선조23년3월6일 왜국의 침략을 탐지(探知)하려간 통신사중 정사(正使)황윤길과 부사(副使)김성일은 봉당이 달라서 커다란 국사를 놓고도 정사 황윤길은 왜국의 침략을 예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풍신수길이 조선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는 허구망언(虛構妄言)을 서슴치 않았고 침략의도가 있다고 보고한 정사(正使) 황윤길은 같은 봉당인들과 함께 정치적 입지마저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사를 봉당에 이익을 위하여 허구망언으로 자기네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만 주력하였다. 군대를 강하게 조련하여 군사(軍事)를 단단히 하는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시대에 따라 군사가 느슨하여 군기가 강(強)하지 못하고 군률(軍律)이 제대로 서지 않고 사회가 혼란하여지면 국난을 당한다는 천리(天理)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 5. 구전에 의한 성남지역의 대열

구전에 의하면 성남지역에서 행하여진 대열은 많은 임금에 의하

여 여러 번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성남지역에서는 새로운 지명이 빠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의 고등동이 된 고산(高山)리에는 대열때마다 사령탑(司領塔)이 높게 만들어 졌고 사령탑을 올라 다니는 자체 높은분들로 말미암아 야산이면서도 동리 이름이 고산리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다. 고산리 팅산에서 동북으로 바라보면 송파벌이 내려다 보이고 남으로는 장지리에서는 볼 수 없는 돌마벌이 보이는 곳이라서 전술과 작전상 사령탑을 세울 수 있는 천혜의 위치라고 한다. 이에 대치 되는곳이 장지(長旨)리였는데 장지리에서 보면 송파벌과 고등동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데도 오금, 마천일대가 고산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술작전상 천혜에 좋은 위치이다. 실록을 분석하여 보면 대열때에는 좌상군과 우상군으로 나누어 습진 훈련을 하였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작천(鷗川)(또는 천호천(穿呼川))단천(이천이름)을 동서로 나누어 군사의 편을 가르면 그 시대에 위방(位方)에 의한 좌방(坐方)은 동우(東右) 서좌(西左)였음으로 미루어 동방인 장지동에 사령탑은 우상군 사령탑으로 보아야 하며 고산동에 사령탑은 좌상군 사령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산(高山)리와 장지(長旨)리 사이에는 대왕교가 있어서 다리를 건너서 적진으로 침투하기가 수월 하였던 곳이기에 작전을 수행하기 좋은 여건이었다. 대왕교(大王橋)가 있던 세천리(細川)는 굽자대로 여러가닥의 가느다란 시내가 흘렀던 곳이라서 나무나 돌로 다리를 놓기에 손쉬운 지점이었다. 이 일대는 군용지로 불리워 오고 있으며 다리 이름도 군용지 다리라고 불려왔다. 대왕교에 얹힌 실록중에 대왕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내구마 세필이 물에 빠져 자 광주관판이 장을 맞고 과적을 당한 기록도 있는 곳이다. 또 하나가 문전마을이다. 문전마을은 선조27년 9월22일 왕명에 의하여 정금원평이 문전으로 개간이 허용된 이래 정금원평을 관리하는 군사들의 병영과 문전에서 생산한 곡식을 쌓아두는 문전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다. 문전은 삼국시대 이래로 전래 되어온 군사들이 농번기에 는 농사를 지을 것으로 하여서 자급자족(自給自足)의 기능을 갖고 있

었던 제도이다. 정금원평에 둔전도 군사들의 군량미의 충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것임이 선조실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금의 상하대원들은 대야원(大也院)라는 억원이 있던곳으로 세종 13년2월21일 “낮황에 대야원에서 머물렀다”는 기록과 세종24년4월 22일 “대야원에서 주정하고”등의 실록으로 보아 세종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기록과 세조4년2월7일 “파찬성 신숙주(申叔舟), 병조판서 흥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양정(楊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대야원들에서 습진훈련을 하였다”는 기록을 살고(詳考)하여보고 또 옛사람들의 구전을 종합하여보면 이곳도 대열 또는 강무를 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대야원평 이 끝나는 단천에는 선창(船倉)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곳에는 거룻배가 있어서 대열을 할 때에는 장병을 실고 전너 다녔기 때문이라는 설과 한강에서 올라온 배들의 선착장이 있었다는 설이 있으나 대왕교 밑으로 배가 다닐수 없었던 것을 참고하면 도선장(渡船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용인시 수지읍에도 장장포(壯壯浦)라는 도선장이 있어서 대열때에는 장병(將兵)을 실어 나르고 평상시에 물이 많아지면 일반 여객(旅客)을 건넸다는 구전이 원주민들에게 전하여오고 있는것을 유념(留念)하여야 한다.

창곡동은 백제 온조왕 시대부터 훈련장이 있었다고 전하여 오고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대열교장(教場)과 수어둔(守禦屯)이 있었고 동본창(東本倉)이라는 창고가 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교장은 대열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차출된 장병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訓練)을 받아 전투력(戰鬪力)을 향상(向上) 시켰던 훈련장이며 동본창은 군량미(軍糧米)와 정부의 환곡(還穀)을 쌓아 두었던 정부의 양창(糧倉)이었다. 이외에도 창곡동에는 진터벌과 세자골(世子谷), 창(倉)터, 위창(上倉)터등의 지명이 지금도 전래된다. 지금의 궁내동에는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있었고 그 앞 들판에는 파오달(波吾達)이 있었다. 낙생행궁에는 대열 기간동안 임금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강무나 수렵후에 낙생역앞 파오달에서 머물렀다 든가

낙생역앞 벌판에서 유숙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태종 7년2월 13일 광주에서 강무(講武)하고 낙생역 전교(前郊)에서 미무른 기록과 세종15년3월25일 낙생역 전평(前平)에 차소를 정하였다는 기록과 세종15년4월22일 낙생역 앞들에 유숙 하였다. 세종16년3월28일 마전도 남쪽목장들에서 머물려 잤다는 기록과 세종17년10월10일과 세종25년4월5일, 세종 26년5월6일, 세종26년 7월5일, 세종26년9월25일등 세종께서 7-8번 이상 낙생역앞 들에서 머문기록이 있으니 참으로 유서깊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종2년3월29일에도 낙생역 기록이 있고 세조도 4번에 걸친 낙생역앞 들에서 유숙한 기록(11년8월17일, 동년9월12일, 세조 14년1월27일, 동년4월18일,)이 있다. 성종2년10월8일 이주에 있는 영통을 가기 위하여 거동하였는데 저녁에 낙생역앞 파오달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동년 10월12일과 성종6년9월26일, 동년9월27일까지 낙생역앞 파오달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낙생역행궁에 대한 기록은 성종8년10월3일 대열을 끝내고 이튿날인 동년10월4일 낙생행궁에서 과천 마계동에서 타위(打圍,물이사냥)하고 저녁에 낙생행궁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행궁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서 동년10월6일과 10월8일 낙생행궁에 대한 기록이 있고 성종14년4월7일 은양온천에서 대왕 대비의 상을 당하여 중신들과 협의한 내용중에 낙생행궁에서 3-4 일을 머무르라는 기록이 있고 동년4월19일 내관 안중선을 낙생역에 보내어 양전(성종과 성종비)께문안 하였다는기록이 있다. 이도록 역대 많은 임금들이 낙생역앞 파오달이라던가 낙생역앞 전교, 또는 낙생역앞 들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것은 군사전략상 매우 비밀스러운 곳 이었으므로 의전 관계상 노출을 꺼리였거나 기록을 하는 관리(官吏)가 자리에 밟지못하여 정확한 지명을 기록하지 않은것일수도 있다. 구전에 의하면 낙생역앞에는 행궁이 있었으므로 궁안(궁내리)이란 지명이 생겨 난 것이다. 또 낙생역앞에는 낙생장터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옛날부터 이지역에 구전으로 전하여온 낙생행궁에 대한 유래가 성종실록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다. 성종이전에 임금들도 낙생행궁에서 머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이 낙생행궁도 대열의 산실(產室)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을 살고 하여보면 임금들은 대열을 전후하여 며칠 몇날을 이곳에 머문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궁내동에는 진두골(陳頭谷)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진두란 대열시에 임금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곡동에는 진재산(陳在山)이란 산이 있다. 도촌동에는 진산(陳山)이 있고 여수동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모판일대는 살나들이(箭飛出入)들이라는 이름의 들판이 있었고 사송동에는 군량골(軍糧谷)과 수레나들이(車來往)들이 있다. 고동동에는 세자골(世子谷)과 세자골(世子谷)고개라는 지명이 있는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모두가 대열과 연관된 지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 이러한 지명들은 일제에 의하여 치밀하게 분쇄(粉碎)되고 훼손(毀損)되어온 우리의 전래지명의 유실(流失) 속에서도 수백년 전통있는 문중(門中)과 뜻 있는 선비 가문(家門)에서 명맥(命脈)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구전(口傳)으로 그나마 전하여 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남지역 전역(全域)에서 수백년 전래문중과 원주민(原住民)을 통하여 구전에 의한 지명(地名)과 설화(說話)를 채집(採集)하여 근본적(根本的)이고 대대적으로 재조사(再調查)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재정립(再正立)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근본(根本)으로 이 지역에 흐르는 역사와 전통과 정서를 찾으므로서 부분적이나마 한(韓)민족정기를 되찾아야 할것이다.

## 6. 결론(結論)

상고(詳考)하여 본바와 같이 이지역은 대열(大閭)과 강무(講武), 수령(狩獵)등의 국가적 큰(大)행사(行事)가 빈번(頗繁) 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태조께서 종로 보신각(仁景)을 만들

었는데 이 종도 정금원(正金院 또는 鄭金院)에서 만들었다고 전하여온다. 그러나 태조7년2월11일, 동년2월21일, 동년3월19일, 동년4월4일등에 실록에는 광주(廣州)에서 만들었다고만 기록 되어있다. 그러나 청금원에 있었던 갑사창에서 병장기를 만들어다는 기록등이 전해오고 있으므로 보신각종이 만들어진 곳도 정금원인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確信)한다.

임금의 군사를 점고하고 기본적인 개인기와 조직속에서의 행동 전략과 전술을 조련하는 큰행사를 친히 참관하고 평가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안정적인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대, 내외에 조선의 군비의 안정된 경영과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 하였다고 할수있다. 역대 임금중에 특히 세종은 군사력 증진에 노력한 흔적이 유난히 많은 임금이었다. 세종은 대마도 정벌이라든가 사군과 육진의 개설등과 새로운 병장기와 각종 화포의 개발로 인하여 대내외에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여 국가 경영에 안정을 도모한 좋은 본보기를 후대에 남기었다. 특히 대열에 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신식무기(新式武器)와 병법의 터득은 군사들은 물론 종친부나 만조매관과 일반 백성들 까지도 커다란 자부심과 신뢰를 갖게 하여 주었다. 세종이후에는 세조가 부왕(父王)이었던 세종 못지않은 업적을 남겼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강무와 군사들을 조련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렵을 자주 실행하였으며 훈련때마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을 계율리 하지 않음으로서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이같은 상황은 성종때까지 이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성종도 세종 못지않은 성군(聖君)으로 칭송받고 있다. 임금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이 쇠퇴(衰退)하기 시작한 조선 중기로 이어 지면서 연산조 까지 이어져 내려온 대열의식이 종종이 반정에 의하여 임금이 된 후로는 반정공신(反正功臣)들에 의하여 국정이 좌지 우지 되었고 권력의 속성을 따라 아부와 아첨으로 얼룩지었고 이익집단인

봉당으로 이어진 패거리 정치속에서 허덕이면서 중종은 수없이 대열의 당위논쟁을 벌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중종31년7월27일 드디어 대열(大閱)을 명하였으나 중신들의 갖가지 불가의견을 들어 동년9월13일 대열의 충지를 명하였고 그후로는 대열을 경제적인 등여타한 요인을 들어 행(行)하지 못하기 시작 하였던 것이다. 그후 인종과 명종조를 거쳐 선조(宣祖)조에 이르러 극도로 피폐(疲弊)하여진 군사(軍事)로 말미암아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민족통한(民族痛恨)의 치욕적(恥辱的)인 아픔을 겪고 만 것이다.

선조가 율곡(栗谷)이 전언(進言)드린 시무육조(時務六條)를 가납하고 재빨리 군사를 조련하고 군비를 본분히 하여 군사(軍事)를 정비하고 무비(武備)를 완벽하게 갖추고 김성일이 봉당에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왜국의 침략의지가 있음을 복명 하였더라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은 없었을것이었다. 대열의 기본적인 사고(思考)가 평화로울 때 재난에 대비하여 군사(軍事)를 본분히하여 두자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군사와 무비를 계율리한 대가로는 너무나도 처참한 대란(大亂)으로 국기(國基)가 혼들리는 폐해(弊害)를 당 하였던 것이다. 쓰라린 국가의 대란을 체험한 후에도 봉당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더욱 기승을 부려 급기야는 또 다시 병자호란이 유발되었고 인조(仁祖)임금이 청(淸) 태조(太祖) 누르하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빙고 청나라의 승전비(勝戰碑)를 한강가 삼전도에 세워주고 매년 속국(屬國)의 예(禮)를 드려야 하는 치욕(恥辱)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봉당의 폐해와 전쟁불감증이 커다란 재앙(災殃)을 물고 온다는 큰 교훈을 남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당에 의한 폐해(弊害)나 전쟁불감증(戰爭不感症)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봉당(朋黨)의 이익과 자기 영리창달(榮利暢達)에만 전력투구하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안위(安危)는 안중에 없이 아첨(阿諛)하는자에 말만을 귀담아 듣고 현실에만 안주하며 희희낙낙하여 오다가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신식 병장기로 무장한 일제에게 힘에 밀려 온갖수모를 겪다가 결국

은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체결(締結)하면서 나라는 있으되 국권(國權)이 없고 일제에게 치안을 맡겨야 하는 전대미문의 비통한 국가로 천락(轉落)하고 말았다. 이것은 평화가 지속(持續) 되는중에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를 제대로 조련하지 않고 서양문물을 맬아드려지 않아 세계의 흐름을 몰라서 신무기의 개발을 하지 않았던 자업자득의 대가였던 것이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온갖 난관속에서도 군사(軍事)와 무비(武備)를 개울리 하지 않았던 조선 초기의 대일(大閏)의 숭고한 깊은뜻을 국민 모두가 마음 속에 아로 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것 같으나 우리에게 치욕적이고 극심한 고통과 원한에 찬 교훈을 일깨워 주었던 일본은 유사(有事)입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해외 파병법이 새로이 만들어지는등 방령된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며 호전적인 일본군은 첨단무기로 중무장은 물론 해외 파병을 빙자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은가? 정확하고 세심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등을 전제로 미국과의 당사자 협상(協商)이라야 한다면서 한국을 배제(排除)하고 미국만을 협상대상자로 상대하려 하고 있는 시점(時點)이 아닌가.

6.25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란(戰亂)이 지난지 어언 오십여 성상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과 실전능력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는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의 국방태세는 얼마나 선진화 되었으며 최첨단 병장기 체계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한다. 국방비가 GNP 대비 몇%다 하며 액수에만 신경을 쓸것만이 아니라 참다음고 올바른 정신사고(精神思考)와 최첨단 병장기로 최고수준의 실전능력을 지닌 세계최강 대일의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국방태세가 완벽 하다고 할만한 위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軍事)와 무비의 확실한 정비만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원천적인 밀거름이 될것이고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큰행복을 구가하는 기초가 되며 통일의 원동력이 될것이다. 세계가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말장난에 공연히 민족전체가 전쟁 불감증에 도취 되어 있는듯한 모습은 아닌지를 들이켜 생각 하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생성되고부터 전래되어온 군사와 무비가 고려때부터 대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조선중기 까지 수백년간 계속이어져 내려온 대열인데도 누구 하나 연구하고 고증을 통하여 재현(再現) 하려는 의지 있는 학자가 없단 말인가. 학계(學界)와 관계(官界) 지역주민 모두가 자성하고 깊이 연구하여 하루속히 대열의식을 재현하여 대열의 필요성과 대열실행의 당위성을 재(再)살 제고(提高)하여야 한다.

수백년간 이 지역에서만 행(行)하여졌고 말없이 전래 되어온 응대무비하고 치란(燁爛)한 문화가 대열의식(大閱儀式)이다. 이제 우리는 성남지역을 비롯한 송파 지역의 전(傳)하여오는 대열을 통하여 조선시대백성과 장병들의 충성심과 그들이 지닌 국가관을 통하여 시대적 사회상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이 지역이 천혜(天惠)의 군사작전의 요충지(要衝地)로서 역할을 살펴 지역에 잔존(殘存)하는 왕실문화와 군사문화의 깊은 뜻을 많은 학자들이 심층(深層) 연구하여 휘황찬란(輝煌燁爛)한 제 모습을 재현(再現)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열의식(大閱儀式)이며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이 내려진 최고의 왕실문화(王室文化)이며 광대(廣大)하고 정밀(精密)한 군사(軍事)문화이기에 빠짐없이 발굴조사(發掘調查) 하여야 하고 그 위용(偉容)을 재현하여 그 깊고 숭고(崇高)한 뜻을 길이 후세(後世)에 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려사, 세가(世家), 충렬왕6년11월, 7년4월, 11년5월.  
 우왕11년1월.
- 고려사, 열전(列傳), 명종5년10월, 14년11월, 39간신 염홍방.
- 고려사, 지(誌), 강무(講武).
- 구 전(口傳).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태조7년2월11일, 2월21일, 3월19일, 4월4일.
- 태종7년2월13일
- 세종1년10월29일, 11월3일, 2년9월15일, 9월16일, 3년3월28일, 5월  
 13일, 6월1일, 7월9일, 7월28일, 9월24일, 8년10월3일, 13년2월  
 21일, 15년3월25일, 4월22일, 7월4일, 16년3월28일, 17년10월10  
 일, 24년4월22일, 25년4월5일, 26년5월6일, 7월 5일, 9월25일.  
 31년8월16일, 단종2년3월29일
- 문종원년6월19일.
- 세조4년2월7일, 4년9월2일, 9월23일, 25일26일, 5년10월10일, 11년8  
 월17일, 9월12일, 14년1월27일, 4월18일, 성종2년10월8일, 10월  
 12일, 6년9월26일, 9월27일, 10월3일, 10월4일, 10월6일, 10월8  
 일, 10월13일, 8년2월18일, 10월3일, 14년4월7일, 4월19일, 19  
 년9월24일, 20년9월28일,
- 연산군10년8월27일, 10월2일,
- 중종31년7월27일, 9월13일.
- 선조16년2월1일, 23년3월6일, 27년9월22일.
- 여지도(輿地圖), 광주부편.
- 여지도서(輿地圖書), 광주부편.
-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주부편.
-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 광주목편.
-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광주부편.
- 청구도(青丘圖), 광주목편.

- 진설(陳設).,(韓孝純著). 규장각 소장 일조각.  
신기비결(神器秘訣).,(韓孝純著) 규장각 소장 일조각.  
한강사(漢江史).(서울시사편찬위원회).69p  
성남문화연구(城南文化研究)제9집.(성남문화원).  
분당의 땅 이름 이야기.(토지공사).  
광주,성남지역의 지명 자료집.(남사모).

#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한 춘 섭\*

## 〈목 차〉

1. 머리 글
2. 성남 문화유산 점검
  - 가. '문화상품' 21세기, 문화 인프라 구축
  - 나. 지난 30년의 성남시 문화유산
3. 향토문화연구소의 운영 현황
  - 가. 성남 향토문화 연구 실태
  - 나. 향토문화 전략 리포트
4. 미래를 향한 향토문화의 보존 구상
  - 가. '우리 문화유산' 발전안
  - 나. 성남 문화의 가치성 제고
5. 마무리 글

## 1. 머리 글

올 해로서 성남시 승격의 30년이 된다. 그동안 이 땅을 일궈낸 모든 시민들의 땀방울이 고여 총 3개구 44개동마다 물목과 거리를 조성한 의형상 각양각색 건물들이 현대 신 도시 를을 손색없이 드러낸 듯 엿보인다. 각 마을마다 자리잡은 관廳舍를 위시하여 각급 교육기관, 각 종교 시설물, 개인, 종합병원, 쇼핑센터, 백화점 빌딩에서 일하며 오가는 전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이 자못 이채롭기까지 하다. 이에 더한 타 도시 못지 않은 4통8달로 연결되는 지

\*성남기술대학, 국문학/향토사학

상 및 지하 電鐵의 교통수단은 성남시 30년의 기초 문화생활을 더 한층 편리하게 가꾸어 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새삼은 바뀌어 가는 성남시에서 예술 및 학술, 과학 특히, 향토문화 분야는 너무 지역 여건상 후진성을 면 치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좋게 말하여 현대사회는 첨단화 정보기술로 인하여 찰라적이며 역동적 기능을 드러내는 세계화의 한 올 타리 세상으로 절고 활기찬 세상이라고 하지만 근본 질서가 혼들리는 뿌리없는 무질서의 저속한 고장이 되어 때론 正義 조차도 혼들리며, 是是非非 마저 때때로 바뀌가는 非情한 고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무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深夜의 거리와 골목길 거리 모습은 문화도시 無風地帶인 채 褐色한 도시 風은 사납게 몰아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인간 생존의 衣食住 기본조건이 위협당하는 저소득층 시민들 앞에 서점가의 책들이 잘 팔려 나가질 못하며, 畫廊街의 전시 그림값이 싸구려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세상 판도로 변모되어 이대로 비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지역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렇 매일 수록 자기자신과 타인들의 존재,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인간과 자연을 생각해 하는 힘은 곧, 문화에서 찾어야 하는 데 우리 주변의 고급문화가 죽어간다는 風聞은 자기 성찰을 통한 인류 발전의 도약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현상 들이다.

아무리 국제화니 세계화니 또는, 디자인벤처 도시, e-푸른 성남 등의 거창한 구호나 내 걸어 놓은 들후 성남시의 실상을 허구 일 뿐이다. 우리 성남시의 문화 현주소를 잠시 살펴보면 참담한 느낌이 든다. 여기 저기에 솟구치는 아파트와 사무용, 상가빌딩 층 층마다 중소형 시네마 홀이 아니면, 유흥가 팻골목의 음식점, 주점 간판들로 아예, 건물 전체를 도배하고 말았다. 넓은 광장이나 큰 거리 한 편에라도 각 세대를 연결시키고 성남의 과거와 현재, 내셔 널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을 이어주는 가교(架橋)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 향토문화는 외면시하여 전문성있는 시립 박물관 아니, 협소한 자료관 하나 만들어져 있지 못한 채 방향감각을 상실하였다. 이제 성남시 향토문화와 예술의 냉혹한 현실을 놓고 전반적으로 타개책을 논의할 단계를 지나 이럴 바라면 범시민적 민간주도 싱크탱크가 구성돼야 할 지경이다. 타 지역에서 각기 향기 넘치고 매력있는 향토문화와 예술로 경쟁력을 뚫고 나가는 여러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성남시는 정보기술에 앞서 문화보존, 예술활동, 지역사 연구보존에 과감한 정책과 지원을 하여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성화된 성남문화와 예술진흥의 아이덴티티를 창안하여 '성남문화 제 모습 만들어 가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이에, 먼저 문화정책 당국자인 성남시청과 시 의회 관계자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바탕없이 경제와 정보화 산업은 무가치하다는 인식전환을 요구하며 이 진급 제안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혹자는 문화란 주어진 공간에서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깐 성남시에서의 향토문화라고 하면 100여 만명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남시 민들 만의 생각과 감동과 생활 모두를 어루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엔 대중문화를 우선 떠올리기 쉽지만 잘 수록 자라나는 세 세대 앞에 承繼될 문화는 성남만의 향기 풍기는 전통문화 제 모습을 알려 주는 일이다. 어떤 묘책을 강구해서라도 문화산업의 핵심인 내 고장 문화·예술활동의 고급화 사업을 위해 결코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필자의 '城南市 향토文化의 반성'은 지금까지의 성남 30년 문화 중간 보고서로서 또한 앞선 신 도시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켜 나갈 성찰의 자료로서 한 試論 수준으로라도 비견을 제시하려고 함이다.

## 2. 성남 문화 유산 점검

현대사회는 문화적 혼란기라고 말한다. 외래문화 중에서 低質문화의 마구잡이 유입으로 문화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겪어 오면서 특히, 젊은 층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樣態로 극렬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과거를 살펴보면 분명, 우리 고유의 문화를 위해 독자성을 지켜온 민족이었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좀 거창한 道用같으나 우리나라 헌법 前文 안에서 <빛나는 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였고, 本文 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明示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 한국이야말로 문화국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條文에서도 그 책무 규범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국가의 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話頭를 전제로 다방면 연구학자들이 토론 주제를 피력해 왔고, 지난 1990년 초부터 문화 총괄의 전담기구 文化部가 신설되었지만 항상, 경제설장이다 정치발전 최우선이어야 한다면서 당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 나앉았던 시대를 경험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이 상당부분 성장속도가 늦춰졌던 사안이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 성남 문화도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이면서도 문화유산의 보존대책 만은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행정 관청만의 의해 문화 발전을 기대할 일이 아니라 전체 시민 스스로 문화적으로 교양수준이 높아져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이 같은 시민활동의 뒷받침을 할 뿐 권위주의 간섭과 통제는 사라져야 하며, 多元化 大衆化의 현대 시민들 자신이 문화의식 고양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성남문화, 더 기초단계부터 자료를 찾아 나서

야 하며, '이것이 우리 성남의 얼굴'이라는 문화 이미지 位相 만들 어 가는 길에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00년도 성남발전연구소 보고서인 〈성남시 문화관광밸 드 조성 연구〉에 의한, 산성유원지, 종합시장, 모란시장, 서현역, 판교 등 5개 권역에 자연사 박물관을 위치하여 소리, 색채, 족보, 전통민속, 음식, 향토사료, 의상박물관을 특색있게 건설도록 제안했던 장기적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치밀하게 검토하여 풀어야 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도 이런 성남시 문화발전의 문제점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에 연구 의뢰했던 조사 보고서 결과, 그 정책적 인 개선방안이 더욱 구체성있게 제시되어야 하겠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전문 문화예술 시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략) 성남시의 도시 서비스 기능은 1995년 전국 30위에서 2000년 7위로 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에서는 1995년 12위에서 2000년 26위로 밀려나 상대적으로 도시기능 대비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의 하락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수를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 규모면에서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가 가장 낮은 문화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시규모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며 보더라도, 부산은 공연장, 전시관, 국립, 공공도서관 등 56개의 문화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주 54개, 대전 34개, 대구 33개, 인천 25개, 울산 13개 등 의 문화기반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성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현황임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sup>1)</sup>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보고서.

성남시: 〈성남시 문화지표 조사연구〉, 2001.6, 149쪽

이 조사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문화관광 차원 외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적 차원에서 문화 하드웨어 구축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전시시설 중에 미술관 외 공연장도 추가 건설되기를 주문하였고, 아울러 향토사 박물관, 특수전문 박물관과 준 전문 문화시설, 각 계층별로 요구되는 각 문화의 집과 복지회관 운영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점을 제안했다. 필자는 이외에 도 성남다운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문화 자료관 일명, “시립 박물관”과 예술중토의 특색있는 공간속에 위인행적을 추모할 수 있는 비석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수많은 다양함 속에 천편일률적인 문화시설 나열도 좋지만, 고급문화를 가꾸어 가는 길이 우리 성남시의 미래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외 다양한 시설물 현황을 통계상으로 정리한 토대위에서 문화환경 개선방안도 분석한 두 가지 보고서를 성남시 문화행정 관계자가 지속성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문화 상품' 21세기, 문화 인프라 구축

타 시도는 벌써부터 문화의 중요성을 눈치채고, 어伧거나 질높은 국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눈길을 돌린 지 오래된 일이다.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 학교교육 외 평생 사회교육으로서의 생활속 문화 상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진국 내지 선진문화의 몇몇 지방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지 않으면 서도 정치적·경제적 패러다임과는 또 다른 '향토문화'를 죽이지 않은 채 질 높이는 시민 문화 인프라에 앞 다투어 새 전략을 세워가 다르게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調開되지 않는다. 정원사가 일년 아니 이삼년 이상 비옥한 토양과 비료, 묘판관리와 씨앗 골라 뿌리고 가

---

참고자료로 삼아 가기만 하더라도 성남의 총체적인 문화인프라는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꾸는 끈기가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성남시 향토문화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재정지원도 필요하며, 우리 지역 문화를 문화 그 자체로만 보지말고, 시 발전의 최적 전략으로 보는 공무원 지도층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후엔 모방이 아닌 차별과 창조의 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게 할 '문화 상품'을 창출도록 적당한 온도와 물 주기의 정책 비전이 확고해야만 성남시민 위상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문화 수요자의 수준도 남다르게 향상될 일이다. 하여, 경제가 어려우니까 문화는 저 면발치서 기다리라는 식의 발상은 금물이다. 어려운 환경조건에서도 애써 우리 것의 문화, 내 것에의 성남문화를 지켜가는 창조자 즉, 문화 공급자들에게 보관장도 제공하고, 비옥한 흙과 물도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3개 구청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고급문화의 공간을 새 설계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도시 속 문화공간이란 그 어떤 것일까? 시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극장, 음악당, 각종 전시관, 도서관 등 시민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행위공간 시설이 도시를 상징성 있게 보여 주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좀 더 확대하여 도시 공간을 꾸며 보려면 성남 고유의 맛, 햇, 개성을 온 몸으로 느껴 볼 만한 생활속의 공간 즉, 건축물, 터미널, 지하철 역사(驛舍), 시장공간, 뺨지 소공원, 녹지공간 등이다. 지적된 이들 중에 이미 도서관과 시장, 공원과 녹지 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한 발 앞서 왔다고 생각된다. 다만, 조건 유리한 청계·남한산과 단천의 자연환경을 성남 도시 정체성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둘 한 개,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까지 공간미 확보에 정서를 담아 나가야 될 일이다.

성남에서 문화공간의 활성화는 행정에 의한 문화 인프라의 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역의 자연조건과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어메니티 공간의 구성, 지역 경제성의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책 강구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혜정 당국자만의 몫이 아니고, 시민 모두의 문화도시

창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가 경험한 성남생활 40여 년 동안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남시 탄생과 발전이 곧, 한국 근현대사 성장의 축소판 본보기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천만다행한 일은 일명, 구 시가지라 불려지는 수정·중원구 그 정착 터전위에 새롭게 조성된 분당 신도시 문화의 10여 년 성장으로 인하여 성남시 총체적인 도시문화의 급발전 상태는 그 속도조절이 어려우리 만큼 대 도시 위상을 짧은 시간안에 앞당겨 놓았다. 특히,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인, 문화예술인을 위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 연구소와 교육기관 밀집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남시 자산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생각으로나 정책구호에서나 내세운 <문화비전 2천년>의 여러 가지 과제는 확고하게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다. 타 지역에 모두 준비된 예총, 문화원 단독 건물 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성남에서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표징비(表徵碑)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고 살아온 게 우리의 지난 30년이다. 그러니 (가칭) ‘문화예술인촌’ 조성이란가 성남의 이미지를 드러낼 만한 상징적 거리, 기호상징으로서의 전통 건축물 만들기 등 문화거리 공간 확보는 그림 속의 떡인 셈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성남시의 질 높은 문화도시 특성을 밀그림 그려놓을 수 있는 총체적 문화사업 전담기구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문화유적 지표조사>(2000) 결과, 성남시에도 192개의 문화유적이 분포해 있으며, 이 중에서 일부는 문화재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이를 지역의 역사성과 정치성 확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요구된다.<sup>2)</sup>

어찌됐거나 성남시는 하나부터 모두를 우리에 의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각 분야가 하나같이 지혜롭게 연구하고 열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한 곳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성남시 제 얼굴 찾는 일이 향토문화 역사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이 문제를 강조한다

#### 나. 지난 30년의 성남시 문화유산

해방 이후 한국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태는 혼란과 빈곤의 연속이었으며, 후진 농업국으로서 반성적인 침체의 높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기간이던 1962년대의 두 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한 한국경제의 10년후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원년이던 1962년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87달러가 1972년에는 무려 306달러가 된 것이다. 이같은 자립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의 절대빈곤은 점진적으로 해결되던 여건하에서 유독, 성남시의 도시개발 만은 농촌을 떠난 서울특별시 무허가 빈곤층 일명, '판자촌 빈민' 강제 이주정책에 따른 예상 못했던 집단 철거작업에 의한 어설픈 신 도시 개발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1973년 7월 1일 기준의 성남시 승격은 점진적인 도시안정 대책으로 출발된 일이 아니었다는 데서 모든 분야가 기형적 도시발전으로 치달렸던 아픈 과거사를 지니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농업사회에서 급팽창, 급진전의 도시 산업사회로 단계발된 성남시의 사회변동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강했다. 개발초기부터 관·민 합의에 의한 도시발전이 아니라 관 주도 통치방침으로 인하여 전국 8도민의 다양한 시민갈등을 겪은 채 역기능 빈민 도시생활로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개인, 단체별

---

2) 위 보고서, 167쪽

저항의식이 저번에 확대되던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혁명적 군사정권 시대상황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불신, 저항은 날이 갈수록 높아 만 갔으나 반면,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하는 산업화, 공업화, 경제발전 등 '민주주의 근대화'라는 군사정권 통치 맥락에 밀려 문화, 예술정책은 뒷전으로 처지게 되었다.

이같이 사회정국 혼란속에 특히,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시월維新' 이후 각 계층별 난동, 파동과 비상사태 선포는 끝없이 사회 정국을 경색된 방향으로 몰고 갔었다. 때를 같이했던 급속한 도시화의 성남시 출발 1973년 전후 사정이 평화롭지 않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도시 산업 노동자들의 집단적 불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안보 비상사태를 외쳤던 시기에 개발과정에 처한 신 개발지 성남시의 70년대 문화 정책은 개발행정, 산업경제, 시민교육, 의료복지 그 후의 끝 순위에서 맴들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의 전체가 공허한 들판과 비탈길 산계곡이어서 이러한 농촌을 桑田碧海로 개발시키려면 최우선 사업이 도시문화 산업생활을 위하여 엄청난 예산배정이 하천복개와 새 건축물 그리고, 도로 공사비에 부임치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으며, 21세기는 문화의 세상이라 할 만큼 급성장되었다. 한국민 내지 성남시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바뀌었다. 중앙정부 중심의 官選 市長에 의한 세상도 아니며, 대부분의 시민들 생활수준도 질적으로 삶을 즐기려는 취향이 예로부터 엿보여진다. 성남시의 역대 시장 경우, 관선 시장 14명 중 최단기 3개월에서 최장기 2년 8개월 재임기간의 여려차례 자리바꿈으로 인하여 시정방침에서 '문화'란 용어가 제시되었던 시장은 1976-7년도 제3대 洪哲杓의 슬러건 단 한 곳 뿐이다. 그는 "文化福祉 도시건설" 대명제 중에 4가지(총화체제 확립/전천도시 육성/새마을 운동의 생활화/서민생활 안정) 실천함목이 부가되어 있다. 고작해야 시

민회관 운영 내실화와 도로 확충 및 1개 도립 도서관과 예술·문화 단체의 소폭 지원이 전부였다.

그후 지방자치 제도에 의한 民選 市長 3명(吳誠洙·金炳亮·李大輝)의 施政방침 가운데 '문화' 용어는 대체로 하위 항목에 모두 포함돼 있다. 1995년 제15대 민선1기 오성수는 '환경보존과 문화창달'(넷째 항목), 1998년 제16대 민선2기 김병량은 '푸른 문화도시'(둘째 항목), 2002년도부터 현17대 민선3기 이대열은 '향기있는 문화도시'(다섯째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다.<sup>3)</sup>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관선시장 시절의 성남시 문화는 불모지 수준을 겨우 모면할 정도로 뒤쳐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첫 민선 오성수 시장의 50대 공약사업 가운데 아직도 상당분야가 미 완성된 일들이 없지 않으나 오늘날에도 그의 폐기있는 추진력으로 장학사업·복지시설·도로·연동체계와 복개·주차장과 소각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대 약진이었다고 말들을 한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체육전통의 구체적 사업으로 부각시킨 도서관·야외공연·수련장·문화거리·문예회관·생활체육·제2종합운동장 설계도 구상은 지금껏 미완성이라고 하지만, 문화시설의 청사진과 같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민선 두 번째 김병량 시장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지표'의 지는 대단하였다. 100대 공약사업을 제시한 그의 행정능력 또한, 평가 수위를 인정하나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전종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결점을 드러냈다. 김 시장의 공적은 문화관광밸트 융역, 국제 도시와 통상 교류, 디자인 벤처산업 육성, 성남시 상징물인 마크와 마스코트 창안, 실직자 가정 돕기, 재취업 위탁교육 시설 확대 외 문예진흥기금 20억 조성과 구청별 도서관 완공, '문화의 집' 운영

3) 성남시 편: 〈2002 성남통계연보〉(30회), 2002. 12. 626-29쪽

등이 활기찼었다. 성남을 우리 민속 고유의 맛을 살려 나가려던 그의 문화 예술도시 꿈은 결실이 미완성인 채 3대 민선시장에게 자리바꿈 되었지만, 도시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가시화시킨 셈이다. 문화, 예술, 체육 등 전반적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두드러졌다.

나아가 세 번째 민선 이대업 현 시장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누가 뭐라해도 그의 과거 공직은 국회의원이요 아울러 평망 반면 예술가였다. 그의 재임기간까지도 성남의 문화예술계가 빈약한 문화정책 지원으로 흠대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정착된 장단기 계획의 문화정책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어 타 도시 수준을 끌어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 환기시켜 온 필자의 말이지만, 성남시가 옛 광주문화권에서 단독의 신 도시로 자족형태를 드러낸 지금, 성남문화의 정체성은 농경문화권 근원지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城邑 고을인 남한산성의 역사 물레에서 배놓을 수 없는 위국충절 나라 사랑 숭결이 깃들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성남시 문화에는 그 근원이 漢江문화권에서의 漢城 백제문화를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병풍같이 에워싼 양쪽의 청계산과 남한산 병풍 속의 嵩川 옛 이야기를 현대의 문화 향기로 재창출해 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청계, 남한산에서 갈라져 뻗은 인동, 불곡, 문령, 영장산 자락마다 옛 어른들의 발자취는 하루 속히 조사, 발굴, 검증, 분석되어져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 문화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 처음으로 용역사업 보고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 이미지구축,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 복지기능 확대 세 항목으로 요약됨을 읽을 수 있다.

문화 이미지 구축에 지역적 요소와(다문화 주의, 전통, 현대, 미래요소 말글, 지역의 비전) 행사적 요소(현대적 이미지 행사, 축제 개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문화행사, 장르간 연계 프로그램 행사

개발), 생활적 요소(생활이 있는 문화거리 조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마을 만들기, 쉼이 있는 생활 환경 조성)/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확충과(전문 도시문화 공간, 줄 전문 문화시설, 생활문화 시설), 기능 활성화(사회복지 시설 기능 활성화, 문화의 집 기능 활성화, 문화교육 기능강화, 문화복지 기능 강화), 특성화(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계층별 특성화, 도서관, 문화원, 공연시설, 전시시설, 전문 수준별 특성화)/ 문화 복지기능 확대에서 문화활동 활성화(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등호인, 자생단체 문화활동 지원, 문화 활동 공간제공),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문화공간으로서의 적극 활용, 문화학습 프로그램 차별화) 및 문화 서비스 기능 강화(계층별, 지역별 서비스 차별화, 문화정보 서비스 강화, 다양한 문화교육기회 확대).<sup>4)</sup>

앞에서 세 차례에 이른 민선시장 시대를 언급하였거니와, 그 시대의 문화정책에서도 편중된 사업지원과 단기 안목에 의한 시설 투자로 출속정책이었다. 지역문화 지원은 긴 역사와 더불어 변함없이 계승되도록 해야 하나, 1회성 예술행사 지원과 체육공간과 도로, 하천시설 유지비에나 대부분 투자를 바쳐왔다. 성남의 전통문화 산실이어야 될 역사자료 축소화 자료관 건물이나 향토위인에 대한 추모비 건립 사업은 일체 배제되어진 상태였다. 고작, 중앙공원 여기저기에 하찮은 碑石 둘덩이만이 그 저속함을 초라한 모습으로 세웠을 뿐이다. 옛 사람들의 古家 한 채 속 마저도 쓸쓸함이 아예, 서낭당 뒷켠에 나뒹굴려 있는 곳집 만 같게 버려두고 관계기관 전문가의 전의 마지 외면시 해왔다.

그 외 성남시를 대표할 상징 조형물이 몇 군데 세워져 있으나 시기 적절치 못하다. 재 개정된 성남시민회장비가 시청사 주변에 있지 못한 채 회랑대공원 산꼭대기에 있고, 모란시장 전너편의 '모

4) 성남시:〈문화지표 조사 연구〉, 2001.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86-191쪽  
(말씀요지)

'란개척단 마을' 표징비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는 등 잘못 되어 온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다.

'향토문화'라는 語源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 규정이 다양하다. 우리의 근대화 역사를 바탕으로 불과 얼마되지 않는 지방 자치제도 도입 후, 무분별한 외래문화 침식에서 잠을 깨고부터 우리의 전통문화, 전승문화라는 주체성 확립의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향토문화라고 하면 지역문화 또는, 범우리 문화라는 인식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입지적 환경에 의해 한정된 가운데 그 문화의 독자성이나 자생력 평가보다는 중앙문화에서 격리된 보잘 것 없는 基層文化 정도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게 문화의 우열이나 수직적 격차는 없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어져 왔다. 옛 동양권에서 중국의 華夷문화만이 고급문화이고, 서구의 라틴계 문화만이 최고인 양 내세우는 문화종속 체계는 크게 잘못된 일로서 미개인들의 原始文化와 思考도 결코, 중국이나 서구인들 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토문화의 본질에는 응답 독자성의 여러 요소가 균형잡힌 유기적 완결된 구조를 지녀야 한다. 이 완결구조를 못 가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단위문화가 아닌 어떤 큰 중앙문화 한 부분에 지나지 못하다. 왜냐하면, 향토문화도 지역나름의 생활도구, 상품, 시민 규범,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관념체계나 신앙 등 복잡한 요소로 꾸며진 전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토문화 자체도 수시 외부로부터 수용되는 끊임없는 변용의 과정이 필요하고, 자체내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또한, 그 구조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남 향토문화는 하나의 단위문화로서 존재해 왔다는 전제아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온갖 시대의 변천에 의한 확고부동한 자생력이 어떤 점에 귀결되는가를 확인해야 할 일이다.

그 동안 성남시를 흔히 말하여, 저소득층 빈민들에 의한 타율적 지배구조로 급조성된 인공도시로서 전통문화가 없는 양 배타적 성격이 강한 위성도시로 평화해 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1960년대말부터 서울특별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의 최단기 입주민 격동기의 개발역사가 이곳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곳 성남시 이전의 옛 광주문화권 향토역사에는 유교와 불교원리에 입각한 고려·조선시대의 뿌리깊은 충효사상이 형성된 고장이었다. 한편, 수많은 애국충신 정절호행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전통문화 자취를 찾을 수 있고, 남아있는 몇몇 墓域의 주인공 偉人 행적에서 조차 남녀평등과 藥院중심의 인물배출이 지속된 고장이라는 것이다. 그 어떤 향토문화권에 끗지 않게 성남문화의 두드러진 향토문화 독자성을 위해 계속하여 더 체계화시키는 자료정리와 문헌연구가 있어야 할 일이다. 마구잡이식 외래문화 수용에 혼란현상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굽절되고 변용된 우리 것의 문화 되찾기에 재창조 의지를 끊임없이 장기사업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

성남시 문화유산의 실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 않은 편이다. 2001년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술조사팀에 의해 조사·정리된 수량이 무려 210곳이나 발굴·보고된 사업결과를 토대로, 수정구 70곳, 중원구 28곳, 문당구 112곳이 분포되어 있다.<sup>5)</sup>

이는 성남 특유의 문화유산이 알게 모르게 전문가 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것도 이 많은 문화유산을 조사하겠다고 보고만 되었을 뿐 전문가 유관 단체와 무관한 채, 그 흔한 세미나, 모론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보고서 몇

5)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편:《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학술총서11).

2001. 5. \*별지='성남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참고 자료표'에 총 192곳이나 9곳 누락됨.

권이 의구심만 남긴 채 몇몇 공공기관이나 전열되어 있는 듯한 성남시 문화의 현주소다.

문화재의 분류는 유형문화재(전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념물(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 동식물, 광물, 동굴), 민속자료(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고, 명승지로서 예술, 관상적 가치가 높으며, 이 고장 풍속과 습관 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에 성남시의 경우, 대부분이 고분(古墳) 묘역이다. 몇 곳의 기념물 보호수, 고가옥이 있을 뿐 예술, 관상적 가치로서 보존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문화유산으로서 후대에 계승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풍부하지 못하다.

참고자료로서 2002년도 말 기준의 성남시 관내 보물 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목록표를 정리해 둔다.

/ 보물 / 제1128호-대방광불화엄경소(1992. 2. 28지정)

1129호-대불정다라니(위와 동일)

1130호-약사유리팡여래본원공덕경(위와 동일)

1131호-법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풀 제10지하  
(위와 동일)

1132호-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위와 동일)

1135호-청사공신 조온사여왕지(위와 동일)

1136호-입학도설(1992. 7. 28지정)

1148호-법집별행록요병입사기(1983. 1.15지정)

1149호-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위와 동일)

/ 경기도 유형문화재 / 제101호-봉국사 대광명전(1980. 6. 2지정)

102호-망경암 마애여래좌상(위와동일)

/경기도 기념물/ 제 84호-이경식 선생 묘

116호-한산이씨 묘역

117호-전주이씨 서원군파 묘

118호-전주이씨 태안군파 묘

/경기도 문화재/ 제 78호-수내동 고가우

84호-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정일당 강씨 묘

2호-둔촌 이집선생 묘역

3호-송산 조견선생 묘역

4호-금릉 남공월 묘

5호-경현 조봉정 묘역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 '문화유산 집계표'에서 나타난 수정구 관내 70곳, 중원구 28곳, 분당구 112곳 총 210여 곳이라고 보고되어 있지만 이를 중 대부분 관리 소홀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대부분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문가에게서도 무관심 내지 방치 상태다. 집계표에 의하면 상당수가 문화재 지정과는 거리가 멀리 멀어져 있으며, 관리인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점차 도시개발로 그 흔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분도 상당수 산재된 방치상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 문화재 보존관리에 가일충 노력을 쏟아야 할 일이다.

### 3. 향토문화연구소의 운영 현황

세상사람들 입에 곧잘 오르내린 성남시 탄생 대명사는 '기적의 도시'라는 말이다. 한편, 성남시는 1968년 군사정권 시절에 서울특

별시 발전에 커다란 고민거리로 여겨지던 농촌지역 이농민 무허가 판자촌 이주정책에 따라 광주대단지 개발로 시작하였다. 빨간 황토만 보이던 현 복정동의 경원대학교 앞길과 모란, 단리, 단대리 산 고개길에서 새 삶의 터전을 시작했던 강제 철거민들의 아픔을 딛고 출발된 60년대 후반 우여곡절로 인하여 73년 7월 1일 시 승격 탈바꿈을 가져 올 수 있었던 성남시의 지역발전은 당시, 4백여 명 공무원들의 담방을로 음지에서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한국 최초의 인공도시였던 성남시의 도시발전 기본 틀은 무계획적이었으므로 '성남은 문화의 불모지로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질타해 온 게 과거 성남시 얼굴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우, 성남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그 어느 곳이나 문화와 예술을 한낮, 서울문화의 변두리로만 잘못 인식된 풍조였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자기의 고향 문화를 성장시켜 온 데는 불과 열 손가락 이내에 불과한 사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예술정책이 논의되고 검토되기는 80년대 초반부터 볼 수 있기에 성남만 유독 문화가 없는 도시라고 단정키는 어려운 일이다.

성남시에서 문화원 태동의 경우, 원주민 지역인사들에 의해 1978년 발족되었다. 조명천 1대 원장 외 몇 사람들의 헌신적인 出資로 문을 열었던 사단법인체 성남문화원이 정식인가를 얻기는 1980년 뒷날이었으나 옛 광주군 관할의 성남 땅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단절되지 않은 채 명맥을 계승해 온 셈이다. 그러므로 성남 문화의 공동체 의식 울타리는 나름대로 강건했으며 또, 순수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향토문화 뿌리를 살리는 데 힘썼던 이들이 아직껏 생존자 증언으로 남아 있다.

다만, 당시의 문화시설 60%와 예술, 문화행사 70%가 중앙집중 됨으로써 문화수요면에서 지방문화의 불균형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남시 7~80년대의 경우, 중앙 문화, 예술가 못지 않게 창작발표의 혼불을 지폈던 과거 실증자료가 예술쪽에는 적지 않다.

성남문화원 부설 기관 '성남향토문화연구소' 開所 절차만도 무려 3년 간이 소요되었다. 1989년경부터 성남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전문적 학술조사가 필요함을 도의한 당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외 필자에 의해 사업계획서, 추진내용을 만들어 끈질기에 건의하는 등 약 2-3대 시장이 자리바꿈을 거듭한 끝에 권기홍·이용상 원장을 거쳐 드디어 1993년도 임석봉 시장과 이창열 원장 시절에 현판식을 하고, 성남 관련 연구논문과 좌담회 기사를 수록한 3백여 쪽의 〈성남문화연구〉창간호가 나오게 되었다. 그 논문집의 창간사와 축사 그 일부를 인용한다.

-지난 60-70년대의 경제개발은 모든 것을 서울에 집중시켜 지방 문화도 서울에 예속되는 결과를 빚었고, 한국인은 문화의 고향상실 시대를 살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끊임없는 지방문화 창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그 지방 특유의 문화가 보존, 유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탓 서울문화의 경향은 우리 성남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늘 푸른 남한산성 기슭에 기적을 이룬 우리 성남의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전국에서도 몇 안가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 도시이다.(중략)

그 노력의 첫 번째 열매가 연말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연구위원들의 좌담회였다. 이 좌담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탈 서울문화를 위한 성남문화 창달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sup>6)</sup>

-한 나라의 문화는 그 한 나라의 삶 자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성남시의 문화도 그 성남시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를 자료화하여 성남의

6) 이창열, 성남의 뿌리를 찾아. 〈성남문화연구〉창간사: 1994.5.20, 11-2쪽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성남문화연구>집 발간은 성남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에서도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바로 내고장 성남을 위해 올바로 정립된 문화인 것이며, 성남과 관련한 고고, 민속, 지명인물, 문헌, 지형 및 민속자료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제작한 <성남문화연구>집을 통해 성남의 올바른 문화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sup>7)</sup>

7편의 연구논문과 함께 창간된 논문집에는 문화원장 겸임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창간사와 지역인사 4인의 축사를 비롯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 좌담회 내용 외 부록이 수록된 향토문화 첫 논문집이다. 논문 주제는 지형환경, 지명, 세거성씨 인물, 한시 등 인집 연구 외 당시에 태평동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창대군 묘 지명 略史가 소개되었다. 10명 연구위원들의 첫 좌담회에서는 '성남20년의 문화권 회고', '성남의 문화 현주소', '향토문화연구소가 할 사업' 등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청소년 문화 공간 전립, 남한산성 연구, 향토인물 조사 연구, 문화지도 제작, 성남 지리지 발간, 모란시장 풍물지, 청소년 문화학교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 자리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5년 내지 10년 동안에 해결하기 위하여 시 예산 지원이 최급선무임을 강조하였고, 타 도시 보다 성남의 문화발전 좌담회는 앞서가는 활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논문집 간행이나 학술발표를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한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는 그나마 천행이다. 지역정서를 결집시키고 성남사랑의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10년 동안 이 하나의 전통문화 역사 찾는 초기 업적으로 말할 수 있다.

7) 이용수, 발전하는 문화도시, 위와 같은 책, 축사: 16쪽

### 가. 성남 향토문화 연구 실태

향토문화연구소가 지금까지의 10년간 연구 결과, 성남시 향토사 자료 발굴과 연구 발표도 만만치 않다. 지역내 전통문화의 지적자산을 보유하게 하므로써 균형잡힌 도시발전의 기반을 한 단계 높혔고, 성남 정체성 드러내는 대변자로서 일관성있게 노력한 점이 적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의 무관심이었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 것의 가치를 찾는 아이덴티티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향토문화 다방면의 연구에 힘써야 하겠으며, 성남문화 명소와 인물 찾기에 전념해야 할 일이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남지역에서도 문화·예술분야는 다분히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운영을 전담하는 게 아니며, 지자체의 소정부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公共財란 사유재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시민 누구나 등등하게 재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 시민의 수준을 향유하기 위하여 공공재정은 마땅히 타 분야에 앞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의 경우가 그렇고, 성남시의 경우 더 더욱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까닭으로 질 높은 삶의 문화 성숙도에는 상당부분 외면시 되었던 게 사실이다.

계획된 신 도시 분당구가 개발된 1990년초부터 수정·중원구는 지역개발의 주도적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후개발된 분당에 뛰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비호아래 추진된 분당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기존 구 시가지 수정·중원구에 필적 앞선 문화공간 확보가 좋았던 때문이다. 병원, 백화점 시설을 위치하여 각광받기에 충분한 수내동 중앙공원, 율동 자연공원의 서울특별시와 자유왕래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지하철 교통발달이 한층, 문화여건을 높힌 결과라고 보겠다. 성남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지금의

## 214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중원구 성남동 일대 즉, '모란개척'은 일찍이 몇몇 지역원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60년초부터 성남시의 지역환경은 해가 바뀌칠 수록 급변되었다. 이에 광주군 관할 시절부터 지역에서의 주요 활동과 각종 문화 움직임 등을 순차별 年代表로 정리해 둔다.

- 1961-예비역 육군대령 김창숙 주도로 모란지역 개발
- 62-민속시장 모란장 개설
- 63-남한산성 국가사적 57호 지정 / 모란우체국(별정) 설치
- 64-광주군 직할 중부면 성남출장소 변경 설치
- 65-모란지서 개소
- 66-풍생중학교(사립) 개교
- 68-광주군 중부면지구 일대의 주택지 경영사업 인가(350만 평 상주인구 2만5천7백 십9명)
- 69-서울시 무허가 철거민 48세대 광주군 중부면 개발단지 첫 입주
- 1970-수진동 성당 개설
- 71-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 승격/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 지정
- 72-성남어머니 활동단 조직/ 한국통신공사 성남전화국 개국/ 남한산성 내수어창대-지방유형문화재 1호 지정 외, 숭열전(2호), 청량당(3호), 현절사(4호), 청폐정(5호), 연무관(6호) 지정/ 희망대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개교
- 73-성남시 승격(법률 제2597호)/ 성남시민현장 제정/ 성남체육회 발족/ 성남교육청/ 농촌지도소/ 성남지원 개소 / 성남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개소/ 성남서고등학교 개교/ 성일여자중학교(사립) 개교
- 74-성남상공회의소 설립/ 신구전문대학 개교/ 성일중학교 (사립) 개교/ 성남의 노래 제정/ 풍생고등학교(사립) 개교

- 75-성남소방서 개설/ 한일은행 성남지점 개점/ 성남문인 협회 창립/ 상이군경회 성남지회 발족
- 76-성남직업훈련원(현 성남기능대학 전신)설립/ 성남세무서 신설
- 77-성남 의료보험조합(5지국) 설립/ 양천희병원(현 중앙 병원 전신) 개원/ 대곡교 준공/ <성남문화>창간호 발행
- 78-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대유공업전문대학(현 동서울대학) 개교/ <성남시지>발행/ 성남문화원 발족(1대 조명천 원장)/ 자연보호현장 선포
- 79-경원전문대학 개교/ 성남국악지부 설립
- 1980-성남공단 관리공단 설립/ 봉국사 대광명전 경기도문화재 101호 외 망경암 102호 지정/ 이수선생 묘역 경기도 기념물 54호 지정/ YMCA성남지부 발족/ 성남여성단체협의회 발족
- 81-성남시민회관 준공/ 경원대학교 설립인가/ 성남노동지방사무소 승격
- 82-성남시청 준공/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준공/ 법집별행 특절요병입사기 보물 1148 회 1149호 지정/ 새마을운동 성남연수원 신축/ 성남미술협회 인준
- 84-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현대사회연구소 준공/ 성남무용협회 창설
- 85-세종연구소 개소/ 인하병원 개원/ 이경석선생 묘 경기도기념물 84호 지정 성남연극협회 인준
- 86-86아세안 게임 결과, 성남종합운동장 하키부 금메달 획득/ 예총 성남지부 인준(8개 지부)/ 여성복지회관 개관/ 성남연예인 협회 인준/ 성남시립 합창단 창단/ 정일당 강씨 묘 성남향토유적 1호 지정
- 87-성남음악협회 인준

- 88-88서울 올림픽 결과, 하키, 애슬링 등 10개 메달 획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개원/ 망원사지 경기도기념물 111  
호 지정/ 성남YWCA 창립
- 89-전통문화협의회 창립/ 수정, 중원구청 개청/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성남실내체육관 전립/ 성남 분당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한양대학교)/ 한산이씨 묘  
역(중앙공원)경기도 기념물 116-118호 지정/ 중앙공원  
내 전통 한옥가옥 경기도 문화재 자료 78호 지정/ 개  
원사지 경기도 기념물 119호 지정
- 1990-서울보건전문대학 양지동 개교/ 성남로울터 스케이트  
장 전립/ 분당 학술 조사서 보고/ 지역 신문신문사 <  
도시신문>, <성남신문> 창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  
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간
- 91-지방자치제 제1기 성남시의회 개원(시의원 45명)/ 분당  
신 도시에 서현동 1차 2,478세대 첫 입주/ 분당구청 개  
청/ 판교-구리 순환도로 개통/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개원/ 성남남부경찰서 개설/ 성남펜클럽(문학동인) 창  
립
- 92-대원천 복개공사/ 환경사업소 설치/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보물 1128-1136호 지정
- 93-청소년 복지회관 개관/ 문촌 이집선생 성남향토유적 2  
호 지정/ <성남시사> 발간/ 향토문화연구소(성남문화  
원 부설, 이창열 원장 겸직) 개소
- 94-분당선 지하철 개통(수서-분당)/ <성남문화연구> 창간  
호 발행
- 1995-지방자치제 실시 제1기 민선 시장 당선(오성수)
- 96-8호선 지하철 개통(잠실-모란)/ 제1회 국제학술회의(향  
토문화연구소) 개최/ 성남문화 발전 포럼(성남문화원)
- 97-문화유산의 해 공표/ 제2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관

98-성남시민회장 개정 선포/ 성남문화연구소(사설, 하동근

소장) 개소/ 중국 삼양시와 자매도시 결연/ 하천복개

공사(공단로-사기막골/ 수진교-탄천)/ 성남소각장 준공

/ 성남시 심볼마크 마스코트 제정 사용/ 성남문화 예술

제 추진 간담회(성남예총)

99-성남시 장학회 설립(100억원)/ 성남대로 확장 준공/ 을

동 자연공원 개장/ 성남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

을 위한 세미나(5주제-성남예총)/ 성남3.1운동추념식

첫거행(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성남문화원 공동사업)/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분당문화정보센터(도서관)

개관/ 성남시 최우수 기관 표창(전국 공공근로사업 최

우수 기관)

2000-성남문화의 집 개관(구 성남교육청사)/ 중원수정문화

정보센터 개관/ 성남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46회) 개최

/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장/ 40개 동사무

소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개소/ 〈성남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외 〈성남시 문화관광 벨

트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 제출(성남시, 성남발전 연구

소)/ 〈성남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발간(성남시, 한국토지

공사)

01-송산 조선선생 묘역 성남시 향로유적3호 지정/ 도로명

및 전문번호 부여사업 완료/ ISO 2001 품질행정 인증

획득/ 성남 수내 문화의 집 개소/ 세계산업디자인 총

회 및 디자인 문화제 개최/ 중앙문화정보센터(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개관/ 성남제2종합운동장 준공/ 화장

장 시설 확장/ 〈성남시 문화지표 조사연구〉 보고서 발

간(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공동)

02-금릉 남공철 묘, 경현 조문정 묘 성남시 향로유적4-5호

지정/〈국역 정일 당 유고〉(향토유적1호 유고집 완간  
본)발행

(3)-〈성남금석문 대관〉발간(성남문화원)

이상 연도별 문화부분 주요 실적을 정리하면서 향토문화의 경우, 정말로 시청이나 정책수립자 및 몇몇 관심에 의해 명백유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향토문화연구소 본래의 활동을 위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학술회의 및 〈성남문화 연구〉 연간 한 권씩 지역 관련의 논문집을 발행한 성과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므로, 문화원 부설기관 "성남 향토문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향토사 조사·수집과 연구 보고서 결과, 성남 향토문화 재발견에 큰 손짓을 한 셈이었다. 다만, 이 연구 내용들이 시민 전체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진 하다. 이 연구소에서는 1993년 9월에 開所式을 가진 후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연구위원 20여 명은 각 분야별 전문 학자로서 그들의 꾸준한 연구에 의해 성남 향토역사와 문화가 유실되지 않고, 그 본래의 역할을 위해 힘써 왔던 게 사실이다.

참고로 향토문화연구소의 주요활동을 정리한다.

#### 1993년-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제1대 소장-이창열 원장 겸직 외 연구위원 10명 위촉

1994년-〈성남문화 연구〉창간호 발행

'영창대군 묘비명' 발견 수습 보존

95년-〈성남문화 연구〉제2-3호 발행

96년-〈성남문화 연구〉제4호 발행

제1회 국제학술회의-'남한산성의 현대적 제조명'

〈향토사료관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연구〉1차 보고서

발간

97년-제2회 국제학술회의-'남한산성과 3학사'

〈'97성남향토사료관 기초조사연구 자료집〉2차 보고서  
발간

98년-제3회 학술회의-'향토인물연구:둔촌 이집, 여류문사 강정일당' "국역 정일당 유고(상반부)" 발간 ('98성남시 향토사료 조사연구)-향토사료관 입지선정-3차 보고서 발간

99년-〈성남문화 연구〉제5호 발행

제1회 학술 모론회-'송산 조선 인물연구'

제4회 학술회의-'향토인물연구:백현 이경석, 금릉 남공철' "천립산 봉화 고중을 위한 학술세미나"(논문집)  
발간

2000년-〈성남문화 연구〉제6호 발행

제5회 학술회의-'향토인물연구:문정공 한계희'

01년-〈성남문화 연구〉제7-8호 발행

제6회 학술회의-'향토인물연구:아천군 이증'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발간

〈판교 마을지〉(성남향토문화 총서2) 1차 발간

02년-〈성남문화 연구〉제9호 발행

제7회 학술회의-'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국역 정일당 유고"(전체, 단행본) 발간

"성남지역 의병조사 연구" 발간

〈판교 마을지 1〉(성남향토문화 총서3) 2차 발간

03년-〈성남문화 연구〉제10호 발행

제8회 학술회의-'일제하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민족해방 운동'

한편, 연구소 주축으로 발간된 〈성남문화연구〉 총10권에 담긴 論題 一覽은 아래와 같다.

1994(창간호) 김창환-성남시의 지형환경연구/ 박상규-성남지역의 지명성격 고찰/ 어순영-민족문화 선양에 관한 소고/ 이형구-영창 대군 묘지명 발견과 영창 대군 약사/ 장삼현-성남의 세거성씨와 인물고/ 전보삼-백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 한춘섭-성남 漢詩 동인 <시집>자료 고찰

1994(2호) 김창환-성남시 모란지역의 상가기능에 관한 연구/ 박상규-성남시 지명 연구/ 백남옥-백제의 초기 강역에 관한 연구/ 어순영-한국 민속공연장 시설기증을 위한 기초적 연구/ 전보삼-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한춘섭-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

1995(3호) 김창환-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 박상규-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백남옥-고대 남한산고/ 소진광-성남의 산업구조/ 장삼현-금광동 광산길씨에 관한 연구/ 장철수-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전보삼-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한춘섭-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허창무-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조병로-조성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1)

1997(4호) 허창무-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장철수-남한산성 백제 시조 온조왕묘의 건립과정/ 백남옥-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 조병로-17-8세기 남한산성의 재수축에 관한 일고찰/ 장삼현-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박상규-삼천도 대청황제공덕비문의 원문 재구와 해석 및 색인/ 전보삼-남한산성 문화재 현황과 보존책에 관한 연구/ 한춘섭-남한산성 가톨릭 순교사 고찰/ 김창환-남한산성의 지형 환경 연구/ 소진광-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1999(5호) 백남옥-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조병로-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2)/ 장철수-남한산성 현철사의 건립과정/ 전보삼-남한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안에 대하여/ 조유천-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비교 연구/ 한춘섭-둔촌 이 집 연구/ 최종민-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천화숙-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  
기지역/ 소진광-〈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허창  
무-성남과 심양간 차폐도서 결연의 역사적 의의와 21세기를 향한  
협력강화 방안

2000(6호)백남옥-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김기빈-병자  
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천화숙-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유작경/  
한준섭-향토 인물의기초 연구/ 허창무-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장철수-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박순임-성남에 있어서 시민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지교현-'노  
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 방안/ 소진  
광-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전보삼-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2001(7호)조병로-조선시대 천임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 백남옥-  
조선후기 금릉남공철의 정치운영론/ 김기빈-남한산성의 문루. 누정.  
사찰 등의 명칭에 대한소고/ 한준섭-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 지  
교현-성남 '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가칭  
'성남시 향토문화 전자대전(CD-Rom)'의 연구계획

2001(8호)조유전-유적. 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 백남옥-고려  
말과 조선초의 성남지역에 관한 고찰/ 문수진-성남시의 집성촌 연  
구/ 김기빈-성남시 관내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  
지교현-'삼학사전'과 향철의리의 유학적 평가/ 천화숙-한국근대 여  
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YWCA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준  
섭-학교 권오선 문사의 한시 연구

2002(9호)백남옥-'백제국(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문수진-나  
탈여초의 지배 세력과 성남/ 조유전-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한산성  
행궁지/ 정은경-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서승갑-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한준섭-박태현 작곡가의 예술활동 연구/ 김  
기빈-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2)/ 한동억-일제에 의해  
해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박종민-'널다리 쌓을줄다리기'의

## 내용과 의미

2003(10호) 김기빈-성남지역의 「지명우함(地名偶合)」 또는, 「에언성(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박종민-지역사회 貢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 고찰/ 백남욱-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서승갑-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전보삼-성남의 정치성에 관한 일 고찰/ 정은경-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한동억-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준섭-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이동안 매년 연속적으로 개최한 학술회의, 연간 〈성남문화연구〉 학술지 발간 외 3차례에 걸친 〈성남 향토사료관〉설치 조사 보고서, 2권의 〈판교 마을지〉 간행은 향토문화연구소의 주요 업적들이었다. 이외에도 향토유적 제1-5호 지정과 청소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현장교육, 향토역사반 시민교육 전담 등은 실로, 성남 향토문화를 기초단계부터 자리매김 해온 지역 고유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더구나 총 20여 명 연구위원들에 의한 80여 편 향토 역사와 문화·예술 연구논문 발표는 지역사 문화 발판에 한 몫을 해 왔다고 하겠다. 아울러 백남욱·전보삼·한준섭 등 연구위원 3명이 시종일관해 오고 있는 연구 성과는 성남 향토문화의 기본 흐름을 그어 놓았다고 할 만하다.

## 나. 향토문화 전략 리포트

앞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21세기는 자못, 문화의 시대'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뒤처져 온 문화가 선진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사회에서는 옹당 모든 분야에서 지속성있게 최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발전의 앞장설 성남시의 향토문화 전략은 특창적 전략사업으로 타 지역 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문화기반 네트워

크 기반조성이요, 경쟁에 앞서는 우수 인재양성의 교육력 뒷받침이 장기적으로 영속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성남시 향토문화 시설 확충은 범 시민의 기반 문화생활 여건을 마련한 각종별 문화의 집 일반 기초수준 운영체 외에도 창조적 고부가 가치의 문화 시설이 몇 가지 특화 정책사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문예회관 외 시립 자료관 또는 박물관, 시립 미술관 등이 전무한 실례를 보더라도 성남시 문화 천략사업은 너무 뒤진 감이 없지 않다.

또 다른 면에서 현행 성남시의 유무형 지방 문화재 관리상태 조차 미약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사적 위인 묘역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여러 곳의 묘역정화 사업은 몇몇 姓氏 門中을 제외하곤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다.

1999년도부터 성남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예회관 전립과 모란민속시장 특성화 개발이 시급하다고 토론, 세미나를 몇 차례 개최하였으나 회관전립이 현재까지도 자연상태이고, 시장 역점사업 중에 문화, 예술정책은 역시, 미온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 것을 꾸미기에 있어 남의 것 흡내나 내자고 하는 불에서 벗어나 성남의 향토문화를 시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개발사업에 의한 신 도시이므로 어떤 향토문화의 작은 옛 이야기 꼬투리만 있어도 내 고장 문화로 가꿀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탄천가에서 모든 시민들이 흥분할 수 있는 게 우리 만의 문화가 꾸며져야 될 것이고, 중앙공원, 율동공원 자연속에서 우리 만의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고 눈물도 흘리며, 우리 옛 것 소중한 전통가치를 찾아 옛 선조들의 피땀 흘렸던 일에 관심을 모아 보는 시민의식을 키워 가야 하겠다. 그러자면 그 자리에 편가, 전통적인 문화명소를 성남 색깔로 꾸미놓은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표석이나 표징비라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건립되어야 한다. 그 예로써 성남시 개발 이전부터 시초했던 '모란 개최단' 근거지에 표징비를 세운다든가, 율동 3.1만세운동 현장에

추념비 건립 또한, 시청이나 각 구청 광장, 크고 작은 공원 터에 예술가, 문화인 체취가 담겨있는 향토문화 예술가의 현장 문학비가 곳곳에 세워지면 좋을 일이다.

이외에도 도시 분위기를 위해 거리 이정표와 가로등, 가로수와 보도 블록의 특유한 모양과 색상을 꾸며 나가는 일에서부터 상설 연극공연장과 전시장 특화 거리가 자생적이되 행정기관의 의도적 노력으로 이곳저곳에 만들어 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4. 미래를 향한 향토문화의 보존

사실, 성남시의 전통문화 보존 관리는 너무 빈약하다. 그동안 몇 차례 총정리한 보고서나 여러 형태의 학술모임 또는, 연구논문 속에서 놀라게 되었던 문제가 무계획적인 문화정책과 빈약한 예산지원 내용이었다. 신 도시로서의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개발 우선 순위로 밀려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문화 예술 분야의 8-90년대 추진 사업을 되돌아 볼 때, 1회성 행위예술과 전시행정이 대부분이었으며 당시 구태의연한 출속의 문화행사였다. 성남시 미래를 향한 비전 담긴 실질적 장단기 사업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시민 수준에 비해 공급측면의 생각이 전문성있게 대체하지 못한 점이 반복되어 왔다. 그 어떤 책임자가 가고 오더라도 계획된 정책 입안내용에 의해 혼들림없이 성남시 제 모습을 가꾸어 나가야 할 문화보존 사업이 너무 엉성한 과정였다.

서둘러 21세기 삶의 모습은 모든 면이 엄청나게 급변되어 잘 것 이기에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문화의 관점이 어디에 있을까도 검토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도서관과 생활체육 문화공간 확보는 적지않게 준비되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의 내부사정은 체계를 갖춘 치밀함으로 전문가 의견에 의해 조정되어져야 할 일이며, 시민들의 각종 여가생활 욕구도 크게 증가한 반

면, 이에 뒤따르는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준에서의 차별화를 유도해 내지 못한 유사한 유형의 중복성은 개선돼야 한다.

하므로 진정한 '삶의 질'을 경제적 소득 높이기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 가까이에서 선진형의 문화시설을 통한 눈높이를 맞추도록 대중문화 외 고급문화 보존시설 유지에도 기초단계부터 살피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생각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꾸준한 재정지원과 세부사항의 검증이 일관성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전국 2백30여개 시·군·구의 문화복지 지수를 상호 비교하면서 하드웨어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도 발전시켜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성남시의 이미지를 담은 향토성 문화 밀그림을 찾아내어 시민 누구나 생활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성남문화 유산을 관람 이용도록 각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의 시대에 있어 문화의 의미는 전문가 몇 사람과 행정 관계자들 둘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라는 힌트를 알아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리게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신선한 酸素 호흡을 원하듯이 성남 문화를 호흡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기회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최종적으로 문화를 이벤트화해서 감동을 함께 나누고 멀티 미디어의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수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世紀는 산업사회 자원 모두가 땅속에서 찾아야 했지만, 21세기 정보화 이 시대 문화 콘텐츠는 그 자원이 인간의 마음과 머릿속에 무궁무진 쟁겨있다는 사실이다.

#### 가. '우리 문화유산' 발전안

지금까지 경험한 일을 토대로 볼 때에 성남 향토문화를 계속적

으로 발전시키려면 시청 문화정책 담당자 몇 사람 의지만으로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시장·부시장·국장 외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 최고 책임자의 문화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손짓되어져야 한다. 그 외 전문분야 연구자들과 더불어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 **關鍵**이다. 타 고장이나 외국인이 성남을 찾았을 때 자신있게 내놓으며 안내해 줄 수 있는 '성남을 더 성남답게 보여 줄 문화 상품'이 지금,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성남에서 향토색 짙은 문화 유산을 우리는 보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예술부문에서 국악이 있고 연례적인 시민축제가 있으며, 단체조직으로서 합창단, 국악단이 있다. 또, 문화부문에도 향토문화 인물들의 몇 곳 묘역이 지정되어 있고 민속놀이 행사가 산발적으로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몇 가지 사례로서 "성남은 바로, 이것이야!" 특성화된 내 얼굴을 자신만만하게 자랑할 자료 전시실이 끼 있는가? 성남시 문화는 外華內黃으로 속이 텁텁 빛 강정과도 같다고나 할까. 심히 부끄러운 가운데 자신있는 답변은 궁색할 뿐이다.

지금까지 성남 신 도시 역사에서 역대 시장 재임중에 펼쳐 왔던 시정내용은 항상, 그럴 듯했다. 지금도 그 같은 사례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성남비전 2006>안에 5대 분야별 130여 개 역점사업을 제시하면서 우리 성남의 전반적인 환경과 주거지 개선사업이 거창하게 나열되어 있다. 수정·중원구내의 재개발과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시하여 경전철 공사 내용이 청사진으로 밝간되었다.

아울러 2003년도판으로 제작, 배포된 "우리 시 테마"/ e-푸른성남/ 책자 및 디스켓 안내에서도 우리 고장은:

"첨단산업과 깨끗한 환경이 어우러지며,  
미래로 뻗어 나가는 힘찬 도시, 성남!"  
이라고 하였다. 이에 '문화' 부분 홍보의 글을 인용해 보면,

성남시는 연중 주부, 노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취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므로써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 문화예술제는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종합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하였으며, 시 대형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은 예술의 격을 높이고 있으며, 판교 널다리, 쌍용 줄다리기와 이무슬 침터 다지는 소리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sup>8)</sup>

그러나 사실, 이런 말로 자신있게 내세울 만 한가? 100여 만명이 거주하는 거대형 도시권 성남시에서 '가장 한국적인 성남다운 얼굴'의 문화 프로그램이 그 어떤 것이며, 다양한 문화 수집자료를 지금, 어느 사료관에 정리, 보존되었단 이야기인가? 또, 예술제가 전정, 전체 시민을 위해 얼마나 발전, 정착단계이며, 다양한 공연, 전시회가 1년에 총 몇 차례 常時 운영된다는 건가? 그리고, 전통문화 역시, 계승될 여건도 미미한 상황하에서 발전에 힘쓴다는 주장은 크게 빛나가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곳저곳의 단기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문화교육 강좌가 천편일률적으로 부실할 수 밖에 없이 운영되는 보통시민들 생활문화는 어느 지방에서나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시 예산 낭비성 사업만 같다. 그리고 성남시 각 문화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시킬 시설은 전무 상태며, 성남시 전통 민속문화에 있어서 모두가 바 지역앞에 내놓을 수준이 아니다. 줄다리기, 침터 다지기 외에도 불국사 창건과 연관된 두 공주 천도제와 남한산성 축성놀이 등 모두가 민속정연대회 경기도 예선전에 참가나 하였던 종목일 뿐이다.

8) 성남시 편: 〈e-푸른 성남〉 홍보(디스켓 포함), 문화 홍보 문구

결국, 성남문화는 우리 생활 곁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승식하며 걸어 다니는 중에 불꺼리로 곳곳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고,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들어 들 만한 이야기끼리라고 하겠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축적된 핵심적인 성남 전통문화는 그 어느곳에서도 만날 수 없이 대중문화 수준의 몸짓들 뿐이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성남 문화의 저급성 만연이다. 나의 후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고급문화 부류에 속하는 '성남다운'

'성남 제 얼굴'을 찾아내어 傳承시켜 나갈 일을 위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존중 운동이 정책적으로 전개되어 그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성남시 둘레에는 크고 작은 公園들이 많다. 그러나 그 시설속에서 성남역사를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을 끄집어 낼 소재가 눈에 띄지 않음이다. 누누이 지적된 것과 같이 역사속 위대한 貴人의 追墓碑 한 곳이 제대로 없다. 그 외 특화된 조각공원, 향토 자료 시립박물관, 예술작품 전시관 등 성남의 역사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묵음이 없으며, 예술가들의 솜씨를 감상해 볼 그 무엇들이 대반 부족한 게 지금까지의 성남문화 현주소다. 이 같은 말을 어느 누구에게 덜어 놓아야 할까? 우리 시민 모두가 부끄러워 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성남문화회관이 머지 않아 개관 예정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본다. 그리고 판교개발 사업에다 서울공항 이전 이야기가 훌려 나오고 있다. 일련의 커다란 사업이 더 박차를 거듭한다면 성남시의 현재와 미래상은 무궁무진한 기대감으로 벅차오를 뿐이다. 하여, 지난 30년의 성남시 글 절된 역사이야기를 위시하여 더 오래 전 선조들의 향토사료와 민속을 발굴·정리하고, 우리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중에 성남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을까? 재삼 강조하는 말이지만 지방자치 시대 후 歷代 民選 市長이 50대니 100대니 公約사업을 제창한 후 지금껏 달성시키지 못한 여러 사업을 하루 속히 마무리시켜야 하고, 장단기 구체적인 역점 계획도 검토하여 모든 분야에서 "바로, 이것이

다” 싶은 몇 가지 ‘성남 것’을 쟁기는 일에 여러 전문가들 공통된 주장을 결집시켜 하루 속히 해결시켜 나갈 것을 제언한다.

#### 나. 성남 문화의 가치성 제고

인간은 동물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인류문화를 논하고, 성남시가 제법, 선진화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므로써 이곳에서의 전통문화는 진정으로 새 부대에 새 술 처럼 저장시켜야 마땅하다. 성남시는 인위적 개발로 꾸며진 신 도시로서 원주민 감소, 외지인 천입으로 향토문화 터전을 상실했다. 천만다행인 것은 최근에 조사된 성남시 문화유적 집계에 따르면 총 192개소가 산재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정, 비지정 향토 문화유적 대부분이 분묘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연구자료는 빈약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성남시 인구구성이 전국 8도민 혼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두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는 주민의식의 유대현상은 다소 흡이질 수 밖에 없는 지역정서가 아닐 수 없다.

도시가운데 단독주택과 아파트 생활을 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모두를 수용할 문화적 논리는 보다 편리하게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된 192곳의 문화유적 가운데 개발의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산을 엄밀하게 진단해야 된다. 지금까지 검증되어 지정된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성남시 향토문화 인플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통문화, 민속예술은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남시 안의 문화유적들이 보다 든든한 디딤돌로 채워져있다 할 수 있고, 이로써 성남시민의 수준은 선진 문화시민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굳이 잘 꾸며진 선진국의 실례를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특화된 향토문화 그리고, 예술 축제와 시립 박물관 내지 자료관 등이

현대인에 의해 새로 꾸며져야 된다.

전국 각처에서 거행되는 지역 축제 6백여 종류 중에서 특성화된 주요 祀祭만도 조선일보 2003년 4월 28일자 기획특집 자료에 의하면, 총 40여 종목의 각종 행사들이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전국 11개 시도권에서 선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성남시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 왔다. 그 실례로서 세계 여러 민족의 관혼상제 의식을 재현시키는 '세계동과의례 페스티벌', 각종 수산물 할인판매를 결드린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 세계 30여 나라의 전통 무술단체가 경연을 벌이는 '세계 무술축제' 외 '국제 연날리기' 등 기획으로 소개된 여러 행사와 같이 성남시 고유의 축제도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 한 실례로 야탑동 성남문화예술회관 외 전용극장이나 야외 공원에서 이같은 축제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성남동 모란민속시장 또는, 탄천 뚝길에서도 상설무대 처럼 성남 축제가 올려진다면 어떠할까 한 방안을 구상해 봄이다.

아울러 전국권 단위의 출전을 위하여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民俗경연대회 종목 선정에 있어서 아직껏 성남시는 10여 차례 도 단위 예선전에 참가만 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전국권에 뽑힌 적이 없이 미미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일련의 이 사업은 성남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참가에 의미를 둘 뿐 관심있는 행사가 못된 실정이다. 앞으로 전문가 이론을 토대로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속에 이 행사가 키워져 나갔으면 싶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연습에 임하면서 자료고증과 참가종목에 대한 이론 준비도 하면서 재정적인 핏발침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문화원 전용시설 조차 없는 성남시의 경우, 이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더 이상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세기 후반기에 어설픈 신 도시로 탈바꿈한 성남시의 문화유산 관리는 환경파괴와 다를 바 없다. 전국 여러 지방민들이 離合集散 으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이제까지 성남의 문화 정체성을 말한다는

게 다소 무리였다고 하자. 그러나 시 승격 3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성남시는 더 이상 향토문화 사업들을 미뤄둘 수 없는 일이다. 이 마을 저 고장 원주민의 집성촌 생활풍속도가 되살려져야 하고, 신 도시 성남의 얼굴 같은 향토문화, 예술축제가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겠다. 성남시에서도 도시화로 무관심 된 현대문명의 시민정서를 결집하고 내 삶의 터전의 애착심을 키워나간다는 태明珠 아래 반드시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될 법하다. 그러므로 그 일차적 사업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공간시설 확보라고 하겠다. 이른바 향토문화 시립 박물관 설치와 성남문화원 부설 평생 사회 교육기관 문화학교 공간시설 안에서 성남문화 속의 역사교실 운영, 민속 경연 실기 연습, 茶道의 실기실습, 민속놀이 보존활동, 국악 실습장 운영, 충효 예절교육관 운영 등 훌륭한 성남문화유산의 발전적인 새 장을 꾸준히 창출해 나가야 할 일이다.

하여, 태어난 고향을 떠나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에게 무관심한 성남문화 유산에 저절로 관심을 갖도록 재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청소년층의 젊은 이들 앞에 '우리 성남 바로 알기' 시민교육을 영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일이다. 한편, 조사수집된 성남문화 유산 자료집도 대량 제작·배포하고, 자료집에 의한 현장답사 교육과 강연회 등으로 우리 고장의 특성화 향토 문화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20세기 터널을 통과한 우리 현실에서 군사력 우위, 경제력 우위만을 즐겨 말할 시대는 아니다. 21세기는 누가 뭐라해도 '문화의 대국'으로 이 나라의 각 고장 정체성이 특성화되어져야 할 밖에 없다. 최근 국가발전 전략을 말하는 자리에서 의례, 뉴미디어의 정보 기술을 힘주어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든다 해도 그것에 담겨질 '정신의 꽃' 문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에게 있어 특성화된 향토문화가 없는 지방자치 발전시대는 기약할 수가 없다. 성남의 향기가 풍기는 성남다운 〈성남문화〉, 탄천 물속의 햇살과 청계산의 풀나무 향기를 채색화로 꾸며놓은 〈성

남 예술>이 기술개발 못지 않게 문화상품으로 개발시킬 그날을 고대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 수집과 기록보존 첫 단추를 잘 맞추어 쟁기면서 성남다운 창의성 문화예술의 산실을 위한 공간확보 그리고, 연구와 행사비 지원에 현실화를 시급히 제안해 본다.

## 5. 마무리 글

이 시대의 우리 생활의식은 개방적인 西歐文化의 숭상 내지 도취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향토문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도착화로 형성된 향토문화 원형이 그대로 보존·계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럴 수도 없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다만, 鄉土愛에 입각하여 성남문화원과 예총 성남지부에서 청소년 및 시민들의 향토의식을 활성화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자료수집과 기록보존, 소개, 조사연구 보고회, 작품집이나 연구지 발행,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 등으로 정신적인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간헐적 문예행사를 이끌어 왔지만 해가 바뀐 수록 성남사람의 시민의식은 제 자리 걸음인 듯 하다. 지금까지 성남 시승격 30년 동안에 일궈는 업적이 수많은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아쉬움이랄까 불만스러운 일이 예총이던 문화원이던 단독적인 기본 공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각 문화와 예술사업의 행사비가 너무 부족하다. 다시 말하여 행정기관과 시 의회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성있는 사업지원 아래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드높힐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성남 향토문화 유산의 지역연구는 겨우, 일부분 기초단계를 벗어났을 뿐이다. 농경문화권에서 신 도시문화로 격변된 특수여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역사 분야에 친전을 조금 보였을 뿐,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 정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하여, 성남시의 여러 학문분야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정례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연구 가능한 분야가 더 깊게 연구성과를 거두어 결국은 현실에 바탕을 둔 문화 관광상품 활용의 단계까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흔히 문화를 일컫는 말에 <문화는 물과 같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든다.>고 한다. 이 말이 비유로는 적절한 듯 보이지만 문화를 수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발언 태도요, 향토문화 자체를 면두리 층속문화로 여기는 비유 사례에 불과하다. <가장 성남적인 문화가 가장 한국적 문화>라는 평범한 진리를 의식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성남시 향토문화 유산을 더욱 활기차게 계승·발전시키 나가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주고, 말로만의 전통적인 향토문화 발굴육성,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성남시 시정방침 속에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에 動因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대안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숨결이 생동하고 조상의 습기와 얼이 담겨지도록 관민 내지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인식 전환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루 빨리 성남시립 박물관 내지 자료관과 함께 이를 총 관掌할 문화원 공간을 마련해 한다. 그 다음으로 전시민의 관심속에 성남문화 연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시급히 보충하고 훈련시킬 것이며, 전시공간과 활동시설이 훌륭하게 지어져서 최신 장비를 갖춘 개관될 시설속에서 전체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은 문화재 자료 수집과 정리, 모형제작과 보존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이외 모란개척단 기념비, 분당 개발기념비 외 시민헌장 개보수, 구 시청 표징비를 더 늦지 않도록 세워야 하며, 공원 속에 이 고장 역사의 儀人 추모비 전립 예천대, 성남지역의 청백리비, 의병장 순

#### 234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의비, 3.1독립운동주모비 등이 전립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통문화 예술로 '성남 얼굴'을 상징할 문화, 예술 축제를 한두 종목 꾸준하게 육성해야 된다. 한편,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자를 비롯하여 시민헌장 제정위원, 성남 도로명 제정위원, 역대 각종 문화예술상 수상자들과 시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한 모든 지역인사들에게 정신적 예우정책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편집위원

백남우, 천화숙, 한춘섭

제 10 호

---

인쇄 : 2003년 9월 20일  
발행 : 2003년 9월 21일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전화 : (031) 756-1082  
팩스 : (031) 756-1056

---

이 연구논문집은 성남시 문화사업 지원금에 의한 제작임.